

가공과 품질이 있는 명석한 삶을 위해

더 설래임

청소년 · 상담자 · 마음놀이터

2017년 충청남도 청소년 스마트폰 사용 실태조사

목 차

I. 서 론

| | |
|--------------------------|----|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11 |
| 2. 연구문제 | 13 |
| 3. 이론적 배경 | 14 |
| 1) 청소년과 스마트폰 | 14 |
| 2) 스마트폰과 청소년 정신건강 | 15 |
| 3) 스마트폰과 청소년 사이버일탈행동 | 16 |
| 4) 스마트폰과 청소년이 지각하는 사회적지지 | 17 |

II. 연구방법

| | |
|---------------|----|
| 1. 연구대상 | 21 |
| 2. 측정도구 | 21 |
| 1) 일반적인 특성 | 21 |
| 2) 스마트폰 사용 | 21 |
| 3) 스마트폰 중독 척도 | 21 |
| 4) 사이버일탈행동 척도 | 22 |
| 5) 정신병리 | 22 |
| 6) 사회적 지지척도 | 22 |
| 3. 분석방법 | 23 |

III. 연구결과

| | |
|--|----|
|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 27 |
| 2. 연구대상자 인구학적 특성별 분석 | 32 |
| 3. 스마트폰 중독과 청소년 심리, 행동 및 사회적 지지와의 관계 | 69 |
| 4. 사회적지지가 청소년 심리·행동 및 청소년 스마트폰 중독정도에 미치는 영향 | 71 |
| 5. 청소년 정신병리가 스마트폰 중독정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 | 77 |
| 6. 청소년 사이버일탈행동이 스마트폰 중독정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 | 87 |

IV. 결론 및 제언

| | |
|------------|-----|
| 1. 연구결과 요약 | 105 |
| 2. 논의 및 제언 | 109 |

| | |
|---------|-----|
| 참고문헌 | 112 |
| 부록(설문지) | 116 |

표목차

| | |
|---|----|
| <표 1 문항별 신뢰도 분석> | 23 |
| <표 2 일반 특성별 분포> | 27 |
| <표 3 지역분포> | 28 |
| <표 4 가족형태별 분포(다중응답)> | 29 |
| <표 5 경제수준 분포> | 29 |
| <표 6 국가나 단체에 의한 경제적 지원 분포(다중응답)> | 30 |
| <표 7 물질적/정서적 지원 분포> | 30 |
| <표 8 청소년전화 1388/청소년상담복지센터 인지 및 이용경험 여부> | 31 |
| <표 9 청소년의 스마트폰 사용에 대한 전반적 특성> | 32 |
| <표 10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스마트폰 사용여부> | 34 |
| <표 11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스마트폰 사용시기> | 36 |
| <표 12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스마트폰 사용시간> | 38 |
| <표 13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스마트폰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기능> | 40 |
| <표 14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스마트폰 사용 시간대> | 44 |
| <표 15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취침시간> | 46 |
| <표 16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스마트폰 의존정도> | 48 |
| <표 17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스마트폰 사용 만족도> | 50 |
| <표 18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스마트폰 중독정도> | 51 |
| <표 19 청소년 정신병리의 전반적 특성> | 52 |
| <표 20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불안> | 52 |
| <표 21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우울> | 54 |
| <표 22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충동성> | 55 |
| <표 23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공격성> | 56 |
| <표 24 청소년 사이버 일탈행동의 전반적 특성> | 57 |
| <표 25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게임중독> | 57 |
| <표 26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채팅언어폭력> | 59 |
| <표 27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사이버사기> | 60 |
| <표 28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성적일탈> | 61 |
| <표 29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불법정보유출> | 62 |

| | |
|--|----|
| <표 30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도박문제> | 63 |
| <표 31 청소년이 지각하는 사회적 지지의 전반적 특성> | 64 |
| <표 32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친구지지> | 64 |
| <표 33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가족지지> | 66 |
| <표 34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교사지지> | 67 |
| <표 35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지역사회지지> | 68 |
| <표 36 스마트폰 중독 정도에 따른 청소년 중독병리> | 69 |
| <표 37 스마트폰 중독 정도에 따른 사이버일탈행동> | 69 |
| <표 38 스마트폰 중독 정도에 따른 사회적지지> | 70 |
| <표 39 사회적 지지가 불안에 미치는 영향> | 71 |
| <표 40 사회적 지지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 | 71 |
| <표 41 사회적 지지가 충동성에 미치는 영향> | 72 |
| <표 42 사회적 지지가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 72 |
| <표 43 사사회적 지지가 게임중독에 미치는 영향> | 73 |
| <표 44 사사회적 지지가 채팅언어폭력에 미치는 영향> | 73 |
| <표 45 사사회적 지지가 사이버사기에 미치는 영향> | 74 |
| <표 46 사사회적 지지가 성적일탈에 미치는 영향> | 74 |
| <표 47 사사회적 지지가 불법정보유출에 미치는 영향> | 75 |
| <표 48 사사회적 지지가 도박문제에 미치는 영향> | 75 |
| <표 49 사회적 지지가 스마트폰 중독정도에 미치는 영향> | 76 |
| <표 50 친구지지의 조절효과(불안) | 77 |
| <표 51 친구지지의 조절효과(우울) | 77 |
| <표 52 친구지지의 조절효과(충동성) | 78 |
| <표 53 친구지지의 조절효과(공격성) | 78 |
| <표 54 가족지지의 조절효과(불안) | 79 |
| <표 55 가족지지의 조절효과(우울) | 79 |
| <표 56 가족지지의 조절효과(충동성) | 80 |
| <표 57 가족지지의 조절효과(공격성) | 80 |
| <표 58 교사지지의 조절효과(불안) | 81 |
| <표 59 교사지지의 조절효과(우울) | 81 |
| <표 60 교사지지의 조절효과(충동성) | 82 |

| | |
|-----------------------------------|----|
| <표 61 교사지지의 조절효과(공격성)> | 82 |
| <표 62 지역사회지지의 조절효과(불안)> | 83 |
| <표 63 지역사회지지의 조절효과(우울)> | 83 |
| <표 64 지역사회지지의 조절효과(충동성)> | 84 |
| <표 65 지역사회지지의 조절효과(공격성)> | 84 |
| <표 66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불안)> | 85 |
| <표 67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우울)> | 85 |
| <표 68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충동성)> | 86 |
| <표 69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공격성)> | 86 |
| <표 70 친구지지의 조절효과(게임중독)> | 87 |
| <표 71 친구지지의 조절효과(채팅언어폭력)> | 87 |
| <표 72 친구지지의 조절효과(사이버사기)> | 88 |
| <표 73 친구지지의 조절효과(성적일탈)> | 88 |
| <표 74 친구지지의 조절효과(불법정보유출)> | 89 |
| <표 75 친구지지의 조절효과(도박문제)> | 89 |
| <표 76 가족지지의 조절효과(게임중독)> | 90 |
| <표 77 가족지지의 조절효과(채팅언어폭력)> | 90 |
| <표 78 가족지지의 조절효과(사이버사기)> | 91 |
| <표 79 가족지지의 조절효과(성적일탈)> | 91 |
| <표 80 가족지지의 조절효과(불법정보유출)> | 92 |
| <표 81 가족지지의 조절효과(도박문제)> | 92 |
| <표 82 교사지지의 조절효과(게임중독)> | 93 |
| <표 83 교사지지의 조절효과(채팅언어폭력)> | 93 |
| <표 84 교사지지의 조절효과(사이버사기)> | 94 |
| <표 85 교사지지의 조절효과(성적일탈)> | 94 |
| <표 86 교사지지의 조절효과(불법정보유출)> | 95 |
| <표 87 교사지지의 조절효과(도박문제)> | 95 |
| <표 88 지역사회지지의 조절효과(게임중독)> | 96 |
| <표 89 지역사회지지의 조절효과(채팅언어폭력)> | 96 |
| <표 90 지역사회지지의 조절효과(사이버사기)> | 97 |
| <표 91 지역사회지지의 조절효과(성적일탈)> | 97 |

| | |
|------------------------------------|-----|
| <표 92 지역사회지지의 조절효과(불법정보유출)> | 98 |
| <표 93 지역사회지지의 조절효과(도박문제)> | 98 |
| <표 94 지역사회지지의 조절효과(사이버일탈행동)> | 99 |
| <표 95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게임중독)> | 99 |
| <표 96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채팅언어폭력)> | 100 |
| <표 97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사이버사기)> | 100 |
| <표 98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성적일탈)> | 101 |
| <표 99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불법정보유출)> | 101 |
| <표 100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도박문제)> | 102 |

2017년 충청남도 청소년 스마트폰 사용 실태조사

I. 서론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정보화 시대의 세계적 흐름에 발맞추어 우리나라도 급격한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 많은 변화 중 하나가 다양한 통신매체의 사용이며, 오늘날 우리사회에서 스마트폰은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필수품이 되었다. 특히, 청소년들은 눈을 뜨자마자 스마트폰으로 '카카오 톡'이나 '페이스 북'을 살피고, 자기 전에도 스마트폰을 확인하고 자는 것이 일상생활이 되어버려 화장실 갈 때도, 길을 걸거나 신호대기 중에도 만지작거리게 된다.

스마트폰의 출현은 스마트사회와 스마트 라이프라는 새로운 사회구조와 삶의 양식을 만들고 있다. '내 손안의 작은 컴퓨터'라고 부르는 스마트폰의 탄생은 이미 우리 생활의 일부가 되어 많은 분야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스마트폰은 휴대전화와 정보검색, 카메라 그리고 게임 등 다양한 멀티미디어 기능을 애플리케이션의 형태로 제공하는 매체이다. 스마트폰의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인터넷 검색의 이용 및 정보공유 활용이 증가해 일상생활의 편리함을 누리게 되었다. 하지만, 과도한 스마트폰의 과다사용 및 스마트폰 중독 형태를 더욱 가속화 시키는 원인으로 볼 수 있다.(김병년, 2013). 이와 같은 스마트폰 사용의 일반화는 우리사회의 다양한 분야에서 긍정적 기능을 제공하고 있지만 일부에서는 스마트폰 사용으로 인한 스마트폰중독의 심각한 폐해가 발생하고 있다(이창호, 2014).

특히, 발달단계상 정체성이 확립되지 않고 불안정한 시기에 속해 있는 청소년들은 또래친구와 특정 인물들의 스마트폰 과다사용에 많은 영향을 받게 된다. 청소년들은 또래 집단에서 소외감을 느끼지 않기 위해서 의사소통 기기의 하나인 스마트폰에 대한 의존성이 높아지게 됨으로써 많은 청소년들이 스마트폰중독에 빠질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스마트폰중독에 노출된 청소년들의 특성을 살펴보면 대인관계를 사이버공간에 의존하게 되면서 현실에서 친구관계가 유지되기 어렵고, 학업능률 저하와 학습동기 약화로 인한 학업곤란을 겪게 된다.(박영신, 김의철, 탁수연, 2011) 또 문제를 해결하거나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실재적인 대안을 생각하기 보다는 문제에서 도피하고자 하는 특징이 있다. 또한, 스마트폰 중독과 관련된 부정적 영향으로 폭력적 게임, 음란물노출, 인터넷 신조어로 인한 언어파괴, 사이버 왕따로 인한 학교폭력 문제의 심각성과 (탁수연, 박영신, 김의철, 2007a) 사이버 도박문제도 수면위로 올라오며 새로운 사회적 문제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최근 3년간 불법 사이버도박으로 피해를 입은 청소년들이 급증한 것을 알 수 있다. 더 큰 문제는 청소년들이 도박 자금 마련하기 위해 절도, 시기 등의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는 점이다.(아이뉴스24뉴스, 2017)

인터넷 중독 실태조사 보고서(한국인터넷진흥원, 2015)에 따르면 게임 등 스마트폰을 통한 각종 서비스에 중독되는 현상은 10대 청소년과 20대 젊은 층에게 더욱 치명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난다. 청소년의 스마트폰중독 특성으로 '스마트폰 사용이 공부에 방해 된다' 53.4%, '스마트폰 사용에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이 습관화되었다'에 51.7%, '스마트폰을 그만 해야지라고 생각하면서도 계속 한다'에 51.6%, '스마트폰이 없으면 불안하다'에 49.6%, '수시

로 스마트폰을 사용하다가 지적을 받은 적이 있다'에 48.4%로 응답하여 심각성을 나타내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2016)의 사이버폭력 실태조사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스마트폰을 이용한 인터넷·SNS중독에 따른 사이버 폭력 실태가 심화되고 있다. 미래창조과학부, 한국정보화진흥원(2016)의 스마트폰, 인터넷 과의존 이용실태조사보고서에 의하면, 한국 청소년 중독위험군은 2011년부터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고 스마트폰중독위험군의 비율 역시 2014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청소년들의 스마트폰 이용이 과거 컴퓨터를 통한 인터넷의 이용을 대체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며 휴대의 간편함과 다양한 분야에 대한 이용의 집약성으로 인해 과거 여러 곳으로 분산되었던 활동이 스마트폰에 더욱 더 집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많은 청소년들이 스마트폰을 사용하게 되면서 스마트폰 과다사용으로 인한 다양하고 심각한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으며, 청소년들도 사람들과 소통하고 사회적 관계를 맺기 위해 SNS를 많이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정체성이 확립되지 않고 불안정한 시기의 청소년의 경우 SNS를 통하여 범죄에 이용되는 경우가 증가되고 있다. 여자 청소년의 경우 스마트폰을 통하여 소통과 관계 맺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게 되면서 현실에서의 대인관계보다 SNS를 통한 피상적인 대상관계에 의존하게 되면서 범죄에 이용되는 위험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여자청소년의 스마트폰 사용량보다 SNS상의 소통의 질을 살펴 볼 필요가 있다. SNS를 통한 이성교제 등이 건강한 방식이 아닌 현실감 없는 피상적인 관계로 이어지며, 성적인 비행수단이 되기도 한다. 하지만 부모가 자녀의 SNS상의 소통의 질과 내용에 대해서는 자세히 알지 못하는 관계로 문제 발생 이후에 상황을 파악하게 되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이처럼 스마트폰은 청소년들에게 필수품이 되었다고 볼 수 있지만, 스마트폰으로 인한 다양한 분야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문제들이 드러나고 있다. 스마트폰 과다사용으로 인한 가족과의 불화, 학업동기 약화, 사이버 학교폭력, 사이버 일탈행동, 건강문제 등이 청소년 문제를 넘어 사회적 문제로 다가오고 있다. 충남 청소년들의 스마트폰 사용실태 조사를 통한 충남 청소년 스마트폰 사용 실태파악이 필요하며, 스마트폰 사용과 관련하여 청소년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에 대하여 알아 볼 필요가 있다. 또한 현재 어려움에 처한 청소년들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할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충남 청소년 스마트폰 실태 살펴보고, 스마트폰 중독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청소년 정신병리, 사이버일탈행동과의 관계, 청소년이 지각하는 사회적지지와 스마트폰 중독정도의 조절효과 분석을 통한 스마트폰 과다사용 예방 프로그램 개발 및 충남 건전 미디어 사용 환경 조성을 위한 치료적 지원방향을 세우는 기초적인 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2. 연구문제

본 연구는 중남 초(5~6학년), 중학생 및 고등학생의 스마트폰 사용실태와 중독정도별로 분석하여 청소년 정신병리 및 사이버일탈행동이 스마트폰 중독 정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를 탐색하고자 한다.

연구문제 1 : 청소년 정신병리, 사이버 일탈행동 및 사회적지지는 스마트폰 중독과 상호 관련성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2 : 청소년 정신병리(우울, 불안, 충동성, 공격성)가 스마트폰 중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사회적지지(친구, 부모, 교사, 지역사회)의 조절효과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3 : 사이버 일탈행동(게임중독, 채팅언어폭력, 사이버사기, 성적일탈, 불법정보유출, 도박문제)이 스마트폰 중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사회적지지(친구, 부모, 교사, 지역사회)의 조절효과는 어떠한가?

3. 이론적 배경

1) 청소년과 스마트폰

미래창조과학부, 한국정보화진흥원(2016)에 의하면 2015년 스마트폰 사용실태는 만3~59세 스마트폰 이용자 중 2.4%는 고위험 사용자이며, 13.8%는 잠재적 위험사용자로 조사되었다. 인터넷 사용실태는 만3~59세 인터넷 이용자중 1.2%는 고위험 사용자군, 잠재적 위험사용자군은 5.6%로 조사되었다. 스마트폰 사용 역기능 현상으로 스마트폰 이용자 71.0%는 스마트폰 사용으로 인한 신체적 불편함을 겪었으며, 수면장애, 안구건조증, 목, 손목, 허리통증 순으로 나타났다. 스마트폰 사용자 중 65.9% 이상이 스마트폰, 인터넷 사용으로 분노, 짜증, 불안, 우울로 심리적 불편함을 겪으며, 스마트폰 사용으로 인해 스트레스가 쌓이고 삶의 질이 이전보다 훨씬 더 나빠졌다. 전반적으로 인터넷에서 스마트폰으로 옮겨가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스마트폰은 무선통신망과 LTE를 통해 언제, 어디서나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도록 하며, SNS, 게임, 음악감상, 사진, 네비게이션 등 다양한 애플리케이션을 시공간의 제약 없이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스마트폰 보급 확산 추세는 새로운 미디어 기기에 관심이 많은 청소년들에게도 예외일 수 없다. 청소년들에게도 스마트폰은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의사소통이 핵심적 매체로 급부상하게 된 것이다.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2013)

그러나 스마트폰이 가져다 주는 일상생활의 다양한 기능의 활용과 편리성, 효율성에도 불구하고 스마트폰을 과도하게 이용함으로써 나타나는 여러 가지 부정적인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다. 폭력적 게임, 음란물과 같은 유해사이트 및 콘텐츠에 청소년들이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거나, 장시간 사용으로 인한 건강문제, 가정과 학교에서 구성원들과의 갈등 등과 같은 신체적·정신적·사회환경적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2013)

2015년 스마트폰 과의존 조사에 의하면 청소년층의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은 31.6%로, 다른 계층에 비해 스마트폰 과사용 문제의 가장 위험 한 계층에 속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청소년 위험군 비율은 전년 대비 2.4%가 상승하였으며, 성인(13.5%)보다 2.3배 높았다. 매년 청소년의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 비율은 상승하고 있다.

스마트폰 중독 위험사용자군은 일반사용자군에 비하여 재미있음과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습관적으로 스마트폰을 하며, 시간을 때우기 위해 스마트폰을 한다고 인식하는 연구결과들이 있다. Griffiths(1995)는 중독의 핵심적인 특성으로 집착, 의존성, 기분의 변화, 내성, 금단, 갈등, 재발 등으로 정의하였으며, 중독 행동은 시대의 변화에 따라 다양하게 변형된다고 하였다. 손현경, 안숙희, 이해정(2006)의 연구에서는 휴대폰 중독집단이 자기개념이 낮고, 또래와의 애착관계에서 의존적이고, 충동성이 높고, 자기 통제력이 낮은 경향을 보인다고 밝혔다. 양심영(2002)은 우울하고 충동성이 높은 청소년의 경우 스마트폰을 중독적으로 사용하고 도덕적 이탈과 자기효능감이 청소년의 일탈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임은 여러 연구들에서 확인되어 왔다. 탁수연, 박영신과 김의철(2007b)은 인터넷을 통한 온라인 게임이나 음란물접촉, 인터넷 중독의 증가 현상 등은 청소년의 사이버일탈행동과 관련 되어있으며, 온라인 게임에 몰두하는 시간이 많을수록, 채팅을 하는 시간이 길수록, 청소년들이 사이버일탈행동에 개입하는 정도가 높다고 하였다.

2) 스마트폰과 청소년 정신건강

청소년들은 발달적 특성상 급격한 신체적, 정신적 변화를 겪고, 정체감의 위기를 느끼는 시기이며, 성인에 비해 자기 통제력이 약하기 때문에 쉽게 스마트폰 중독 등에 노출되는 경향이 있다. (황상민, 2001; 정여주, 2004; 김미숙, 2011.) 이렇듯 청소년들은 정서적으로 쉽게 예민하고, 신체적 문제뿐 아니라 정신적 건강문제에 쉽게 노출되게 한다(조아미, 2000). 우리나라의 과열된 입시 환경 속에 노출된 청소년들은 쉽게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정신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특히, 오늘날 청소년들에게 적당하고 충분한 문화생활 및 여가활동의 기회가 제한되어 있어 우리 사회의 상황에서 매우 흥미롭고 다양한 세계를 제공해 주는 사이버 공간은 청소년들에게 매우 매력적인 활동과 놀이의 장이 될 수 있으며, 실제로 청소년들의 가치관, 의식구조 및 생활전반에 걸쳐 직접 및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사이버 세계가 청소년을 끌어들이는 강력한 유인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동시에 생활 전반에 걸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은 인터넷, 스마트폰에 몰입하게 되는 현상과 이와 관련하여 파생되는 문제들이 다양하게 등장하고 있는 추세이다.

강민주, 신은경과 김소아(2015)는 인터넷중독, 사이버일탈행동 등 인터넷의 부작용이 우울, 충동성, 비행 및 스트레스 등의 문제 행동과 관련이 있다고 검증 하였다. 스마트폰중독의 특징은 스마트폰 사용으로 인해 현실에 지장을 줄 수 있으며, 불안과 상실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외로움과 수줍음이 많을수록 중독될 가능성이 높다(정서림, 유형근, 남순임, 2014). 강민주, 신은경과 김소아(2015)는 성장단계에 있는 청소년들의 경우 정신적, 정서적 발달과 함께 정체성 확립에 장애를 초래하는 등 인터넷 및 스마트폰의 중독적 사용으로 인하여 성인들보다 큰 후유증을 앓게 될 위험소지가 높아진다고 확인하였다. 인터넷 중독자 중 54%가 우울증의 경력을 가지고 있다. 정신적 병리증상으로 휴대폰중독(송은주, 2006)이나 인터넷 중독(김종운, 2008)이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 연구결과에 의해 검증되었으며, 스마트폰중독 역시 정신건강과 상관관계가 있음을 선행연구(고충숙, 2012)를 통하여 알 수 있다. 고충숙(2012)의 연구에서는 스마트폰 사용수준이 높은 학생이 우울, 불안, 충동성, 공격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충동성이 가장 높은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이해경(2008)은 우울이 휴대폰 중독적 사용의 가장 중요한 변인이라고 보고 하였으며, 휴대전화 벨이나 진동소리가 휴대폰을 지니고 있지 않을 때 나타나는 불안감이 학업이나 업무에 방해가 되며 집중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하였다. 한주리와 허경호(2004)는 휴대폰을 과도하게 사용하는 청소년의 중독 집단이 비 중독 청소년에 비해 자아존중감과 우울감, 충동성이 더 높은 것으로 밝히고 있다. 이렇듯 우울, 불안, 충동성, 공격성과 같은 정신건강의 문제는 청소년 스마트폰 중독 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이혜순, 2014, 윤재연, 2011, 김현철, 2007). 스마트폰 사용 수준이 높을수록 우울, 불안, 충동, 공격성이 증가하였으며, 스마트폰을 중독적으로 사용할수록 우울함과 불안감이 증가하고, 심리적, 신체적, 사회적으로 불편감과 불안정감을 느끼는 등의 사회적 위축을 느끼게 된다.(신호경, 2011)는 연구결과와 스마트폰의 소셜미디어(SNS)의 과도한 습관적 사용이 불안, 억압 등의 심리적인 문제를 가중시킬 뿐만 아니라 신체적 건강에도 안 좋은 영향을 준다(Rosen, 2011).

3) 스마트폰과 청소년 사이버일탈행동

사이버 공간은 인터넷이나 PC통신 등을 통해 네트워크로 연결된 가상의 공간을 말한다. (오승희·최진식, 2005). 인터넷을 중심으로 형성되고 있는 사이버 공간의 출현은 인간의 활동양식, 생활문화, 사고방식 및 가치관을 변화시키는 환경으로서 기존의 매체보다 더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되었다(조영승, 1999). 이제 사이버 공간은 단순한 정보검색의 차원을 넘어, 게임이나 음악·영화감상 등의 취미활동과 쇼핑, 온라인뱅킹, 그리고 메신저를 통한 대화와 토론, SNS(Social Network Service)를 통한 인간관계의 확장 등 많은 영역에서 우리 생활에 필수 불가결한 존재가 된 것이다.

청소년들도 사이버 상에서 새로운 친구를 사귀고, 취미활동을 하며, 대인관계를 넓힐 수 있다. 또한 청소년들에게 있어서 다양한 여가활동과 오락, 인간관계 및 교제, 그리고 상대방과의 대화와 토론 등의 기회와 학교, 가정, 친구에 대한 압박감을 해소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준다.(조남근·양돈규,2001) 이렇게 사이버 공간은 청소년들의 스트레스와 정서적 압박감을 해소시켜 줄 수 있으며, 건전한 사이버 공간의 활용을 통해 청소년들의 새로운 문화를 창출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된다. 그러나 이러한 중요성과 편리성에도 불구하고 인터넷의 급속한 확산으로 인한 역기능이 중요한 사회문제로 나타나고 있다. 사이버 공간은 자신의 정체를 노출시키지 않고 행동할 수 있으며, 그렇기 때문에 아무런 죄의식 없이 사생활 침해나 무분별한 정보유통, 게임 중독 및 인터넷 중독, 인터넷 도박 등 사이버 상에서 일탈 행위가 빈번하게 일어날 수 있다(이해경,2001). 청소년기는 다른 시기에 비해 예민하고 호기심이 강하며, 신체적 발달에 비해 정신적으로 성숙하지 못하고 감정통제가 부족하여 충동적이고 가상공간에 난무하는 각종유해 정보 및 자극들로부터 영향을 받기 쉽다.(김문조,2001). 또한 청소년들이 사이버 상에서 행하는 비행행위를 보면 자기가 하고 있는 행위가 범법행위라는 것조차 모르고 있다는 것이 심각한 문제이다(탁수연·박영신·김의철,2007).

청소년들은 심리적 통제를 많이 받는다고 생각 할수록 인터넷 비행을 많이 하였으며(김희화, 2003), 남학생의 경우 스트레스가 사이버 비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여학생은 스트레스가 자아존중감과 자기 통제력을 통해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쳤다(홍영수·김동기,2011). 또한 충동성과 감각추구 성향이 높을수록(김예성·김세원,2008;김진희 외,2003;양돈규,2000;이경님 외,2004), 도덕적으로 이탈된 청소년일수록(노승현 외,2011;박영신 외,2011), 공격성이 높고 자아통제력이 낮을수록(전동일 외,2008), 정보통신 윤리의식이 낮을수록(김수정,2004) 사이버 비행률이 높았다. 가정은 청소년의 비행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연구되고 있는데, 김상원(2007)의 연구에 의하면 청소년의 경우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사이버 비행 가능성이 낮게 나타났다. 가정에서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부모와의 관계를 들 수 있는데, 부모와의 관계가 긍정적일수록(김희화,2003;박영신 외,2007;손진희 외,2007;한종욱,2001), 가정의 화목도가 높을수록(한종욱,2001) 사이버 비행을 덜 저지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친구의 따돌림은 관계효능감을 약화시키고, 도덕적 이탈을 증가시킴으로서 사이버 일탈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박영신 외,2007;박영신 외,2011). 가정과 친구만큼이나 청소년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학교가 있는데, 선생님과의 애착이 강할수록 청소년의 일탈수준은 낮아지며 (김상원,2007;김영희·박영신·김의철,2004), 선생님이 자신에게 무관심하다고 지각할수록(성운숙,2004), 선생님의 지지가 낮을수록 사이버 비행을 행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4) 스마트폰과 청소년이 지각하는 사회적지지

사회적지지(Social Support)에 대한 정의는 다양하다. 중요한 타인으로부터 받는 애정, 수용 및 관심 등의 모든 긍정적 자원을 의미한다. (한미현외1996; Cohen & Hoberman,1983; Dubow &Tisak,1989;Thoits,1982). Cobb(1976)는 사회적 지지를 한 개인이 자신이 보살핌을 받고 사랑 받는다고 믿게 하고, 존중받고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믿게 하는 의사소통이나 상호 의무적 네트워크에 속하여 있다고 믿게 하는 정보로 정의하였다. 김지혜(1998)는 사회적지지를 다양한 자원으로부터 개인에게 제공되는 사회적인 행위 또는 태도로 정의하였으며, 사회적지지를 통해 개인의 기능이 강화하고 대인관계를 향상시키는 의도를 갖는다고 하였다.

사람들은 타인과의 친밀한 관계를 바라며 특히 부모, 친구, 그리고 가까운 주변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 다양한 문제들을 극복해 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양돈규·임영식1998). 청소년기의 사회적지지는 청소년에게 물질적·정서적으로 필요한 자원과 서비스를 제공하여 심리적 적응을 돕고 실패를 극복하게 하며 문제해결능력을 강화시키고, 다양한 변화와 스트레스를 극복하는데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남영옥·이상준2008). 또한 사회적지지는 청소년의 심리적·신체적 적응에 도움이 되며 안정적 대인관계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윤선오·박명호·권장수2010). 아동과 청소년을 위한 사회적지지 체계는 이들의 반사회적 행동을 억제하고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행동을 증진시키는 기능을 하며(Kahne& Bailey,1999), 스트레스 극복에도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Dubow,etal.,1989). 또한 친구로부터 정서적 지지를 받지 못한 청소년들이 사이버일탈행동에 더 많이 가담한다는 연구결과도 있다.(탁수연외 2007). 비행친구가 많고, 그러한 친구들에게 지지를 받은 청소년들이 비행을 할 가능성이 많아지게 되는 것이다. 청소년기에는 다른 어떤 시기보다 학교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지는데 학교에서의 관계에서 친구만큼 영향력이 있는 지지원은 바로 교사이다. 실제로 교사와의 친밀한 상호작용은 아동과 청소년의 스트레스를 완충하고 보호하는 역할을 하며(Dumont&Provost,1999), 청소년기의 비행 및 우울발생의 억제와 관련이 있고, 특히 가족으로부터의 사회적지지가 적거나 부적절할 때 학교나 교사는 비행방지에 중요한 기능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Santrock,1996). 또한 Dubois(1992)의 연구에서는 높은 교사지지를 받은 청소년들은 심리적 우울을 가장 적게 느꼈고 낮은 가족지지를 받은 청소년에게 교사의 긍정적인 지지가 보상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스마트폰 사용의 경우 부모의 지지가 높을수록 스마트폰 의존도가 낮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최정아, 2014). 인터넷 중독의 경우에는 사회적지지가 낮을수록 중독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박소영, 2014) 김정민(2013)의 연구에 따르면 부모의 지지가 청소년 인터넷 과몰입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며, 교사지지와 친구지지는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지지수준이 높을수록 인터넷 중독에 빠질 가능성이 낮으며, 인터넷 관련 비행을 범할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남근, 양돈규, 2000)

2017년 충청남도 청소년 스마트폰 사용 실태조사

II. 연구방법

Ⅱ.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충청남도 초, 중, 고등학교 및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청소년을 대상으로 2017년 9월부터 10월까지 실시하였다. 각 기관의 담당자에게 설문지에 대한 안내사항에 대해 구두 및 자료로 안내하였다. 배부한 설문지 3,200부 중 회수한 3,043부가 분석에 사용되었다.

2. 측정도구

1) 일반적인 특성

연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을 성별, 연령, 소속기관, 거주지역, 가족형태, 가정경제수준, 외부 경제지원, 내부 물질적/정서적지원, 청소년전화 1388인지유무/이용유무,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인지유무/이용유무로 구성하였다.

2) 스마트폰 사용

연구대상자의 스마트폰 사용여부, 스마트폰 사용시기, 스마트폰 사용시간, 스마트폰 사용기능, 스마트폰 사용시간대, 취침시간, 스마트폰 의존정도, 가족원 스마트폰 사용여부 등 스마트폰 사용 일반질문 17문항으로 구성하였다.

3) 스마트폰 중독 척도 (Smartphone Addiction Proneness Scale)

한국정보화진흥원(2011)에서 개발한 청소년 자가진단 스마트폰 중독척도를 사용한다. 스마트폰 중독 척도는 일상생활장애, 금단, 내성, 가상세계지향성의 4개의 하위요인, 15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아주 많이 그렇다'까지 Likert 4점 척도로 자신이 그 정도를 표기하게 하였다. 점수가 45점 이상이면 스마트폰 사용으로 인하여 일상생활에 심각한 장애와 내성, 금단 형성이 나타나는 고위험 사용자군, 42점~44점이면 고위험군에 비해서 경미하지만, 스마트폰 사용시간이 늘어나고 일상생활장애, 금단, 내성 중 한 가지라도 해당되는 경우 잠재적 위험 사용자군, 41점 이하이면 일상생활에 장애도 없고, 금단이나 내성을 겪지 않는 스마트폰 중독에 아무 문제가 없다고 보는 일반 사용자군으로 구분하였다.

4) 사이버일탈행동 척도

사이버 일탈행동을 측정하기 위하여 박영신과 김의철(2007)이 개발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게임중독, 채팅언어폭력, 사이버사기, 성적일탈, 불법 정보유출의 5가지 하위영역에 청소년 사이버도박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피해나 폐해를 중심으로 청소년들의 도박문제를 측정하기 위해 Trembay, Stinchfield, Wiebe 및 Wynne(2010)이 개발한 청소년 도박문제 별 검사 중에서 4문항을 선별하여 도박문제 하위유형으로 포함하여 사이버일탈행동을 측정하기 위하여 6개 하위영역 게임중독, 채팅언어폭력, 사이버사기, 성적일탈, 불법정보유출, 도박문제 총34문항으로 구성하였다.

5) 정신병리

정신병리 하위변인으로서 불안, 우울, 충동성 및 공격성으로 구성되었다. 불안 8문항, 우울 8문항, 충동성 8문항, 공격성 8문항으로 총32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전혀 그렇지않다'(1점), '그렇지 않다'(2점), '보통이다'(3점), '그렇다'(4점), '매우그렇다'(5점)의 5점 Likert 척도로 구성되었다. 한국정보화진흥원(2011c)에서 제작한 인터넷중독 공존병리척도(청소년용)를 측정도구로 사용하였다.

6) 사회적 지지척도

청소년의 사회적지지 지각정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Dubow와 Ulman(1989)이 사회적지지 지각 측정을 위해 개발한 SSAS(the Social Support Appraisal Scale)와 국내의 척도들을 토대로, 한미현(1996)이 문항분석과 신뢰도 검증절차를 통해 구성한 사회적지지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지지원에 따라 가족지지, 친구지지, 교사지지 3가지 영역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하위유형별로 8문항씩 구성되어 있다. 여기에 지역사회지지 문항 3문항을 추가하여 총 27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그렇지 않다'(2점), '보통이다'(3점), '그렇다'(4점), '매우그렇다'(5점)의 5점 Likert 척도로 응답하게 된다.

측정도구의 신뢰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내적일관성지수(Cronbach's α)를 산출하였다. 각 측정도구의 문항구성과 Cronbach's α 값은 다음과 같다.

<표1 문항별 신뢰도 분석>

| 변인 | 하위요인 | 문항 수 | Cronbach's α |
|---------|---------|------|---------------------|
| 정신병리 | 불안 | 8 | .931 |
| | 우울 | 8 | .916 |
| | 충동성 | 8 | .884 |
| | 공격성 | 8 | .915 |
| | 게임중독 | 6 | .845 |
| 사이버일탈행동 | 채팅언어폭력 | 6 | .888 |
| | 사이버사기 | 6 | .875 |
| | 성적일탈 | 6 | .893 |
| | 불법정보유출 | 6 | .878 |
| | 도박문제 | 4 | .909 |
| | 전체 | 34 | .968 |
| 사회적 지지 | 친구지지 | 8 | .931 |
| | 가족지지 | 8 | .935 |
| | 교사지지 | 8 | .878 |
| | 지역사회지지 | 3 | .617 |
| | 전체 | 27 | .931 |
| 스마트폰 중독 | 일상생활적응 | 5 | .706 |
| | 가상세계지향성 | 2 | .648 |
| | 금단 | 4 | .770 |
| | 내성 | 4 | .667 |
| | 전체 | 15 | .879 |

3.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는 충청남도 15개 시·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학교밖 지원센터 꿈드림, 15개 시·군 초·중·고등학생 등 청소년의 정신병리 및 사이버일탈행동이 스마트폰 중독정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사회적지지의 조절효과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를 분석하기 위해서 SPSS 21.0을 사용하였다. 연구대상의 특성별 분포를 확인하기 위하여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인구통계학적 변인과 스마트폰 사용 실태의 관련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교차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인구통계학적 변인에 따른 스마트폰 사용 만족도를 비교하기 위하여 평균비교(t-검증 및 F 검증)를 실시하였다.

인구통계학적 변인과 스마트폰 사용 유무 및 스마트폰 중독 정도에 따른 정신병리, 사이버일탈행동 및 사회적지지 수준을 비교하기 위하여 평균비교(t-검증 및 F 검증)를 실시하였다. 청소년 정신병리, 사이버일탈행동 사회적지지의 관계를 파악하고, 청소년 정신병리와 사이버일탈행동이 스마트폰 중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사회적 지지의 조절 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2017년 충청남도 청소년 스마트폰 사용 실태조사

Ⅲ. 연구결과

Ⅲ. 연구결과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1) 성별/연령/소속기관

조사대상자 중 남자는 50.4%, 여자는 49.2%로 성비가 유사하였다. 조사대상자의 연령은 17세가 19.0%, 18세가 14.9%, 13세가 14.3%, 16세가 12.2%, 14세가 11.5% 등의 순이었다. 조사대상자의 소속기관은 중학교가 31.8%로 가장 많았고, 인문계 고등학교가 29.6%, 초등학교가 25.0% 등의 순이었다.

<표 2 일반 특성별 분포>

| 특성 | 범주 | 빈도 | 퍼센트 |
|------|---------------|------|--------|
| 성별 | 남자 | 1524 | 50.1% |
| | 여자 | 1497 | 49.2% |
| | 무응답 | 22 | .7% |
| 연령 | 12세 | 341 | 11.2% |
| | 13세 | 434 | 14.3% |
| | 14세 | 350 | 11.5% |
| | 15세 | 295 | 9.7% |
| | 16세 | 372 | 12.2% |
| | 17세 | 579 | 19.0% |
| | 18세 | 453 | 14.9% |
| | 19세 이상 | 210 | 6.9% |
| | 무응답 | 9 | .3% |
| 소속기관 | 초등학교 | 760 | 25.0% |
| | 중학교 | 969 | 31.8% |
| | 인문계 고등학교 | 900 | 29.6% |
| | 전문계(실업계) 고등학교 | 263 | 8.6% |
| | 학교에 다니고 있지 않음 | 135 | 4.4% |
| | 무응답 | 16 | .5% |
| 합 계 | | 3043 | 100.0% |

2) 지역

조사대상자의 지역은 천안시가 29.0%로 가장 많았으며, 아산시가 13.3%, 서산시가 8.3%, 당진시가 8.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3 지역분포>

| 특성 | 범주 | 빈도 | 퍼센트 |
|----|-----|------|--------|
| 지역 | 천안시 | 881 | 29.0% |
| | 공주시 | 169 | 5.6% |
| | 보령시 | 165 | 5.4% |
| | 아산시 | 405 | 13.3% |
| | 서산시 | 252 | 8.3% |
| | 논산시 | 144 | 4.7% |
| | 계룡시 | 96 | 3.2% |
| | 당진시 | 250 | 8.2% |
| | 금산군 | 97 | 3.2% |
| | 부여군 | 72 | 2.4% |
| | 서천군 | 95 | 3.1% |
| | 청양군 | 96 | 3.2% |
| | 홍성군 | 125 | 4.1% |
| | 예산군 | 90 | 3.0% |
| | 태안군 | 100 | 3.3% |
| | 무응답 | 6 | .2% |
| | 합 계 | 3043 | 100.0% |

3) 가족형태

친아버지, 친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다는 응답이 약 31.6%와 32.9%로 나타났으며, 다중응답임을 고려할 때, 대부분의 조사대상자들은 친아버지, 친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4 가족형태별 분포(다중응답)>

| 가족형태 | 빈도 | 퍼센트 |
|---------------------------|------|--------|
| 친아버지 | 2574 | 31.6% |
| 친어머니 | 2679 | 32.9% |
| 새아버지 | 49 | 0.6% |
| 새어머니 | 37 | 0.5% |
| (외)할머니나 (외)할아버지 | 366 | 4.5% |
| 친척 | 52 | 0.6% |
| 형제자매 | 2293 | 28.2% |
| 친구 또는 선후배 | 45 | 0.6% |
| 청소년보호자(쉼터, 그룹홈, 일시보호시설 등) | 15 | 0.2% |
| 혼자 살고 있다 | 22 | 0.3% |
| 기타 | 13 | 0.2% |
| 합 계 | 8145 | 100.0% |

4) 경제수준

조사대상자의 경제수준은 보통이라는 응답이 67.7%로 가장 많았고, '잘 사는 편이다'가 20.9%, '어려운 편이다'가 6.1%, '매우 잘사는 편이다'가 3.9%, '매우 어려운 편이다'가 1.0%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5 경제수준 분포>

| 경제수준 | 빈도 | 퍼센트 |
|------------|------|--------|
| 매우 어려운 편이다 | 30 | 1.0% |
| 어려운 편이다 | 186 | 6.1% |
| 보통이다 | 2060 | 67.7% |
| 잘사는 편이다 | 635 | 20.9% |
| 매우 잘사는 편이다 | 119 | 3.9% |
| 무응답 | 13 | .4% |
| 합 계 | 3043 | 100.0% |

5) 국가나 단체에 의한 경제적 지원

국가나 단체에 의한 경제적 지원을 받고 있는지에 대한 응답은 없다는 응답이 49.3%로 가장 많았고, 모르겠다는 응답이 37.8%, 국가나 단체에 의한 경제적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급식비 지원이 6.3%로 가장 많았고, 기초생계비지원과 의료비지원이 각각 3.0%와 2.2%로 나타났다.

<표 6 국가나 단체에 의한 경제적 지원 분포(다중응답)>

| 국가나 단체에 의한 경제적 지원 | 빈도 | 퍼센트 |
|--|------|--------|
| 없다 | 1534 | 49.3% |
| 기초생계비지원 | 92 | 3.0% |
| 의료비지원 | 67 | 2.2% |
| 급식비지원 | 196 | 6.3% |
| 긴급복지지원(가장의 사망, 질병 등의 위급한 상황에서 지원받는 경우) | 22 | 0.7% |
| 기타 | 25 | 0.8% |
| 모르겠다 | 1175 | 37.8% |
| 합 계 | 3111 | 100.0% |

6) 물질적 지원/정서적 지원

부모로부터 물질적/정서적 지원을 받고 있는지에 대한 응답은 물질적 지원에 대해서는 충분히 받고 있다는 응답이 45.1%, 보통이라는 응답이 25.2%, 받고 있는 편이라는 응답이 20.2%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정서적 지원에 대해서는 충분히 받고 있다는 응답이 37.9%, 보통이라는 응답이 31.3%, 받고 있는 편이라는 응답이 20.2%로 나타나 대부분의 조사대상자들은 부모로부터 물질적/정서적 지원은 보통수준 이상으로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7 물질적/정서적 지원 분포>

| 내용 | 범주 | 빈도 | 퍼센트 |
|--------|--------------|------|--------|
| 물질적 지원 | 전혀 받지 못하고 있다 | 104 | 3.4% |
| | 부족하다 | 173 | 5.7% |
| | 보통이다 | 767 | 25.2% |
| | 받고 있는 편이다 | 614 | 20.2% |
| | 충분히 받고 있다 | 1373 | 45.1% |
| | 무응답 | 12 | .4% |
| 정서적 지원 | 전혀 받지 못하고 있다 | 118 | 3.9% |
| | 부족하다 | 186 | 6.1% |
| | 보통이다 | 952 | 31.3% |
| | 받고 있는 편이다 | 616 | 20.2% |
| | 충분히 받고 있다 | 1154 | 37.9% |
| | 무응답 | 17 | .6% |
| 합 계 | | 3043 | 100.0% |

7) 청소년전화 1388/청소년상담복지센터 인지 및 이용경험 여부

청소년전화 1388을 알고 있는 조사대상자는 65.0%이었으나, 이용한 경험이 있는 조사대상자는 5.7%에 불과하였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대해 알고 있는 조사대상자는 63.9%이었고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상담을 받아본 경험이 있는 조사대상자는 10.1%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8 청소년전화 1388/청소년상담복지센터 인지 및 이용경험 여부>

| 내용 | 범주 | 빈도 | 퍼센트 |
|---------------------|-----|------|--------|
| 헬프콜 청소년전화 1388 인지여부 | 예 | 1978 | 65.0% |
| | 아니오 | 1056 | 34.7% |
| | 무응답 | 9 | .3% |
| 헬프콜 청소년전화 1388 이용경험 | 예 | 174 | 5.7% |
| | 아니오 | 2859 | 94.0% |
| | 무응답 | 10 | .3% |
|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인지여부 | 예 | 1939 | 63.7% |
| | 아니오 | 1098 | 36.1% |
| | 무응답 | 6 | .2% |
|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이용경험 | 예 | 308 | 10.1% |
| | 아니오 | 2727 | 89.6% |
| | 무응답 | 8 | .3% |
| 합 계 | | 3043 | 100.0% |

2. 연구대상자 인구학적 특성별 분석

1) 청소년 스마트폰 사용

(1) 청소년의 스마트폰 사용에 대한 전반적 특성

조사 대상자 중 93.7%는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초등학교 4-5학년에 사용하기 시작했다는 응답이 38.0%로 가장 많았고 초등학교 1-3학년이 28.7%, 중학교 1-3학년이 21.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스마트폰 사용시간은 1시간-3시간 미만 36.2%, 3시간-5시간 미만이 24.9%로 대부분이었다. 스마트폰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기능은 SNS가 26.0%로 가장 많았고, 음악 및 동영상 감상이 25.2%, 게임이 17.6%, 전화 및 문자가 16.4% 등의 순으로 많았다. 스마트폰 사용시간대는 저녁시간이 31.5%로 가장 많았고, 방과후 오후가 26.6%, 밤(10시-12시)이 20.3% 순으로 나타났다. 취침시간은 밤 10시-12시가 47.1%로 가장 많았고, 밤 12시-2시가 27.7%, 저녁 10시 이전이 10.0% 순이었다. 자신이 생각하는 스마트폰 의존정도는 보통이라고 응답한 조사 대상자가 49.0%이었으며, 높다고 응답한 대상자는 25.5%로 다소 많았다. 스마트폰 중독정도는 일반군이 67.4%로 대부분이었고, 잠재군이 21.1%, 고위험군은 3.0%로 나타났다. 만족도는 3.57점으로 보통이상이었다.

<표 9 청소년의 스마트폰 사용에 대한 전반적 특성>

| 내용 | 범주 | 빈도 | 퍼센트 |
|-----------|------------|------|-------|
| 스마트폰 사용여부 | 예 | 2850 | 93.7% |
| | 아니오 | 180 | 5.9% |
| | 무응답 | 13 | .4% |
| 스마트폰 사용시기 | 초등학교 입학 전 | 150 | 4.9% |
| | 초등학교 1~3학년 | 874 | 28.7% |
| | 초등학교 4~5학년 | 1156 | 38.0% |
| | 중학교 1~3학년 | 653 | 21.5% |
| | 고등학교 1~3학년 | 45 | 1.5% |
| | 고등학교 졸업이후 | 4 | .1% |
| | 무응답 | 161 | 5.3% |
| 스마트폰 사용시간 | 1시간미만 | 308 | 10.1% |
| | 1시간~3시간미만 | 1102 | 36.2% |
| | 3시간~5시간미만 | 757 | 24.9% |
| | 5시간~7시간미만 | 405 | 13.3% |
| | 7시간 이상 | 297 | 9.8% |
| | 무응답 | 174 | 5.7% |

| 내용 | 범주 | 빈도 | 퍼센트 |
|----------------------|-----------------|------|--------|
| 스마트폰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기능 | 전화 및 문자 | 499 | 16.4% |
| | 게임 | 537 | 17.6% |
| | SNS | 790 | 26.0% |
| | 음악 및 동영상 감상 | 768 | 25.2% |
| | 정보검색 | 64 | 2.1% |
| | 웹툰 | 141 | 4.6% |
| | 교육(이러닝 등) | 12 | .4% |
| | 사진 및 동영상 촬영 | 7 | .2% |
| | 인터넷 쇼핑 | 16 | .5% |
| | 음란사이트 | 13 | .4% |
| | 불법도박(사행성게임) | 2 | .1% |
| | 기타 | 30 | 1.0% |
| | 무응답 | 164 | 5.4% |
| 스마트폰 사용시간대 | 학교에서 일과 중 | 105 | 3.5% |
| | 방과 후 오후 (4시~7시) | 810 | 26.6% |
| | 저녁시간 (7시~10시) | 958 | 31.5% |
| | 밤 (10시~12시) | 618 | 20.3% |
| | 밤 12시 이후 | 205 | 6.7% |
| | 학교가기 전 아침시간 | 154 | 5.1% |
| | 무응답 | 193 | 6.3% |
| 취침시간 | 저녁 10시 이전 | 305 | 10.0% |
| | 밤 10시~12시 | 1434 | 47.1% |
| | 밤 12시~2시 | 843 | 27.7% |
| | 밤 2시~4시 | 259 | 8.5% |
| | 밤 4시 이후 | 34 | 1.1% |
| | 무응답 | 168 | 5.5% |
| 스마트폰 의존정도 | 매우 낮다 | 92 | 3.0% |
| | 낮다 | 260 | 8.5% |
| | 보통이다 | 1491 | 49.0% |
| | 높다 | 776 | 25.55% |
| | 매우 높다 | 226 | 7.45% |
| | 무응답 | 198 | 6.5% |
| 중독정도 | 일반군 | 2050 | 67.4% |
| | 잠재군 | 643 | 21.1% |
| | 고위험군 | 91 | 3.0% |
| | 무응답 | 259 | 8.5% |
| 합 계 | | 3043 | 100.0% |

(2)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스마트폰 사용

① 스마트폰 사용여부

스마트폰 사용여부는 성별, 나이, 소속, 가정형태, 경제수준, 물질적/정서적 지원에 따라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는 남학생, 19세 이상, 중학교 및 인문계고등학교 학생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또한 경제수준이 매우 어려운 학생들, 물질적/정서적 지원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는 학생들이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는 비율도 상대적으로 높았다. 가정형태에서는 혈연이외의 구성원들과 살거나 독거하는 경우 사용하지 않는 비율이 높았다.

<표 10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스마트폰 사용여부>

| | | 스마트폰 사용여부 | | 전체 | χ^2 |
|----|---------------|-------------|-----------|--------------|----------|
| | | 예 | 아니오 | | |
| 성별 | 남자 | 1404(92.7%) | 110(7.3%) | 1514(100.0%) | 9.949** |
| | 여자 | 1426(95.4%) | 68(4.6%) | 1494(100.0%) | |
| 나이 | 12세 | 313(92.1%) | 27(7.9%) | 340(100.0%) | 23.932** |
| | 13세 | 402(93.3%) | 29(6.7%) | 431(100.0%) | |
| | 14세 | 330(94.6%) | 19(5.4%) | 349(100.0%) | |
| | 15세 | 283(96.3%) | 11(3.7%) | 294(100.0%) | |
| | 16세 | 358(97.3%) | 10(2.7%) | 368(100.0%) | |
| | 17세 | 546(94.5%) | 32(5.5%) | 578(100.0%) | |
| | 18세 | 423(93.8%) | 28(6.2%) | 451(100.0%) | |
| | 19세 이상 | 186(88.6%) | 24(11.4%) | 210(100.0%) | |
| 소속 | 초등학교 | 702(92.9%) | 54(7.1%) | 756(100.0%) | 16.209** |
| | 중학교 | 927(96.2%) | 37(3.8%) | 964(100.0%) | |
| | 인문계 고등학교 | 829(92.4%) | 68(7.6%) | 897(100.0%) | |
| | 전문계(실업계) 고등학교 | 251(95.4%) | 12(4.6%) | 263(100.0%) | |
| | 학교에 다니고 있지 않음 | 130(96.3%) | 5(3.7%) | 135(100.0%) | |
| 지역 | 시단위 | 2213(94.1%) | 138(5.9%) | 2351(100.0%) | .046 |
| | 군단위 | 632(93.9%) | 41(6.1%) | 673(100.0%) | |

| | | 스마트폰 사용여부 | | 전체 | χ^2 |
|-----------|-------------------|-------------|-----------|--------------|-----------|
| | | 예 | 아니오 | | |
| 가정 형태 | 친부모 | 1710(95.7%) | 76(4.3%) | 1786(100.0%) | 61.487*** |
| | 새부모 | 66(90.4%) | 7(9.6%) | 73(100.0%) | |
| | 조부모 | 307(92.7%) | 24(7.3%) | 331(100.0%) | |
| | 친척 | 47(94.0%) | 3(6.0%) | 50(100.0%) | |
| | 혈연이외 구성원 및 독 거 | 71(77.2%) | 21(22.8%) | 92(100.0%) | |
| 경제 수준 | 매우 어려운 편이다 | 22(73.3%) | 8(26.7%) | 30(100.0%) | 28.820*** |
| | 어려운 편이다 | 171(91.9%) | 15(8.1%) | 186(100.0%) | |
| | 보통이다 | 1942(94.8%) | 107(5.2%) | 2049(100.0%) | |
| | 잘사는 편이다 | 595(94.0%) | 38(6.0%) | 633(100.0%) | |
| | 매우 잘사는 편이다 | 108(90.8%) | 11(9.2%) | 119(100.0%) | |
| 국가 지원 | 없음 | 1435(93.9%) | 93(6.1%) | 1528(100.0%) | 1.057 |
| | 있음 | 310(95.4%) | 15(4.6%) | 325(100.0%) | |
| 물질적 지원 | 전혀 받지 못하고 있다 | 87(83.7%) | 17(16.3%) | 104(100.0%) | 24.059*** |
| | 부족하다 | 156(91.2%) | 15(8.8%) | 171(100.0%) | |
| | 보통이다 | 721(94.5%) | 42(5.5%) | 763(100.0%) | |
| | 받고 있는 편이다 | 578(94.4%) | 34(5.6%) | 612(100.0%) | |
| | 충분히 받고 있다 | 1296(94.7%) | 72(5.3%) | 1368(100.0%) | |
| 정서적 지원 | 전혀 받지 못하고 있다 | 104(88.1%) | 14(11.9%) | 118(100.0%) | 14.245** |
| | 부족하다 | 170(91.9%) | 15(8.1%) | 185(100.0%) | |
| | 보통이다 | 885(93.2%) | 65(6.8%) | 950(100.0%) | |
| | 받고 있는 편이다 | 581(95.2%) | 29(4.8%) | 610(100.0%) | |
| | 충분히 받고 있다 | 1094(95.1%) | 56(4.9%) | 1150(100.0%) | |

*** p<.001

② 스마트폰 사용시기

스마트폰 사용시기는 성별, 나이, 소속, 지역, 가정형태, 경제수준, 물질적/정서적 지원에 따라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남학생은 초등학교 1-3학년 및 중학교 1-3학년에 사용하기 시작할 비율이 유사하였고, 나이가 많아질수록, 학년이 높을수록 사용시기가 늦은 비율이 높았고, 군단위, 경제적 수준이 낮은 경우, 물질적/정서적 지원을 적게 받는 경우 사용시기가 늦은 비율이 높았다. 가정형태에 따라서는 친부모와 사는 학생의 사용시기가 빠른 비율이 다소 높았다.

<표 11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스마트폰 사용시기>

| 성별 | 스마트폰 사용시기 | | | | | | | 진체 | χ ² | |
|---------------|------------|------------|------------|------------|------------|---------|--------------|-----------------|----------------|--|
| | 초등학교 입학 전 | | 초등학교 1~3학년 | | 중학교 1~3학년 | | 고등학교 1~3학년 | | | |
| | 초등학교 1~3학년 | 초등학교 4~5학년 | 초등학교 1~3학년 | 중학교 1~3학년 | 고등학교 1~3학년 | 고등학교 졸업 | 고등학교 졸업이후 | | | |
| 남자 | 67(4.7%) | 368(25.8%) | 576(40.4%) | 363(26.9%) | 29(2.0%) | 2(0.1%) | 1425(100.0%) | 48.508** | | |
| 여자 | 80(5.6%) | 503(35.1%) | 572(39.9%) | 262(18.3%) | 16(1.1%) | 2(0.1%) | 1435(100.0%) | | | |
| 12세 | 40(12.7%) | 191(60.4%) | 85(26.9%) | 0(0.0%) | 0(0.0%) | 0(0.0%) | 316(100.0%) | 1027.846* ** | | |
| 13세 | 41(9.9%) | 199(48.2%) | 165(40.0%) | 7(1.7%) | 0(0.0%) | 1(0.2%) | 413(100.0%) | | | |
| 14세 | 19(5.7%) | 159(47.5%) | 123(36.7%) | 34(10.1%) | 0(0.0%) | 0(0.0%) | 335(100.0%) | | | |
| 15세 | 13(4.6%) | 110(38.9%) | 109(38.5%) | 50(17.7%) | 1(0.4%) | 0(0.0%) | 283(100.0%) | | | |
| 16세 | 14(3.9%) | 79(21.8%) | 189(52.1%) | 79(21.8%) | 2(0.6%) | 0(0.0%) | 363(100.0%) | | | |
| 17세 | 10(1.8%) | 76(13.8%) | 281(51.0%) | 173(31.4%) | 11(2.0%) | 0(0.0%) | 551(100.0%) | | | |
| 18세 | 11(2.6%) | 46(10.8%) | 153(35.8%) | 207(48.5%) | 10(2.3%) | 0(0.0%) | 427(100.0%) | | | |
| 19세 이상 | 2(1.1%) | 12(6.5%) | 48(25.8%) | 100(53.8%) | 21(11.3%) | 3(1.6%) | 186(100.0%) | | | |
| 초등학교 | 81(11.3%) | 384(53.8%) | 243(34.0%) | 5(0.7%) | 0(0.0%) | 1(0.1%) | 714(100.0%) | 892.575*** | | |
| 중학교 | 44(4.7%) | 339(36.2%) | 399(42.6%) | 154(16.5%) | 0(0.0%) | 0(0.0%) | 936(100.0%) | | | |
| 인문계 고등학교 | 12(1.4%) | 92(11.0%) | 380(45.5%) | 330(39.5%) | 22(2.6%) | 0(0.0%) | 836(100.0%) | | | |
| 전문계(실업) 고등학교 | 7(2.8%) | 35(14.0%) | 90(36.0%) | 112(44.8%) | 6(2.4%) | 0(0.0%) | 250(100.0%) | | | |
| 학교에 다니고 있지 않음 | 4(3.1%) | 18(13.7%) | 39(29.8%) | 51(38.9%) | 16(12.2%) | 3(2.3%) | 131(100.0%) | | | |
| 시단위 | 127(5.7%) | 696(31.1%) | 891(39.8%) | 484(21.6%) | 39(1.7%) | 4(0.2%) | 2241(100.0%) | | | |
| 군단위 | 22(3.5%) | 177(27.9%) | 263(41.4%) | 167(26.3%) | 6(0.9%) | 0(0.0%) | 635(100.0%) | 14.591* | | |

스마트폰 사용시기

| | 초등학교 입학 전 | | | | 초등학교 1~3학년 | | | | 초등학교 4~5학년 | | | | 중학교 1~3학년 | | | | 고등학교 1~3학년 | | | | 고등학교 졸업 이후 | | 진체 | χ^2 |
|---------------|-----------|------------|------------|------------|------------|------------|--------------|------------|------------|------------|------------|------------|------------|-------------|------------|------------|------------|------------|------------|------------|--------------|------------|----|----------|
| | 초등학교 입학 전 | 초등학교 1~3학년 | 초등학교 4~5학년 | 초등학교 1~3학년 | 초등학교 1~3학년 | 초등학교 4~5학년 | 초등학교 1~3학년 | 초등학교 4~5학년 | 중학교 1~3학년 | 중학교 4~5학년 | 고등학교 1~3학년 | 고등학교 4~5학년 | 고등학교 1~3학년 | 고등학교 4~5학년 | 고등학교 1~3학년 | 고등학교 4~5학년 | 고등학교 1~3학년 | 고등학교 4~5학년 | 고등학교 1~3학년 | 고등학교 4~5학년 | 고등학교 1~3학년 | 고등학교 4~5학년 | | |
| 가정 형태 | 67(3.9%) | 548(31.8%) | 708(41.1%) | 376(21.8%) | 23(1.3%) | 2(0.1%) | 1724(100.0%) | 5(7.4%) | 21(30.9%) | 17(25.0%) | 24(35.3%) | 1(1.5%) | 0(0.0%) | 68(100.0%) | 25(8.0%) | 91(29.2%) | 125(40.1%) | 64(20.5%) | 6(1.9%) | 1(0.3%) | 312(100.0%) | 71.198*** | | |
| 행연이외 구성원 및 독거 | 8(11.0%) | 5(6.8%) | 24(32.9%) | 32(43.8%) | 4(5.5%) | 0(0.0%) | 48(100.0%) | 5(10.4%) | 10(20.8%) | 19(39.6%) | 14(29.2%) | 0(0.0%) | 0(0.0%) | 48(100.0%) | 8(11.0%) | 5(6.8%) | 24(32.9%) | 32(43.8%) | 4(5.5%) | 0(0.0%) | 73(100.0%) | | | |
| 경제 수준 | 3(12.5%) | 4(16.7%) | 7(29.2%) | 9(37.5%) | 1(4.2%) | 0(0.0%) | 24(100.0%) | 11(6.4%) | 35(20.3%) | 70(40.7%) | 52(30.2%) | 4(2.3%) | 0(0.0%) | 172(100.0%) | 93(4.7%) | 564(28.7%) | 788(40.1%) | 483(24.6%) | 34(1.7%) | 2(0.1%) | 1964(100.0%) | 70.326*** | | |
| 국가 지원 | 74(5.1%) | 390(26.8%) | 594(40.8%) | 367(25.2%) | 29(2.0%) | 3(0.2%) | 1457(100.0%) | 19(6.1%) | 69(22.1%) | 143(45.8%) | 76(24.4%) | 4(1.3%) | 1(0.3%) | 312(100.0%) | 11(12.2%) | 17(18.9%) | 36(40.0%) | 23(25.6%) | 3(3.3%) | 0(0.0%) | 90(100.0%) | 5.136 | | |
| 물리적 지원 | 12(7.6%) | 29(18.4%) | 63(39.9%) | 51(32.3%) | 3(1.9%) | 0(0.0%) | 158(100.0%) | 36(4.9%) | 185(25.4%) | 296(40.7%) | 192(26.4%) | 19(2.6%) | 0(0.0%) | 728(100.0%) | 20(3.4%) | 186(31.8%) | 236(40.3%) | 130(22.2%) | 9(1.5%) | 4(0.7%) | 585(100.0%) | 82.846*** | | |
| 정서적 지원 | 12(11.1%) | 18(16.7%) | 46(42.6%) | 30(27.8%) | 2(1.9%) | 0(0.0%) | 108(100.0%) | 10(5.8%) | 39(22.7%) | 73(42.4%) | 44(25.6%) | 6(3.5%) | 0(0.0%) | 172(100.0%) | 49(5.5%) | 245(27.4%) | 358(40.0%) | 225(25.1%) | 18(2.0%) | 0(0.0%) | 895(100.0%) | 55.656*** | | |
| 총분히 받고 있다 | 52(4.7%) | 384(34.9%) | 442(40.1%) | 209(19.0%) | 13(1.2%) | 1(0.1%) | 1101(100.0%) | | | | | | | | | | | | | | | | | |

*** p<.001

③ 스마트폰 사용시간

스마트폰 사용시간은 성별, 나이, 소속, 가정형태, 경제수준, 물질적/정서적 지원에 따라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여학생들의 사용시간이 다소 길었고, 나이가 많을수록, 학년이 높을수록, 경제수준이 높을수록, 물질적/정서적 지지를 받고 있지 못할수록 사용시간이 긴 비율이 높았다. 가정형태에 따라서는 친부모, 조부모, 친척과 함께 사는 학생들의 사용시간이 짧은 경우가 많았다.

<표 12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스마트폰 사용시간>

| | 스마트폰 사용시간 | | | | | 전체 | χ^2 |
|---------------|------------|------------|------------|------------|------------|--------------|------------|
| | 1시간미만 | 1시간~3시간미만 | 3시간~5시간미만 | 5시간~7시간미만 | 7시간 이상 | | |
| 성별 | | | | | | | |
| 남자 | 176(12.4%) | 619(43.7%) | 352(24.9%) | 157(11.1%) | 112(7.9%) | 1416(100.0%) | 67.315** |
| 여자 | 125(8.7%) | 475(33.2%) | 403(28.2%) | 245(17.1%) | 183(12.8%) | 1431(100.0%) | |
| 나이 | | | | | | | |
| 12세 | 82(25.9%) | 151(47.8%) | 60(19.0%) | 11(3.5%) | 12(3.8%) | 316(100.0%) | 262.736*** |
| 13세 | 70(17.1%) | 177(43.3%) | 98(24.0%) | 40(9.8%) | 24(5.9%) | 409(100.0%) | |
| 14세 | 23(6.9%) | 143(42.8%) | 92(27.5%) | 54(16.2%) | 22(6.6%) | 334(100.0%) | 262.736*** |
| 15세 | 18(6.4%) | 99(35.0%) | 91(32.2%) | 49(17.3%) | 26(9.2%) | 283(100.0%) | |
| 16세 | 25(6.9%) | 144(40.0%) | 96(26.7%) | 58(16.1%) | 37(10.3%) | 360(100.0%) | 262.736*** |
| 17세 | 43(7.9%) | 189(34.6%) | 155(28.3%) | 98(17.9%) | 62(11.3%) | 547(100.0%) | |
| 18세 | 33(7.8%) | 150(35.3%) | 110(25.9%) | 62(14.6%) | 70(16.5%) | 425(100.0%) | 262.736*** |
| 19세 이상 | 11(5.9%) | 46(24.7%) | 54(29.0%) | 31(16.7%) | 44(23.7%) | 186(100.0%) | |
| 초등학교 | 146(20.5%) | 323(45.4%) | 156(21.9%) | 52(7.3%) | 34(4.8%) | 711(100.0%) | 272.803*** |
| 중학교 | 71(7.6%) | 375(40.2%) | 261(28.0%) | 151(16.2%) | 74(7.9%) | 932(100.0%) | |
| 인문계 고등학교 | 71(8.5%) | 306(36.8%) | 233(28.0%) | 125(15.0%) | 96(11.6%) | 831(100.0%) | 272.803*** |
| 전문계(실업계) 고등학교 | 12(4.8%) | 66(26.5%) | 67(26.9%) | 51(20.5%) | 53(21.3%) | 249(100.0%) | |
| 학교에 다니고 있지 않음 | 3(2.3%) | 28(21.4%) | 37(28.2%) | 23(17.6%) | 40(30.5%) | 131(100.0%) | 4.653 |
| 지역 | | | | | | | |
| 시단위 | 228(10.2%) | 859(38.5%) | 602(27.0%) | 317(14.2%) | 223(10.0%) | 2229(100.0%) | 4.653 |
| 군단위 | 79(12.5%) | 242(38.2%) | 154(24.3%) | 87(13.7%) | 72(11.4%) | 634(100.0%) | |

| | 스마트폰 사용시간 | | | | | 전체 | X ² |
|---------------|------------|------------|------------|------------|------------|--------------|----------------|
| | 1시간미만 | 1시간~3시간미만 | 3시간~5시간미만 | 5시간~7시간미만 | 7시간 이상 | | |
| 진부모 | 183(10.7%) | 684(39.9%) | 465(27.1%) | 243(14.2%) | 140(8.2%) | 1715(100.0%) | |
| 새부모 | 8(11.9%) | 16(23.9%) | 17(25.4%) | 13(19.4%) | 13(19.4%) | 67(100.0%) | |
| 가정 형태 | 33(10.6%) | 116(37.3%) | 83(26.7%) | 36(11.6%) | 43(13.8%) | 311(100.0%) | 55.530*** |
| 형태 | 4(8.3%) | 22(45.8%) | 8(16.7%) | 7(14.6%) | 7(14.6%) | 48(100.0%) | |
| 월연이외 구성원 및 독자 | 10(13.7%) | 21(28.8%) | 11(15.1%) | 11(15.1%) | 20(27.4%) | 73(100.0%) | |
| 매우 어려운 편이다 | 3(12.5%) | 6(25.0%) | 5(20.8%) | 4(16.7%) | 6(25.0%) | 24(100.0%) | |
| 어려운 편이다 | 9(5.3%) | 55(32.2%) | 40(23.4%) | 33(19.3%) | 34(19.9%) | 171(100.0%) | |
| 보통이다 | 179(9.2%) | 753(38.6%) | 543(27.8%) | 281(14.4%) | 196(10.0%) | 1952(100.0%) | 85.008*** |
| 잘사는 편이다 | 83(13.8%) | 244(40.6%) | 151(25.1%) | 76(12.6%) | 47(7.8%) | 601(100.0%) | |
| 매우 잘사는 편이다 | 30(27.5%) | 41(37.6%) | 17(15.6%) | 10(9.2%) | 11(10.1%) | 109(100.0%) | |
| 국가 있음 | 149(10.3%) | 550(37.9%) | 377(26.0%) | 223(15.4%) | 153(10.5%) | 1452(100.0%) | 1.821 |
| 지원 있음 | 32(10.4%) | 115(37.2%) | 72(23.3%) | 52(16.8%) | 38(12.3%) | 309(100.0%) | |
| 진행 받지 못하고 있다 | 14(15.6%) | 24(26.7%) | 16(17.8%) | 17(18.9%) | 19(21.1%) | 90(100.0%) | |
| 부족하다 | 11(7.0%) | 51(32.3%) | 32(20.3%) | 29(18.4%) | 35(22.2%) | 158(100.0%) | |
| 보통이다 | 82(11.3%) | 270(37.2%) | 199(27.4%) | 103(14.2%) | 71(9.8%) | 725(100.0%) | 59.389*** |
| 받고 있는 편이다 | 59(10.2%) | 213(36.7%) | 171(29.5%) | 82(14.1%) | 55(9.5%) | 580(100.0%) | |
| 충분히 받고 있다 | 142(10.9%) | 539(41.3%) | 335(25.7%) | 173(13.3%) | 115(8.8%) | 1304(100.0%) | |
| 진행 받지 못하고 있다 | 17(15.9%) | 25(23.4%) | 20(18.7%) | 20(18.7%) | 25(23.4%) | 107(100.0%) | |
| 부족하다 | 11(6.4%) | 61(35.5%) | 45(26.2%) | 30(17.4%) | 25(14.5%) | 172(100.0%) | |
| 보통이다 | 86(9.6%) | 310(34.8%) | 259(29.0%) | 138(15.5%) | 99(11.1%) | 892(100.0%) | 88.776*** |
| 받고 있는 편이다 | 40(6.8%) | 235(40.0%) | 164(27.9%) | 94(16.0%) | 55(9.4%) | 588(100.0%) | |
| 충분히 받고 있다 | 154(14.1%) | 468(42.7%) | 262(23.9%) | 120(11.0%) | 91(8.3%) | 1095(100.0%) | |

*** p<.001

<

④ 스마트폰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기능

스마트폰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기능은 성별, 나이, 소속, 지역, 가정형태, 경제수준, 물질적/정서적 지원에 따라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남학생은 게임, 여학생은 SNS를 가장 많이 사용한다고 응답하였고, 나이가 어릴수록 게임의 비율이 높았고, 15세 이상이 되면 SNS의 비율이 높았다. 초·중·고등학생들은 게임의 비율이 가장 높았고, 그 이상은 SNS, 학교밖 청소년들은 전화 및 문자의 비율이 높았다. 군단위는 게임의 비율이 높았고, 시단위는 정보검색의 비율이 군단위 보다 높았다. 경제적 수준이 낮을수록, 물질적/정서적 지원을 받지 못할수록 게임의 비율이 높았다. 가정형태에 따라서는 친척과 사는 경우에 전화 및 문자의 비율이 다소 높았다.

<표 13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스마트폰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기능>

| 성별 | 가장 많이 사용하는 기능 | | | | | | | | | | | 전체 | χ ² | |
|--------|----------------|----------------|----------------|----------------|--------------|--------------|-------------|-------------|--------------|--------------|--------------|--------------|------------------|------------|
| | 전화 및 문자 | 게임 | SNS | 음악 및 동영상 감상 | 정보검색 | 웹툰 | 교육 (이러닝 등) | 사진 및 동영상 촬영 | 인타넷 쇼핑 | 음란사이트 | 불법도박 (사행성게임) | | | 기타 |
| 남자 | 206 (14.5%) | 448 (31.5%) | 280 (19.7%) | 357 (25.1%) | 37 (2.6%) | 53 (3.7%) | 8 (0.6%) | 0 (0.0%) | 4 (0.3%) | 11 (0.8%) | 2 (0.1%) | 14 (1.0%) | 1420 (100.0%) | 353.284*** |
| 여자 | 286 (19.9%) | 89 (6.2%) | 508 (35.4%) | 402 (28.0%) | 24 (1.7%) | 87 (6.1%) | 4 (0.3%) | 7 (0.5%) | 12 (0.8%) | 2 (0.1%) | 0 (0.0%) | 16 (1.1%) | 1437 (100.0%) | |
| 12세 | 77 (24.9%) | 110 (34.7%) | 19 (6.0%) | 88 (27.8%) | 3 (0.9%) | 13 (4.1%) | 0 (0.0%) | 3 (0.9%) | 1 (0.3%) | 0 (0.0%) | 0 (0.0%) | 3 (0.9%) | 317 (100.0%) | 344.508*** |
| 13세 | 72 (17.5%) | 100 (24.3%) | 64 (15.5%) | 131 (31.8%) | 7 (1.7%) | 33 (8.0%) | 0 (0.0%) | 0 (0.0%) | 2 (0.5%) | 0 (0.0%) | 0 (0.0%) | 3 (0.7%) | 412 (100.0%) | |
| 14세 | 52 (15.6%) | 87 (26.1%) | 78 (23.4%) | 87 (26.1%) | 10 (3.0%) | 12 (3.6%) | 1 (0.3%) | 0 (0.0%) | 0 (0.0%) | 3 (0.9%) | 0 (0.0%) | 3 (0.9%) | 333 (100.0%) | |
| 15세 | 24 (8.5%) | 45 (16.0%) | 93 (33.0%) | 81 (28.7%) | 4 (1.4%) | 23 (8.2%) | 1 (0.4%) | 1 (0.4%) | 4 (1.4%) | 1 (0.4%) | 1 (0.4%) | 4 (1.4%) | 282 (100.0%) | |
| 16세 | 50 (13.8%) | 50 (13.8%) | 127 (35.1%) | 101 (27.9%) | 11 (3.0%) | 17 (4.7%) | 0 (0.0%) | 1 (0.3%) | 1 (0.3%) | 2 (0.6%) | 0 (0.0%) | 2 (0.6%) | 362 (100.0%) | |
| 17세 | 89 (16.2%) | 71 (12.9%) | 209 (38.0%) | 130 (23.6%) | 10 (1.8%) | 21 (3.8%) | 5 (0.9%) | 0 (0.0%) | 4 (0.7%) | 3 (0.5%) | 0 (0.0%) | 8 (1.5%) | 550 (100.0%) | |
| 18세 | 84 (19.6%) | 50 (11.7%) | 154 (36.0%) | 105 (24.5%) | 9 (2.1%) | 13 (3.0%) | 3 (0.7%) | 1 (0.2%) | 1 (0.2%) | 3 (0.7%) | 0 (0.0%) | 5 (1.2%) | 428 (100.0%) | |
| 19세 이상 | 49 (26.3%) | 22 (11.8%) | 44 (23.7%) | 43 (23.1%) | 10 (5.4%) | 9 (4.8%) | 2 (1.1%) | 0 (0.0%) | 3 (1.6%) | 1 (0.5%) | 1 (0.5%) | 2 (1.1%) | 186 (100.0%) | |

가장 많이 사용하는 기능

| 전화 및 문자 | 게임 | SMS | 음악 및 동영상 감상 | 정보검색 | 웹툰 | 교육 (이러닝 등) | 사진 및 영상 촬영 | 인터넷 쇼핑 | 음란사이트 | 불법도박 (사행성게임) | 기타 | 전체 | χ^2 |
|---------------|-------------|-------------|-------------|-------------|-----------|------------|------------|----------|-----------|--------------|-----------|---------------|------------|
| 초등학교 | 143 (20.0%) | 209 (29.2%) | 83 (11.6%) | 216 (30.2%) | 9 (1.3%) | 42 (5.9%) | 0 (0.0%) | 4 (0.6%) | 3 (0.4%) | 0 (0.0%) | 6 (0.8%) | 715 (100.0%) | |
| 중학교 | 124 (13.9%) | 165 (17.7%) | 286 (30.7%) | 258 (27.7%) | 25 (2.7%) | 52 (5.6%) | 2 (0.2%) | 2 (0.2%) | 5 (0.5%) | 1 (0.1%) | 7 (0.8%) | 932 (100.0%) | |
| 소속 | 130 (15.6%) | 95 (11.4%) | 303 (36.3%) | 216 (25.9%) | 24 (2.9%) | 33 (4.0%) | 9 (1.1%) | 1 (0.1%) | 5 (0.6%) | 7 (0.8%) | 12 (1.4%) | 835 (100.0%) | 297.323*** |
| 전문계(실업계) 고등학교 | 47 (18.7%) | 45 (17.9%) | 89 (35.5%) | 53 (21.1%) | 3 (1.2%) | 10 (4.0%) | 1 (0.4%) | 0 (0.0%) | 0 (0.0%) | 0 (0.0%) | 3 (1.2%) | 251 (100.0%) | |
| 학교에 다니고 있지 않음 | 53 (40.5%) | 18 (13.7%) | 26 (19.8%) | 23 (17.6%) | 3 (2.3%) | 1 (0.8%) | 0 (0.0%) | 0 (0.0%) | 3 (2.3%) | 1 (0.8%) | 2 (1.5%) | 131 (100.0%) | |
| 시단위 | 387 (17.5%) | 392 (17.8%) | 615 (27.1%) | 612 (27.3%) | 59 (2.6%) | 112 (5.1%) | 8 (0.4%) | 4 (0.2%) | 10 (0.4%) | 8 (0.4%) | 27 (1.2%) | 2236 (100.0%) | 27.138** |
| 군단위 | 111 (17.4%) | 145 (22.8%) | 173 (27.2%) | 154 (24.2%) | 5 (0.8%) | 28 (4.4%) | 4 (0.6%) | 3 (0.5%) | 6 (0.9%) | 5 (0.8%) | 3 (0.5%) | 637 (100.0%) | |
| 친부모 | 300 (17.5%) | 305 (17.8%) | 466 (27.1%) | 469 (27.3%) | 47 (2.7%) | 88 (5.1%) | 8 (0.5%) | 5 (0.3%) | 9 (0.5%) | 4 (0.2%) | 16 (0.9%) | 1718 (100.0%) | |
| 새부모 | 12 (17.6%) | 17 (25.0%) | 16 (23.5%) | 19 (27.9%) | 0 (0.0%) | 2 (2.9%) | 0 (0.0%) | 0 (0.0%) | 1 (1.5%) | 0 (0.0%) | 1 (1.5%) | 68 (100.0%) | |
| 조부모 | 60 (19.3%) | 54 (17.4%) | 84 (27.0%) | 78 (25.1%) | 6 (1.9%) | 21 (6.8%) | 2 (0.6%) | 0 (0.0%) | 3 (1.0%) | 0 (0.0%) | 3 (1.0%) | 311 (100.0%) | 146.987*** |
| 친척 | 13 (26.5%) | 13 (26.5%) | 9 (18.4%) | 13 (26.5%) | 0 (0.0%) | 0 (0.0%) | 0 (0.0%) | 0 (0.0%) | 0 (0.0%) | 0 (0.0%) | 1 (2.0%) | 49 (100.0%) | |
| 촬영이외 구성원 및 독자 | 14 (19.2%) | 6 (8.2%) | 22 (30.1%) | 18 (24.7%) | 2 (2.7%) | 1 (1.4%) | 0 (0.0%) | 0 (0.0%) | 1 (1.4%) | 6 (8.2%) | 2 (2.7%) | 73 (100.0%) | |
| 매우 어려운 편이다 | 4 (17.4%) | 6 (26.1%) | 3 (13.0%) | 5 (21.7%) | 1 (4.3%) | 1 (4.3%) | 1 (4.3%) | 0 (0.0%) | 0 (0.0%) | 2 (8.7%) | 0 (0.0%) | 23 (100.0%) | |
| 아려운 편이다 | 33 (19.4%) | 29 (17.1%) | 47 (27.6%) | 43 (25.3%) | 4 (2.4%) | 7 (4.1%) | 2 (1.2%) | 0 (0.0%) | 2 (1.2%) | 3 (1.8%) | 0 (0.0%) | 170 (100.0%) | |
| 보통이다 | 328 (16.7%) | 360 (18.3%) | 546 (27.8%) | 535 (27.2%) | 36 (1.8%) | 101 (5.1%) | 8 (0.4%) | 3 (0.2%) | 13 (0.7%) | 7 (0.4%) | 27 (1.4%) | 1965 (100.0%) | 105.902*** |
| 질서는 편이다 | 108 (18.0%) | 115 (19.2%) | 165 (27.5%) | 155 (25.8%) | 19 (3.2%) | 30 (5.0%) | 1 (0.2%) | 2 (0.3%) | 1 (0.2%) | 1 (0.2%) | 3 (0.5%) | 600 (100.0%) | |
| 매우 질서는 편이다 | 24 (22.0%) | 24 (22.0%) | 25 (22.9%) | 27 (24.8%) | 4 (3.7%) | 2 (1.8%) | 0 (0.0%) | 2 (1.8%) | 0 (0.0%) | 0 (0.0%) | 1 (0.9%) | 109 (100.0%) | |

가장 많이 사용하는 기능

| 진화 및 문자 | 게임 | SNS | 음악 및 동 영상 감상 | 정보검색 | 웹툰 | 교육 (이러닝 등) | 사진 및 동 영상 촬영 | 인터넡 소 핑 | 음란사이트 | 불법도박 (사행성게임) | 기타 | 진체 | χ^2 |
|--------------|----------------|----------------|-----------------|----------------|--------------|---------------|-----------------|--------------|-------------|-----------------|--------------|------------------|-----------|
| | | | | | | | | | | | | | |
| 없음 | 254 (17.5%) | 235 (16.2%) | 456 (31.3%) | 362 (24.9%) | 64 (4.4%) | 10 (0.7%) | 4 (0.3%) | 10 (0.7%) | 4 (0.3%) | 2 (0.1%) | 11 (0.8%) | 1455 (100.0%) | |
| 크가 지원 | 57 (18.4%) | 49 (15.9%) | 90 (28.1%) | 85 (27.5%) | 14 (4.5%) | 0 (0.0%) | 0 (0.0%) | 0 (0.0%) | 5 (1.6%) | 0 (0.0%) | 1 (0.3%) | 309 (100.0%) | 16.617 |
| 전혀 받지 못하고 있다 | 21 (23.3%) | 21 (23.3%) | 16 (17.8%) | 20 (22.2%) | 3 (3.3%) | 1 (1.1%) | 0 (0.0%) | 2 (2.2%) | 3 (3.3%) | 1 (1.1%) | 1 (1.1%) | 90 (100.0%) | |
| 부족하다 | 35 (22.3%) | 28 (17.8%) | 41 (26.1%) | 40 (25.5%) | 5 (3.2%) | 0 (0.0%) | 1 (0.6%) | 1 (0.6%) | 0 (0.0%) | 0 (0.0%) | 2 (1.3%) | 157 (100.0%) | |
| 물질적 지원 | 129 (17.6%) | 166 (22.7%) | 207 (28.3%) | 157 (21.5%) | 40 (5.5%) | 2 (0.9%) | 2 (0.3%) | 6 (0.8%) | 1 (0.1%) | 1 (0.1%) | 9 (1.2%) | 731 (100.0%) | 94.489*** |
| 받고 있는 편이다 | 93 (15.9%) | 97 (16.6%) | 177 (30.3%) | 172 (29.4%) | 30 (5.1%) | 2 (0.9%) | 0 (0.0%) | 2 (0.3%) | 2 (0.3%) | 0 (0.0%) | 4 (0.7%) | 565 (100.0%) | |
| 충분히 받고 있다 | 220 (16.9%) | 222 (17.0%) | 348 (26.7%) | 372 (28.5%) | 63 (4.8%) | 7 (0.5%) | 4 (0.3%) | 5 (0.4%) | 7 (0.5%) | 0 (0.0%) | 14 (1.1%) | 1304 (100.0%) | |
| 전혀 받지 못하고 있다 | 21 (19.4%) | 26 (24.1%) | 20 (18.5%) | 29 (26.9%) | 1 (0.9%) | 1 (0.9%) | 2 (1.9%) | 1 (0.9%) | 3 (2.8%) | 1 (0.9%) | 2 (1.9%) | 108 (100.0%) | |
| 부족하다 | 29 (16.9%) | 27 (15.7%) | 55 (32.0%) | 47 (27.3%) | 8 (4.7%) | 0 (0.0%) | 0 (0.0%) | 2 (1.2%) | 0 (0.0%) | 0 (0.0%) | 0 (0.0%) | 172 (100.0%) | |
| 정서적 지원 | 145 (16.2%) | 194 (21.7%) | 245 (27.3%) | 222 (24.8%) | 46 (5.1%) | 5 (0.6%) | 1 (0.1%) | 4 (0.4%) | 4 (0.4%) | 1 (0.1%) | 11 (1.2%) | 886 (100.0%) | 82.446*** |
| 받고 있는 편이다 | 90 (15.4%) | 93 (15.9%) | 184 (31.4%) | 159 (27.1%) | 31 (5.3%) | 2 (0.9%) | 2 (0.3%) | 1 (0.2%) | 1 (0.2%) | 0 (0.0%) | 9 (1.5%) | 566 (100.0%) | |
| 충분히 받고 있다 | 211 (19.2%) | 183 (17.5%) | 283 (25.7%) | 306 (27.8%) | 55 (5.0%) | 4 (0.4%) | 2 (0.2%) | 8 (0.7%) | 5 (0.5%) | 0 (0.0%) | 7 (0.6%) | 1101 (100.0%) | |

*** p<.001

⑤ 스마트폰 사용 시간대

스마트폰 사용 시간대는 나이, 소속, 지역, 가정형태, 경제수준, 물질적/정서적 지원에 따라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나이가 많을수록, 학년이 높을수록 사용 시간대가 늦었으며, 학교밖 청소년들은 사용시간대가 골고루 분포하고 있었다. 시단위에서는 밤 12시 이후 이용이 다소 높은 경향이 있었다. 경제 수준이 낮고, 물질적/정서적 지원을 받고 있지 못한 학생들의 밤 12시 이후 이용 비율도 다소 높은 경향이 있었다. 가정형태에 따라서는 혈연 이외의 구성원 및 독거하는 경우에 학교에서 일과 중에 사용한다는 응답의 비율이 높았다.

<표 14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스마트폰 사용 시간대>

| | 스마트폰 사용 시간대 | | | | | | | χ ² |
|----|---------------|--------------------|------------------|----------------|-------------|----------------|--------------|----------------|
| | 학교에서 일과 중 | 방과 후 오후 (4시~7시) | 저녁시간 (7시~10시) | 밤 (10시~12시) | 밤 12시 이후 | 학교가기 전 아침시간 | 전체 | |
| 성별 | 남자 | 52(3.7%) | 404(28.7%) | 470(33.4%) | 307(21.8%) | 86(6.1%) | 1406(100.0%) | 6.878 |
| | 여자 | 51(3.6%) | 402(28.3%) | 482(33.9%) | 307(21.6%) | 114(8.0%) | 1422(100.0%) | |
| 나이 | 12세 | 6(1.9%) | 124(40.3%) | 141(45.8%) | 13(4.2%) | 2(0.6%) | 308(100.0%) | 553.436*** |
| | 13세 | 3(0.7%) | 162(39.7%) | 195(47.8%) | 24(5.9%) | 3(0.7%) | 408(100.0%) | |
| | 14세 | 2(0.6%) | 103(30.9%) | 148(44.4%) | 53(15.9%) | 6(1.8%) | 333(100.0%) | |
| | 15세 | 5(1.8%) | 78(27.6%) | 104(36.7%) | 71(25.1%) | 12(4.2%) | 283(100.0%) | |
| | 16세 | 10(2.8%) | 99(27.6%) | 119(33.1%) | 95(26.5%) | 17(4.7%) | 359(100.0%) | |
| | 17세 | 25(4.6%) | 120(22.1%) | 121(22.2%) | 171(31.4%) | 87(16.0%) | 544(100.0%) | |
| | 18세 | 28(6.6%) | 95(22.4%) | 86(20.2%) | 136(32.0%) | 49(11.5%) | 425(100.0%) | |
| | 19세 이상 | 25(13.8%) | 27(14.9%) | 43(23.8%) | 50(27.6%) | 29(16.0%) | 181(100.0%) | |
| | 초등학교 | 11(1.6%) | 282(40.2%) | 328(46.7%) | 38(5.4%) | 5(0.7%) | 702(100.0%) | |
| 소속 | 중학교 | 14(1.5%) | 265(28.5%) | 368(39.5%) | 205(22.0%) | 29(3.1%) | 931(100.0%) | 603.645*** |
| | 인문계 고등학교 | 51(6.2%) | 145(17.5%) | 154(18.6%) | 291(35.1%) | 150(18.1%) | 829(100.0%) | |
| | 전문계(실업계) 고등학교 | 25(10.1%) | 81(32.8%) | 66(26.7%) | 48(19.4%) | 8(3.2%) | 247(100.0%) | |
| | 학교에 다니고 있지 않음 | 4(3.2%) | 32(25.4%) | 37(29.4%) | 32(25.4%) | 13(10.3%) | 126(100.0%) | |
| 지역 | 시단위 | 76(3.4%) | 657(29.7%) | 704(31.8%) | 492(22.2%) | 171(7.7%) | 2215(100.0%) | 24.023*** |
| | 군단위 | 29(4.6%) | 150(23.8%) | 253(40.2%) | 124(19.7%) | 34(5.4%) | 629(100.0%) | |

| | | 스마트폰 사용 시간대 | | | | | | 전체 | χ^2 |
|-----------|---------------|--------------|--------------------|------------------|----------------|-------------|----------------|--------------|-----------|
| | | 학교에서 일과 중 | 방과 후 오후 (4시~7시) | 지역시간 (7시~10시) | 밤 (10시~12시) | 밤 12시 이후 | 학교가기 전 이전시간 | | |
| 가정 형태 | 친부모 | 57(3.3%) | 510(29.9%) | 562(32.9%) | 369(21.6%) | 130(7.6%) | 79(4.6%) | 1707(100.0%) | 53.421*** |
| | 새부모 | 3(4.5%) | 15(22.7%) | 17(25.8%) | 21(31.8%) | 2(3.0%) | 8(12.1%) | 66(100.0%) | |
| | 조부모 | 8(2.6%) | 83(27.0%) | 112(36.5%) | 65(21.2%) | 17(5.5%) | 22(7.2%) | 307(100.0%) | |
| | 친척 | 2(4.1%) | 16(32.7%) | 21(42.9%) | 9(18.4%) | 0(0.0%) | 1(2.0%) | 49(100.0%) | |
| | 혈연이외 구성원 및 독거 | 9(12.7%) | 16(22.5%) | 25(35.2%) | 10(14.1%) | 10(14.1%) | 1(1.4%) | 71(100.0%) | |
| 경제 수준 | 매우 어려운 편이다 | 4(17.4%) | 1(4.3%) | 8(34.8%) | 6(26.1%) | 3(13.0%) | 1(4.3%) | 23(100.0%) | 77.290*** |
| | 아려운 편이다 | 15(8.9%) | 35(20.8%) | 40(23.8%) | 45(26.8%) | 20(11.9%) | 13(7.7%) | 168(100.0%) | |
| | 보통이다 | 61(3.1%) | 556(28.5%) | 649(33.3%) | 442(22.7%) | 134(6.9%) | 107(5.5%) | 1949(100.0%) | |
| | 잘사는 편이다 | 15(2.5%) | 181(30.6%) | 219(37.1%) | 107(18.1%) | 44(7.4%) | 25(4.2%) | 591(100.0%) | |
| | 매우 잘사는 편이다 | 10(9.3%) | 35(32.4%) | 39(36.1%) | 14(13.0%) | 3(2.8%) | 7(6.5%) | 108(100.0%) | |
| 국가 지원 | 없음 | 66(4.6%) | 392(27.2%) | 444(30.8%) | 343(23.8%) | 133(9.2%) | 63(4.4%) | 1441(100.0%) | 2.520 |
| | 있음 | 15(5.0%) | 72(23.8%) | 102(33.7%) | 76(25.1%) | 24(7.9%) | 14(4.6%) | 303(100.0%) | |
| 물질적 지원 | 전혀 받지 못하고 있다 | 12(13.6%) | 25(28.4%) | 25(28.4%) | 13(14.8%) | 7(8.0%) | 6(6.8%) | 88(100.0%) | 64.465*** |
| | 부족하다 | 12(7.8%) | 43(28.1%) | 43(28.1%) | 33(21.6%) | 17(11.1%) | 5(3.3%) | 153(100.0%) | |
| | 보통이다 | 33(4.6%) | 215(29.7%) | 244(33.7%) | 142(19.6%) | 38(5.2%) | 52(7.2%) | 724(100.0%) | |
| | 받고 있는 편이다 | 13(2.3%) | 167(29.0%) | 190(33.0%) | 140(24.3%) | 44(7.6%) | 22(3.8%) | 576(100.0%) | |
| | 충분히 받고 있다 | 35(2.7%) | 355(27.4%) | 453(34.9%) | 289(22.3%) | 99(7.6%) | 66(5.1%) | 1297(100.0%) | |
| 정서적 지원 | 전혀 받지 못하고 있다 | 14(13.1%) | 26(24.3%) | 27(25.2%) | 22(20.6%) | 11(10.3%) | 7(6.5%) | 107(100.0%) | 62.632*** |
| | 부족하다 | 7(4.2%) | 41(24.4%) | 52(31.0%) | 37(22.0%) | 19(11.3%) | 12(7.1%) | 168(100.0%) | |
| | 보통이다 | 35(4.0%) | 238(26.9%) | 296(33.4%) | 205(23.2%) | 55(6.2%) | 56(6.3%) | 885(100.0%) | |
| | 받고 있는 편이다 | 10(1.7%) | 154(26.3%) | 205(35.0%) | 144(24.6%) | 48(8.2%) | 25(4.3%) | 586(100.0%) | |
| | 충분히 받고 있다 | 37(3.4%) | 346(31.8%) | 373(34.3%) | 210(19.3%) | 70(6.4%) | 52(4.8%) | 1088(100.0%) | |

*** p<.001

⑥ 취침시간

취침시간은 성별, 나이, 소속, 지역, 가정형태, 경제수준, 물질적/정서적 지원에 따라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여학생과 16세 이상의 청소년들은 밤 2-4시에 취침하는 비율이 약간 높은 경향이 있었고, 학교밖 청소년은 밤 4시 이후에 취침하는 비율이 다소 높았다. 시단위에서는 밤 12시 이후에 취침하는 비율이 높았고, 경제수준이 낮고, 물질적/정서적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 밤 2-4시에 취침하는 비율이 높았다. 가정형태에 따라서는 혈연 이외의 구성원 및 독거하는 경우에 밤 2-4시에 취침하는 비율이 높았다.

< 표 15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취침시간 >

| 성별 | 취침시간 | | | | | | | | 전체 | χ^2 |
|---------------|------------|------------|------------|------------|-----------|--------------|-------------|--|----|----------|
| | 저녁 10시 이전 | 밤 10시~12시 | 밤 12시~2시 | 밤 2시~4시 | 밤 4시 이후 | | | | | |
| 남자 | 166(11.7%) | 717(50.5%) | 415(29.2%) | 105(7.4%) | 17(1.2%) | 1420(100.0%) | 10.433* | | | |
| 여자 | 137(9.6%) | 709(49.4%) | 422(29.4%) | 149(10.4%) | 17(1.2%) | 1434(100.0%) | | | | |
| 12세 | 121(38.2%) | 176(55.5%) | 12(3.8%) | 7(2.2%) | 1(0.3%) | 317(100.0%) | 856.139*** | | | |
| 13세 | 71(17.2%) | 276(67.0%) | 50(12.1%) | 13(3.2%) | 2(0.5%) | 412(100.0%) | | | | |
| 14세 | 40(12.1%) | 232(70.1%) | 47(14.2%) | 10(3.0%) | 2(0.6%) | 331(100.0%) | | | | |
| 15세 | 21(7.4%) | 162(57.4%) | 78(27.7%) | 19(6.7%) | 2(0.7%) | 282(100.0%) | | | | |
| 16세 | 16(4.4%) | 192(53.2%) | 113(31.3%) | 36(10.0%) | 4(1.1%) | 361(100.0%) | | | | |
| 17세 | 12(2.2%) | 186(33.8%) | 267(48.5%) | 79(14.3%) | 7(1.3%) | 551(100.0%) | | | | |
| 18세 | 19(4.4%) | 158(37.0%) | 195(45.7%) | 51(11.9%) | 4(0.9%) | 427(100.0%) | 185(100.0%) | | | |
| 19세 이상 | 4(2.2%) | 48(25.9%) | 79(42.7%) | 43(23.2%) | 11(5.9%) | | | | | |
| 초등학교 | 191(26.7%) | 441(61.7%) | 60(8.4%) | 20(2.8%) | 3(0.4%) | 715(100.0%) | 930(100.0%) | | | |
| 중학교 | 77(8.3%) | 573(61.6%) | 217(23.3%) | 55(5.9%) | 8(0.9%) | | | | | |
| 인문계 고등학교 | 18(2.2%) | 246(29.5%) | 421(50.4%) | 142(17.0%) | 8(1.0%) | 835(100.0%) | 849.865*** | | | |
| 전문계(실업계) 고등학교 | 13(5.2%) | 132(52.8%) | 91(36.4%) | 13(5.2%) | 1(0.4%) | 250(100.0%) | | | | |
| 학교에 다니고 있지 않음 | 5(3.8%) | 35(26.9%) | 49(37.7%) | 28(21.5%) | 13(10.0%) | 130(100.0%) | | | | |

| | 취침시간 | | | | | | 전체 | χ^2 |
|---------------|------------|-------------|------------|------------|----------|--------------|-----------|----------|
| | 저녁 10시 이전 | 밤 10시~12시 | 밤 12시~2시 | 밤 2시~4시 | 밤 4시 이후 | | | |
| 지역 | | | | | | | | |
| 시단위 | 234(10.5%) | 1072(48.0%) | 688(30.8%) | 210(9.4%) | 28(1.3%) | 2232(100.0%) | 17.494** | |
| 군단위 | 71(11.1%) | 359(56.4%) | 153(24.0%) | 49(7.7%) | 5(0.8%) | 637(100.0%) | | |
| 진부모 | 185(10.8%) | 854(49.8%) | 523(30.5%) | 146(8.5%) | 7(0.4%) | 1715(100.0%) | | |
| 세부모 | 6(8.8%) | 38(55.9%) | 16(23.5%) | 7(10.3%) | 1(1.5%) | 68(100.0%) | | |
| 조부모 | 40(12.9%) | 178(57.4%) | 64(20.6%) | 21(6.8%) | 7(2.3%) | 310(100.0%) | 62.004*** | |
| 친척 | 5(10.2%) | 28(57.1%) | 12(24.5%) | 4(8.2%) | 0(0.0%) | 49(100.0%) | | |
| 혈연이외 구성원 및 독거 | 4(5.6%) | 23(31.9%) | 26(36.1%) | 16(22.2%) | 3(4.2%) | 72(100.0%) | | |
| 매우 어려운 편이다 | 4(17.4%) | 8(34.8%) | 6(26.1%) | 3(13.0%) | 2(8.7%) | 23(100.0%) | | |
| 어려운 편이다 | 11(6.4%) | 69(40.1%) | 67(39.0%) | 20(11.6%) | 5(2.9%) | 172(100.0%) | | |
| 보통이다 | 176(9.0%) | 992(50.6%) | 599(30.5%) | 174(8.9%) | 21(1.1%) | 1962(100.0%) | 84.340*** | |
| 잘사는 편이다 | 83(13.9%) | 311(52.1%) | 149(25.0%) | 50(8.4%) | 4(0.7%) | 597(100.0%) | | |
| 매우 잘사는 편이다 | 30(27.5%) | 48(44.0%) | 20(18.3%) | 10(9.2%) | 1(0.9%) | 109(100.0%) | | |
| 국가 | | | | | | | | |
| 없음 | 134(9.2%) | 640(44.0%) | 502(34.5%) | 160(11.0%) | 20(1.4%) | 1456(100.0%) | 8.464 | |
| 있음 | 29(9.4%) | 162(52.4%) | 85(27.5%) | 30(9.7%) | 3(1.0%) | 309(100.0%) | | |
| 전혀 받지 못하고 있다 | 15(16.9%) | 38(42.7%) | 17(19.1%) | 14(15.7%) | 5(5.6%) | 89(100.0%) | | |
| 부족하다 | 13(8.2%) | 54(34.2%) | 59(37.3%) | 27(17.1%) | 5(3.2%) | 158(100.0%) | | |
| 보통이다 | 87(11.9%) | 381(52.1%) | 204(27.9%) | 52(7.1%) | 7(1.0%) | 731(100.0%) | 66.030*** | |
| 받고 있는 편이다 | 51(8.7%) | 300(51.5%) | 181(31.0%) | 47(8.1%) | 4(0.7%) | 583(100.0%) | | |
| 충분히 받고 있다 | 136(10.4%) | 656(50.4%) | 378(29.0%) | 119(9.1%) | 13(1.0%) | 1302(100.0%) | | |
| 전혀 받지 못하고 있다 | 15(14.0%) | 37(34.6%) | 29(27.1%) | 19(17.8%) | 7(6.5%) | 107(100.0%) | | |
| 부족하다 | 18(10.5%) | 59(34.3%) | 66(38.4%) | 23(13.4%) | 6(3.5%) | 172(100.0%) | | |
| 보통이다 | 82(9.2%) | 447(50.0%) | 276(30.9%) | 81(9.1%) | 8(0.9%) | 894(100.0%) | 87.215*** | |
| 받고 있는 편이다 | 50(8.5%) | 301(51.0%) | 184(31.2%) | 49(8.3%) | 6(1.0%) | 590(100.0%) | | |
| 충분히 받고 있다 | 137(12.5%) | 582(53.1%) | 285(26.0%) | 86(7.8%) | 7(0.6%) | 1097(100.0%) | | |

*** p<.001

⑦ 스마트폰 의존정도

스스로 생각하는 스마트폰 의존정도는 성별, 나이, 소속, 가정형태, 경제수준, 물질적/정서적 지원에 따라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높다고 생각하는 여학생 비율이 남학생 보다 높았고, 나이가 많을수록, 학년이 높아질수록 의존도가 높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다소 높은 경향이 있었다. 경제수준이 낮고, 물질적/정서적 지원을 받고 있지 못할수록 의존도가 매우 높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높았다. 가정형태에 따라서는 혈연 이외 구성원 및 독거하는 경우에 매우 높다는 응답 비율이 높았다.

<표 16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스마트폰 의존정도>

| 성별 | 스마트폰 의존정도 | | | | | | 진체 | χ^2 |
|---------------|-----------|------------|------------|------------|-----------|--------------|------------|-----------|
| | 매우 낮다 | 낮다 | 보통이다 | 높다 | 매우 높다 | 전체 | | |
| 남자 | 61(4.4%) | 143(10.2%) | 775(55.4%) | 329(23.5%) | 90(6.4%) | 1398(100.0%) | 42.035** | |
| 여자 | 30(2.1%) | 112(7.9%) | 708(49.7%) | 441(30.9%) | 134(9.4%) | 1425(100.0%) | | |
| 나이 | 20(6.4%) | 35(11.2%) | 205(65.7%) | 42(13.5%) | 10(3.2%) | 312(100.0%) | 117.364*** | |
| 13세 | 14(3.5%) | 44(11.0%) | 230(57.5%) | 91(22.8%) | 21(5.3%) | 400(100.0%) | | |
| 14세 | 7(2.1%) | 28(8.4%) | 193(58.1%) | 87(26.2%) | 17(5.1%) | 332(100.0%) | | |
| 15세 | 10(3.5%) | 21(7.4%) | 148(52.3%) | 82(29.0%) | 22(7.8%) | 283(100.0%) | | |
| 16세 | 8(2.3%) | 33(9.3%) | 174(49.2%) | 106(29.9%) | 33(9.3%) | 354(100.0%) | | |
| 17세 | 15(2.7%) | 39(7.1%) | 252(46.2%) | 191(35.0%) | 49(9.0%) | 546(100.0%) | | |
| 18세 | 13(3.1%) | 39(9.2%) | 206(48.6%) | 123(29.0%) | 43(10.1%) | 424(100.0%) | | |
| 19세 이상 | 5(2.7%) | 17(9.2%) | 80(43.2%) | 53(28.6%) | 30(16.2%) | 185(100.0%) | | |
| 초등학교 | 33(4.7%) | 78(11.2%) | 423(60.5%) | 133(19.0%) | 32(4.6%) | 699(100.0%) | | 96.990*** |
| 중학교 | 28(3.0%) | 82(8.9%) | 498(53.8%) | 255(27.6%) | 62(6.7%) | 925(100.0%) | | |
| 인문계 고등학교 | 26(3.1%) | 70(8.4%) | 369(44.5%) | 285(34.3%) | 80(9.6%) | 830(100.0%) | | |
| 전문계(실업계) 고등학교 | 3(1.2%) | 17(6.9%) | 131(53.0%) | 65(26.3%) | 31(12.6%) | 247(100.0%) | | |
| 학교에 다니고 있지 않음 | 2(1.5%) | 11(8.5%) | 64(49.2%) | 33(25.4%) | 20(15.4%) | 130(100.0%) | | |

| 지역 | 스마트폰 의존정도 | | | | 전체 | χ^2 | |
|--------|---------------|-----------|------------|-------------|------------|--------------|-----------|
| | 매우 낮다 | 낮다 | 보통이다 | 매우 높다 | | | |
| 지역 | 시단위 | 72(3.3%) | 208(9.4%) | 1143(51.8%) | 603(27.3%) | 2206(100.0%) | 2.099 |
| | 군단위 | 20(3.2%) | 52(8.2%) | 346(54.6%) | 170(26.8%) | 634(100.0%) | |
| 가정 형태 | 친부모 | 52(3.1%) | 154(9.0%) | 913(53.6%) | 453(26.6%) | 1702(100.0%) | 23.355 |
| | 새부모 | 2(3.1%) | 9(13.8%) | 29(44.6%) | 20(30.8%) | 65(100.0%) | |
| | 조부모 | 10(3.3%) | 24(7.8%) | 162(52.9%) | 87(28.4%) | 306(100.0%) | |
| | 친척 | 1(2.0%) | 3(6.1%) | 29(59.2%) | 13(26.5%) | 49(100.0%) | |
| | 혈연이외 구성원 및 독자 | 5(6.9%) | 7(9.7%) | 33(45.8%) | 13(18.1%) | 72(100.0%) | |
| 경제 수준 | 매우 어려운 편이다 | 1(4.3%) | 6(26.1%) | 10(43.5%) | 0(0.0%) | 23(100.0%) | 89.323*** |
| | 아려운 편이다 | 1(0.6%) | 18(10.6%) | 68(40.0%) | 57(33.5%) | 170(100.0%) | |
| | 보통이다 | 53(2.7%) | 168(8.7%) | 1033(53.2%) | 548(28.2%) | 1942(100.0%) | |
| | 잘사는 편이다 | 22(3.7%) | 56(9.5%) | 327(55.2%) | 143(24.2%) | 592(100.0%) | |
| | 매우 잘사는 편이다 | 14(13.2%) | 11(10.4%) | 47(44.3%) | 27(25.5%) | 106(100.0%) | |
| 국가 지원 | 없음 | 58(4.0%) | 135(9.4%) | 708(49.4%) | 414(28.9%) | 1434(100.0%) | 2.137 |
| | 있음 | 9(2.9%) | 32(10.4%) | 152(49.2%) | 85(27.5%) | 309(100.0%) | |
| 물질적 지원 | 전혀 받지 못하고 있다 | 3(3.4%) | 14(16.1%) | 34(39.1%) | 20(23.0%) | 87(100.0%) | 66.001*** |
| | 부족하다 | 5(3.2%) | 10(6.5%) | 71(46.1%) | 45(29.2%) | 154(100.0%) | |
| | 보통이다 | 16(2.2%) | 60(8.2%) | 435(59.7%) | 169(23.2%) | 729(100.0%) | |
| | 받고 있는 편이다 | 14(2.4%) | 39(6.8%) | 308(53.4%) | 176(30.5%) | 577(100.0%) | |
| | 충분히 받고 있다 | 54(4.2%) | 137(10.7%) | 635(49.4%) | 363(28.2%) | 1286(100.0%) | |
| 정서적 지원 | 전혀 받지 못하고 있다 | 4(3.8%) | 15(14.2%) | 46(43.4%) | 23(21.7%) | 106(100.0%) | 70.041*** |
| | 부족하다 | 1(0.6%) | 12(7.1%) | 75(44.6%) | 60(35.7%) | 168(100.0%) | |
| | 보통이다 | 28(3.1%) | 59(6.6%) | 506(56.9%) | 230(25.8%) | 890(100.0%) | |
| | 받고 있는 편이다 | 9(1.6%) | 45(7.8%) | 295(50.9%) | 181(31.2%) | 580(100.0%) | |
| | 충분히 받고 있다 | 50(4.6%) | 127(11.7%) | 562(51.7%) | 278(25.6%) | 1086(100.0%) | |

*** p<.001

⑧ 스마트폰 사용 만족도

스마트폰 사용에 대한 만족도는 성별, 나이, 소속, 경제수준, 물질적/정서적 지원에 따라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p < .05$). 여학생, 16세, 인문계 고등학교 학생들이 만족도가 가장 높았고, 경제수준이 높고, 물질적/정서적 지원을 충분히 받고 있을수록 만족도가 높았다.

<표 17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스마트폰 사용 만족도>

| | | N | 평균 | 표준편차 | t/F | p |
|--------|---------------|------|------|------|--------|------|
| 성별 | 남자 | 1429 | 3.55 | 0.68 | -2.442 | .015 |
| | 여자 | 1440 | 3.61 | 0.61 | | |
| 나이 | 12세 | 318 | 3.22 | 0.69 | 19.208 | .000 |
| | 13세 | 415 | 3.54 | 0.63 | | |
| | 14세 | 335 | 3.64 | 0.62 | | |
| | 15세 | 284 | 3.61 | 0.62 | | |
| | 16세 | 364 | 3.69 | 0.66 | | |
| | 17세 | 551 | 3.67 | 0.60 | | |
| | 18세 | 429 | 3.63 | 0.62 | | |
| | 19세 이상 | 186 | 3.53 | 0.64 | | |
| 소속 | 초등학교 | 719 | 3.40 | 0.68 | 22.740 | .000 |
| | 중학교 | 938 | 3.65 | 0.64 | | |
| | 인문계 고등학교 | 838 | 3.66 | 0.59 | | |
| | 전문계(실업계) 고등학교 | 251 | 3.59 | 0.65 | | |
| | 학교에 다니고 있지 않음 | 130 | 3.46 | 0.65 | | |
| 지역 | 시단위 | 2245 | 3.58 | 0.65 | .529 | .597 |
| | 군단위 | 640 | 3.57 | 0.64 | | |
| 가정 형태 | 친부모 | 1726 | 3.59 | 0.64 | .570 | .684 |
| | 새부모 | 68 | 3.50 | 0.71 | | |
| | 조부모 | 313 | 3.56 | 0.60 | | |
| | 친척 | 49 | 3.52 | 0.69 | | |
| | 혈연이외 구성원 및 독거 | 73 | 3.59 | 0.76 | | |
| 경제 수준 | 매우 어려운 편이다 | 24 | 3.33 | 0.73 | 2.831 | .023 |
| | 어려운 편이다 | 172 | 3.56 | 0.61 | | |
| | 보통이다 | 1971 | 3.56 | 0.62 | | |
| | 잘사는 편이다 | 603 | 3.64 | 0.69 | | |
| | 매우 잘사는 편이다 | 109 | 3.63 | 0.85 | | |
| 국가 지원 | 없음 | 1459 | 3.61 | 0.66 | .129 | .897 |
| | 있음 | 312 | 3.61 | 0.66 | | |
| 물질적 지원 | 전혀 받지 못하고 있다 | 90 | 3.35 | 0.67 | 9.332 | .000 |
| | 부족하다 | 159 | 3.54 | 0.69 | | |
| | 보통이다 | 733 | 3.49 | 0.60 | | |
| | 받고 있는 편이다 | 585 | 3.59 | 0.59 | | |
| | 충분히 받고 있다 | 1312 | 3.64 | 0.68 | | |
| 정서적 지원 | 전혀 받지 못하고 있다 | 108 | 3.47 | 0.73 | 7.349 | .000 |
| | 부족하다 | 172 | 3.48 | 0.62 | | |
| | 보통이다 | 900 | 3.51 | 0.61 | | |
| | 받고 있는 편이다 | 591 | 3.66 | 0.54 | | |
| | 충분히 받고 있다 | 1104 | 3.61 | 0.71 | | |

⑨스마트폰 중독정도

스마트폰 사용에 대한 중독정도는 성별, 나이, 소속, 지역, 경제수준, 물질적/정서적 지원에 따라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p < .05$). 여학생, 17세, 중학교와 인문계고등학교, 시단위의 고위험군이 상대적으로 많았으며, 경제수준이 보통과 잘사는 편인 경우, 물질적/정서적 지원을 보통이상으로 받고 있는 청소년들 중 고위험군 비율이 다소 높았다.

<표 18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스마트폰 중독정도>

| | | 스마트폰 중독정도 | | | 전체 | χ^2 |
|-----------|--------------------------------|-------------------------|------------------------|---------------------|----------------------------|-----------|
| | | 일반군 | 잠재적위험군 | 고위험군 | | |
| 성별 | 남자 | 1088(79.3%) | 254(18.5%) | 30(2.2%) | 1372(100.0%) | 46.799*** |
| | 여자 | 945(68.0%) | 385(27.7%) | 60(4.3%) | 1390(100.0%) | |
| 나이 | 12세 | 251(85.7%) | 39(13.3%) | 3(1.0%) | 293(100.0%) | 95.940*** |
| | 13세 | 317(80.7%) | 67(17.0%) | 9(2.3%) | 393(100.0%) | |
| | 14세 | 267(82.7%) | 47(14.6%) | 9(2.8%) | 323(100.0%) | |
| | 15세 | 172(62.5%) | 88(32.0%) | 15(5.5%) | 275(100.0%) | |
| | 16세 | 247(69.8%) | 97(27.4%) | 10(2.8%) | 354(100.0%) | |
| | 17세 | 347(64.4%) | 165(30.6%) | 27(5.0%) | 539(100.0%) | |
| | 18세 | 311(74.4%) | 98(23.4%) | 9(2.2%) | 418(100.0%) | |
| | 19세 이상 | 130(72.2%) | 41(22.8%) | 9(5.0%) | 180(100.0%) | |
| 소속 | 초등학교 | 557(82.9%) | 103(15.3%) | 12(1.8%) | 672(100.0%) | 58.881*** |
| | 중학교 | 663(73.1%) | 213(23.5%) | 31(3.4%) | 907(100.0%) | |
| | 인문계 고등학교 | 540(66.1%) | 246(30.1%) | 31(3.8%) | 817(100.0%) | |
| | 전문계(실업계) 고등학교 학교에 다니고 있지 않음 | 188(76.7%) 92(71.9%) | 47(19.2%) 29(22.7%) | 10(4.1%) 7(5.5%) | 245(100.0%) 128(100.0%) | |
| 지역 | 시단위 | 1559(72.2%) | 521(24.1%) | 78(3.6%) | 2158(100.0%) | 10.772** |
| | 군단위 | 487(78.5%) | 120(19.4%) | 13(2.1%) | 620(100.0%) | |
| 가정 형태 | 친부모 | 1210(72.6%) | 405(24.3%) | 51(3.1%) | 1666(100.0%) | 7.152 |
| | 새부모 | 48(72.7%) | 17(25.8%) | 1(1.5%) | 66(100.0%) | |
| | 조부모 | 235(77.6%) | 60(19.8%) | 8(2.6%) | 303(100.0%) | |
| | 친척 혈연이외 구성원 및 독거 | 39(79.6%) 57(79.2%) | 10(20.4%) 14(19.4%) | 0(0.0%) 1(1.4%) | 49(100.0%) 72(100.0%) | |
| 경제 수준 | 매우 어려운 편이다 | 20(83.3%) | 4(16.7%) | 0(0.0%) | 24(100.0%) | 25.125** |
| | 어려운 편이다 | 108(63.9%) | 54(32.0%) | 7(4.1%) | 169(100.0%) | |
| | 보통이다 | 1391(72.9%) | 456(23.9%) | 61(3.2%) | 1908(100.0%) | |
| | 잘사는 편이다 | 434(76.4%) | 115(20.2%) | 19(3.3%) | 568(100.0%) | |
| | 매우 잘사는 편이다 | 90(87.4%) | 9(8.7%) | 4(3.9%) | 103(100.0%) | |
| 국가 지원 | 없음 | 1014(72.1%) | 344(24.5%) | 48(3.4%) | 1406(100.0%) | .047 |
| | 있음 | 218(72.2%) | 73(24.2%) | 11(3.6%) | 302(100.0%) | |
| 물질적 지원 | 전혀 받지 못하고 있다 | 58(68.2%) | 24(28.2%) | 3(3.5%) | 85(100.0%) | 16.931* |
| | 부족하다 | 105(69.1%) | 38(25.0%) | 9(5.9%) | 152(100.0%) | |
| | 보통이다 | 540(76.1%) | 155(21.8%) | 15(2.1%) | 710(100.0%) | |
| | 받고 있는 편이다 | 398(70.1%) | 142(25.0%) | 28(4.9%) | 568(100.0%) | |
| | 충분히 받고 있다 | 940(74.7%) | 282(22.4%) | 36(2.9%) | 1258(100.0%) | |
| 정서적 지원 | 전혀 받지 못하고 있다 | 69(66.3%) | 28(26.9%) | 7(6.7%) | 104(100.0%) | 41.284*** |
| | 부족하다 | 98(58.3%) | 56(33.3%) | 14(8.3%) | 168(100.0%) | |
| | 보통이다 | 644(73.9%) | 201(23.1%) | 27(3.1%) | 872(100.0%) | |
| | 받고 있는 편이다 | 410(72.1%) | 141(24.8%) | 18(3.2%) | 569(100.0%) | |
| | 충분히 받고 있다 | 819(77.6%) | 212(20.1%) | 25(2.4%) | 1056(100.0%) | |

*** $p < .001$

2) 청소년 정신병리

(1) 청소년 정신병리의 전반적 특성

조사 대상자들의 정신병리 하위 요인들의 평균 점수는 모두 2.5점 미만으로 보통 수준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19. 청소년 정신병리의 전반적 특성>

| | N | 평균 | 표준편차 |
|-----|------|------|------|
| 불안 | 3030 | 2.42 | 0.97 |
| 우울 | 3030 | 1.86 | 0.83 |
| 충동성 | 3030 | 2.01 | 0.82 |
| 공격성 | 3030 | 1.99 | 0.87 |

(2)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청소년 정신병리

① 불안

성별, 나이, 소속, 경제수준, 국가지원 여부, 물질적/정서적 지원에 따라 청소년들의 불안 수준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 < .05$). 여학생, 19세 이상, 학교밖 청소년, 경제수준이 매우 어려운 편, 국가지원이 있는 학생, 물질적/정서적 지원이 부족한 학생들의 불안이 가장 높은 경향이 있었다.

<표 20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불안>

| | | N | 평균 | 표준편차 | t/F | p |
|----|--------|------|------|------|--------|------|
| 성별 | 남자 | 1514 | 2.25 | 0.93 | -9.781 | .000 |
| | 여자 | 1494 | 2.59 | 1.00 | | |
| 나이 | 12세 | 339 | 2.04 | 0.92 | 23.416 | .000 |
| | 13세 | 434 | 2.12 | 0.90 | | |
| | 14세 | 347 | 2.30 | 0.98 | | |
| | 15세 | 292 | 2.57 | 0.98 | | |
| | 16세 | 371 | 2.57 | 1.00 | | |
| | 17세 | 578 | 2.56 | 0.93 | | |
| | 18세 | 450 | 2.56 | 0.96 | | |
| | 19세 이상 | 210 | 2.73 | 0.95 | | |

| | | N | 평균 | 표준편차 | t/F | p |
|-------|---------------|------|------|------|--------|------|
| 소속 | 초등학교 | 758 | 2.08 | 0.91 | 41.083 | .000 |
| | 중학교 | 962 | 2.45 | 1.00 | | |
| | 인문계 고등학교 | 900 | 2.63 | 0.92 | | |
| | 전문계(실업계) 고등학교 | 260 | 2.36 | 0.89 | | |
| | 학교에 다니고 있지 않음 | 134 | 2.83 | 1.09 | | |
| 지역 | 시단위 | 2352 | 2.42 | 0.97 | .445 | .656 |
| | 군단위 | 672 | 2.41 | 0.98 | | |
| 가정태 | 친부모 | 1782 | 2.39 | 0.97 | 2.222 | .064 |
| | 새부모 | 73 | 2.54 | 0.95 | | |
| | 조부모 | 330 | 2.42 | 0.96 | | |
| | 친척 | 51 | 2.67 | 0.95 | | |
| | 혈연이외 구성원 및 독거 | 93 | 2.58 | 0.98 | | |
| 경제수준 | 매우 어려운 편이다 | 30 | 2.87 | 1.15 | 19.309 | .000 |
| | 어려운 편이다 | 186 | 2.83 | 1.02 | | |
| | 보통이다 | 2049 | 2.45 | 0.95 | | |
| | 잘사는 편이다 | 633 | 2.24 | 0.97 | | |
| | 매우 잘사는 편이다 | 119 | 2.10 | 1.05 | | |
| 국가지원 | 없음 | 1525 | 2.45 | 0.99 | -2.474 | .013 |
| | 있음 | 326 | 2.60 | 0.99 | | |
| 물질적지원 | 전혀 받지 못하고 있다 | 103 | 2.60 | 1.06 | 10.173 | .000 |
| | 부족하다 | 170 | 2.74 | 1.08 | | |
| | 보통이다 | 764 | 2.41 | 0.89 | | |
| | 받고 있는 편이다 | 613 | 2.51 | 0.95 | | |
| | 충분히 받고 있다 | 1368 | 2.33 | 0.99 | | |
| 정서적지원 | 전혀 받지 못하고 있다 | 118 | 2.95 | 1.07 | 46.276 | .000 |
| | 부족하다 | 185 | 2.98 | 0.93 | | |
| | 보통이다 | 945 | 2.48 | 0.94 | | |
| | 받고 있는 편이다 | 616 | 2.51 | 0.89 | | |
| | 충분히 받고 있다 | 1149 | 2.18 | 0.97 | | |

② 우울

성별, 나이, 소속, 가정형태, 경제수준, 국가지원 여부, 물질적/정서적 지원에 따라 청소년들의 우울 수준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 < .05$). 여학생, 19세 이상, 학교밖 청소년, 혈연 이외의 구성원과 살거나 독거하는 경우, 경제수준이 매우 어려운 편인 경우, 국가지원이 있는 경우, 물질적 지원이 부족한 경우와 정서적 지원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는 학생의 우울 수준이 가장 높은 경향이 있었다.

<표 21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우울>

| | | N | 평균 | 표준편차 | t/F | p |
|--------|---------------|------|------|------|---------|------|
| 성별 | 남자 | 1514 | 1.78 | 0.81 | -4.818 | .000 |
| | 여자 | 1494 | 1.93 | 0.84 | | |
| 나이 | 12세 | 339 | 1.58 | 0.73 | 19.152 | .000 |
| | 13세 | 434 | 1.62 | 0.72 | | |
| | 14세 | 347 | 1.75 | 0.79 | | |
| | 15세 | 292 | 1.97 | 0.84 | | |
| | 16세 | 371 | 1.93 | 0.84 | | |
| | 17세 | 578 | 1.95 | 0.81 | | |
| | 18세 | 450 | 2.00 | 0.86 | | |
| | 19세 이상 | 210 | 2.12 | 0.91 | | |
| 소속 | 초등학교 | 758 | 1.61 | 0.73 | 33.501 | .000 |
| | 중학교 | 962 | 1.86 | 0.83 | | |
| | 인문계 고등학교 | 900 | 1.98 | 0.81 | | |
| | 전문계(실업계) 고등학교 | 260 | 1.92 | 0.85 | | |
| | 학교에 다니고 있지 않음 | 134 | 2.29 | 0.97 | | |
| 지역 | 시단위 | 2352 | 1.85 | 0.82 | -.454 | .650 |
| | 군단위 | 672 | 1.87 | 0.84 | | |
| 가정형태 | 친부모 | 1782 | 1.78 | 0.77 | 8.172 | .000 |
| | 새부모 | 73 | 2.05 | 0.82 | | |
| | 조부모 | 330 | 1.88 | 0.83 | | |
| | 친척 | 51 | 1.97 | 0.96 | | |
| | 혈연이외 구성원 및 독거 | 93 | 2.17 | 1.03 | | |
| 경제수준 | 매우 어려운 편이다 | 30 | 2.56 | 1.17 | 32.869 | .000 |
| | 어려운 편이다 | 186 | 2.35 | 0.93 | | |
| | 보통이다 | 2049 | 1.87 | 0.80 | | |
| | 잘사는 편이다 | 633 | 1.68 | 0.75 | | |
| | 매우 잘사는 편이다 | 119 | 1.66 | 0.85 | | |
| 국가지원 | 없음 | 1525 | 1.86 | 0.81 | -2.635 | .008 |
| | 있음 | 326 | 1.99 | 0.87 | | |
| 물질적 지원 | 전혀 받지 못하고 있다 | 103 | 2.30 | 1.05 | 38.922 | .000 |
| | 부족하다 | 170 | 2.35 | 0.94 | | |
| | 보통이다 | 764 | 1.92 | 0.78 | | |
| | 받고 있는 편이다 | 613 | 1.92 | 0.83 | | |
| | 충분히 받고 있다 | 1368 | 1.70 | 0.77 | | |
| 정서적 지원 | 전혀 받지 못하고 있다 | 118 | 2.63 | 1.13 | 114.243 | .000 |
| | 부족하다 | 185 | 2.51 | 0.84 | | |
| | 보통이다 | 945 | 1.98 | 0.82 | | |
| | 받고 있는 편이다 | 616 | 1.90 | 0.75 | | |
| | 충분히 받고 있다 | 1149 | 1.55 | 0.67 | | |

③ 충동성

나이, 소속, 가정형태, 경제수준, 물질적/정서적 지원에 따라 청소년들의 충동성 수준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 < .05$). 19세 이상, 학교밖 청소년, 혈연 이외 구성원과 살거나 독거하는 경우, 경제수준이 매우 어려운 편인 경우, 물질적/정서적 지원이 부족한 경우 충동성이 가장 높은 경향이 있었다.

<표 22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충동성>

| | | N | 평균 | 표준편차 | t/F | p |
|--------|---------------|------|------|------|--------|------|
| 성별 | 남자 | 1514 | 1.99 | 0.82 | -1.327 | .185 |
| | 여자 | 1494 | 2.03 | 0.81 | | |
| 나이 | 12세 | 339 | 1.75 | 0.72 | 21.868 | .000 |
| | 13세 | 434 | 1.80 | 0.70 | | |
| | 14세 | 347 | 1.86 | 0.79 | | |
| | 15세 | 292 | 2.09 | 0.82 | | |
| | 16세 | 371 | 2.02 | 0.80 | | |
| | 17세 | 578 | 2.13 | 0.83 | | |
| | 18세 | 450 | 2.17 | 0.84 | | |
| | 19세 이상 | 210 | 2.35 | 0.89 | | |
| 소속 | 초등학교 | 758 | 1.77 | 0.71 | 37.210 | .000 |
| | 중학교 | 962 | 1.96 | 0.80 | | |
| | 인문계 고등학교 | 900 | 2.19 | 0.84 | | |
| | 전문계(실업계) 고등학교 | 260 | 2.08 | 0.83 | | |
| | 학교에 다니고 있지 않음 | 134 | 2.39 | 0.89 | | |
| 지역 | 시단위 | 2352 | 2.02 | 0.81 | .499 | .618 |
| | 군단위 | 672 | 2.00 | 0.83 | | |
| 가정형태 | 친부모 | 1782 | 1.96 | 0.79 | 5.838 | .000 |
| | 새부모 | 73 | 2.16 | 0.80 | | |
| | 조부모 | 330 | 2.03 | 0.83 | | |
| | 친척 | 51 | 2.06 | 0.83 | | |
| | 혈연이외 구성원 및 독거 | 93 | 2.33 | 0.94 | | |
| 경제수준 | 매우 어려운 편이다 | 30 | 2.61 | 1.01 | 20.880 | .000 |
| | 어려운 편이다 | 186 | 2.34 | 0.86 | | |
| | 보통이다 | 2049 | 2.03 | 0.81 | | |
| | 잘사는 편이다 | 633 | 1.87 | 0.77 | | |
| | 매우 잘사는 편이다 | 119 | 1.71 | 0.77 | | |
| 국가지원 | 없음 | 1525 | 2.03 | 0.81 | -1.459 | .145 |
| | 있음 | 326 | 2.10 | 0.83 | | |
| 물질적 지원 | 전혀 받지 못하고 있다 | 103 | 2.32 | 0.92 | 19.447 | .000 |
| | 부족하다 | 170 | 2.33 | 0.87 | | |
| | 보통이다 | 764 | 2.06 | 0.79 | | |
| | 받고 있는 편이다 | 613 | 2.08 | 0.81 | | |
| | 충분히 받고 있다 | 1368 | 1.89 | 0.80 | | |
| 정서적 지원 | 전혀 받지 못하고 있다 | 118 | 2.52 | 0.93 | 61.611 | .000 |
| | 부족하다 | 185 | 2.52 | 0.82 | | |
| | 보통이다 | 945 | 2.11 | 0.80 | | |
| | 받고 있는 편이다 | 616 | 2.05 | 0.79 | | |
| | 충분히 받고 있다 | 1149 | 1.77 | 0.75 | | |

④ 공격성

나이, 소속, 가정형태, 경제수준, 국가지원 여부, 물질적/정서적 지원에 따라 청소년들의 공격성 수준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 < .05$). 19세 이상, 학교밖 청소년, 혈연 이외 구성원과 살거나 독거하는 경우, 경제수준이 매우 어려운 편인 경우, 국가 지원이 있는 경우, 물질적 지원이 부족한 경우와 정서적 지원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는 경우 공격성이 가장 높은 경향이 있었다.

<표 23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공격성>

| | | N | 평균 | 표준편차 | t/F | p |
|--------|---------------|------|------|------|--------|------|
| 성별 | 남자 | 1514 | 1.98 | 0.87 | -.914 | .361 |
| | 여자 | 1494 | 2.00 | 0.87 | | |
| 나이 | 12세 | 339 | 1.77 | 0.84 | 9.432 | .000 |
| | 13세 | 434 | 1.83 | 0.79 | | |
| | 14세 | 347 | 1.95 | 0.85 | | |
| | 15세 | 292 | 2.12 | 0.87 | | |
| | 16세 | 371 | 1.99 | 0.85 | | |
| | 17세 | 578 | 2.04 | 0.89 | | |
| | 18세 | 450 | 2.12 | 0.90 | | |
| | 19세 이상 | 210 | 2.18 | 0.93 | | |
| 소속 | 초등학교 | 758 | 1.80 | 0.82 | 15.159 | .000 |
| | 중학교 | 962 | 2.00 | 0.85 | | |
| | 인문계 고등학교 | 900 | 2.09 | 0.89 | | |
| | 전문계(실업계) 고등학교 | 260 | 2.02 | 0.88 | | |
| | 학교에 다니고 있지 않음 | 134 | 2.26 | 0.98 | | |
| 지역 | 시단위 | 2352 | 1.99 | 0.88 | -.382 | .702 |
| | 군단위 | 672 | 2.00 | 0.86 | | |
| 가정형태 | 친부모 | 1782 | 1.93 | 0.84 | 3.801 | .004 |
| | 새부모 | 73 | 2.15 | 0.92 | | |
| | 조부모 | 330 | 2.02 | 0.89 | | |
| | 친척 | 51 | 2.08 | 0.91 | | |
| | 혈연이외 구성원 및 독거 | 93 | 2.19 | 0.96 | | |
| 경제수준 | 매우 어려운 편이다 | 30 | 2.53 | 1.13 | 19.058 | .000 |
| | 어려운 편이다 | 186 | 2.38 | 0.96 | | |
| | 보통이다 | 2049 | 2.00 | 0.86 | | |
| | 잘사는 편이다 | 633 | 1.86 | 0.83 | | |
| | 매우 잘사는 편이다 | 119 | 1.73 | 0.85 | | |
| 국가지원 | 없음 | 1525 | 1.98 | 0.87 | -2.370 | .018 |
| | 있음 | 326 | 2.10 | 0.92 | | |
| 물질적 지원 | 전혀 받지 못하고 있다 | 103 | 2.27 | 0.97 | 23.560 | .000 |
| | 부족하다 | 170 | 2.40 | 1.04 | | |
| | 보통이다 | 764 | 2.05 | 0.83 | | |
| | 받고 있는 편이다 | 613 | 2.07 | 0.86 | | |
| | 충분히 받고 있다 | 1368 | 1.85 | 0.84 | | |
| 정서적 지원 | 전혀 받지 못하고 있다 | 118 | 2.64 | 1.08 | 70.491 | .000 |
| | 부족하다 | 185 | 2.52 | 0.90 | | |
| | 보통이다 | 945 | 2.10 | 0.84 | | |
| | 받고 있는 편이다 | 616 | 2.04 | 0.83 | | |
| | 충분히 받고 있다 | 1149 | 1.72 | 0.79 | | |

3) 청소년 사이버 일탈행동

(1) 청소년 사이버 일탈행동의 전반적 특성

조사 대상자들의 사이버 일탈행동의 하위요인 평균 점수는 모두 2점미만으로 낮은 수준이었다.

<표 24 청소년 사이버 일탈행동의 전반적 특성>

| | N | 평균 | 표준편차 |
|--------|------|------|------|
| 게임중독 | 2864 | 1.48 | 0.59 |
| 채팅언어폭력 | 2866 | 1.60 | 0.69 |
| 사이버사기 | 2857 | 1.35 | 0.55 |
| 성적일탈 | 2870 | 1.29 | 0.53 |
| 불법정보유출 | 2862 | 1.29 | 0.51 |
| 도박문제 | 2873 | 1.25 | 0.57 |

(2)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청소년 사이버 일탈행동

① 게임중독

성별, 나이, 소속, 지역, 가정형태, 경제수준, 물질적/정서적 지원에 따라 청소년들의 게임 중독 수준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 < .05$). 남학생, 19세 이상, 학교밖 청소년, 군단위, 혈연 이외 구성원과 살거나 독거하는 경우, 경제수준이 매우 어려운 경우, 물질적/정서적 지원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는 경우 게임중독 수준이 가장 높은 경향이 있었다.

<표 25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게임중독>

| | | N | 평균 | 표준편차 | t/F | p |
|----|--------|------|------|------|--------|------|
| 성별 | 남자 | 1413 | 1.64 | 0.63 | 16.130 | .000 |
| | 여자 | 1429 | 1.31 | 0.48 | | |
| 나이 | 12세 | 315 | 1.38 | 0.46 | 5.212 | .000 |
| | 13세 | 414 | 1.39 | 0.47 | | |
| | 14세 | 330 | 1.43 | 0.51 | | |
| | 15세 | 280 | 1.50 | 0.62 | | |
| | 16세 | 359 | 1.52 | 0.64 | | |
| | 17세 | 549 | 1.48 | 0.57 | | |
| | 18세 | 424 | 1.56 | 0.65 | | |
| | 19세 이상 | 184 | 1.58 | 0.77 | | |

| | | N | 평균 | 표준편차 | t/F | p |
|-----------|---------------|------|------|------|--------|------|
| 소속 | 초등학교 | 715 | 1.39 | 0.47 | 16.003 | .000 |
| | 중학교 | 924 | 1.47 | 0.58 | | |
| | 인문계 고등학교 | 837 | 1.47 | 0.59 | | |
| | 전문계(실업계) 고등학교 | 245 | 1.63 | 0.61 | | |
| | 학교에 다니고 있지 않음 | 128 | 1.76 | 0.88 | | |
| 지역 | 시단위 | 2224 | 1.46 | 0.57 | -2.859 | .004 |
| | 군단위 | 634 | 1.53 | 0.62 | | |
| 가정 형태 | 친부모 | 1711 | 1.41 | 0.52 | 11.106 | .000 |
| | 새부모 | 68 | 1.61 | 0.69 | | |
| | 조부모 | 308 | 1.50 | 0.58 | | |
| | 친척 | 48 | 1.54 | 0.58 | | |
| | 혈연이외 구성원 및 독거 | 73 | 1.79 | 0.85 | | |
| 경제 수준 | 매우 어려운 편이다 | 24 | 2.01 | 1.07 | 10.353 | .000 |
| | 어려운 편이다 | 170 | 1.63 | 0.68 | | |
| | 보통이다 | 1952 | 1.48 | 0.57 | | |
| | 잘사는 편이다 | 597 | 1.40 | 0.52 | | |
| | 매우 잘사는 편이다 | 109 | 1.51 | 0.71 | | |
| 국가 지원 | 없음 | 1448 | 1.46 | 0.59 | -1.677 | .094 |
| | 있음 | 309 | 1.52 | 0.66 | | |
| 물질적 지원 | 전혀 받지 못하고 있다 | 88 | 1.93 | 0.92 | 32.397 | .000 |
| | 부족하다 | 156 | 1.71 | 0.74 | | |
| | 보통이다 | 725 | 1.55 | 0.59 | | |
| | 받고 있는 편이다 | 581 | 1.47 | 0.55 | | |
| | 충분히 받고 있다 | 1302 | 1.38 | 0.52 | | |
| 정서적 지원 | 전혀 받지 못하고 있다 | 106 | 1.98 | 0.97 | 47.977 | .000 |
| | 부족하다 | 170 | 1.59 | 0.63 | | |
| | 보통이다 | 888 | 1.58 | 0.61 | | |
| | 받고 있는 편이다 | 588 | 1.46 | 0.54 | | |
| | 충분히 받고 있다 | 1096 | 1.33 | 0.48 | | |

② 채팅언어폭력

성별, 나이, 소속, 가정형태, 경제수준, 물질적/정서적 지원에 따라 청소년들의 채팅언어폭력 수준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 < .05$). 남학생, 19세 이상, 학교밖 청소년, 혈연이외 구성원과 살거나 독거하는 경우, 경제수준이 매우 어려운 경우, 물질적/정서적 지원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는 경우 채팅언어폭력 수준이 가장 높은 경향이 있었다.

<표 26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채팅언어폭력>

| | | N | 평균 | 표준편차 | t/F | p |
|--------|---------------|------|------|------|--------|------|
| 성별 | 남자 | 1415 | 1.73 | 0.76 | 10.703 | .000 |
| | 여자 | 1429 | 1.46 | 0.58 | | |
| 나이 | 12세 | 312 | 1.39 | 0.56 | 10.824 | .000 |
| | 13세 | 413 | 1.48 | 0.57 | | |
| | 14세 | 332 | 1.51 | 0.57 | | |
| | 15세 | 281 | 1.66 | 0.72 | | |
| | 16세 | 362 | 1.61 | 0.71 | | |
| | 17세 | 549 | 1.68 | 0.74 | | |
| | 18세 | 424 | 1.72 | 0.73 | | |
| | 19세 이상 | 184 | 1.71 | 0.89 | | |
| 소속 | 초등학교 | 711 | 1.45 | 0.57 | 19.575 | .000 |
| | 중학교 | 931 | 1.59 | 0.68 | | |
| | 인문계 고등학교 | 833 | 1.65 | 0.74 | | |
| | 전문계(실업계) 고등학교 | 247 | 1.77 | 0.69 | | |
| | 학교에 다니고 있지 않음 | 130 | 1.88 | 0.92 | | |
| 지역 | 시단위 | 2227 | 1.59 | 0.69 | -1.577 | .115 |
| | 군단위 | 633 | 1.64 | 0.68 | | |
| 가정형태 | 친부모 | 1712 | 1.54 | 0.64 | 7.169 | .000 |
| | 새부모 | 68 | 1.83 | 0.87 | | |
| | 조부모 | 311 | 1.59 | 0.70 | | |
| | 친척 | 48 | 1.69 | 0.77 | | |
| | 혈연이외 구성원 및 독거 | 72 | 1.85 | 0.87 | | |
| 경제수준 | 매우 어려운 편이다 | 24 | 2.13 | 1.10 | 7.398 | .000 |
| | 어려운 편이다 | 171 | 1.77 | 0.81 | | |
| | 보통이다 | 1951 | 1.59 | 0.68 | | |
| | 잘사는 편이다 | 599 | 1.54 | 0.65 | | |
| | 매우 잘사는 편이다 | 109 | 1.60 | 0.83 | | |
| 국가 지원 | 없음 | 1448 | 1.60 | 0.71 | -1.577 | .115 |
| | 있음 | 309 | 1.67 | 0.78 | | |
| 물질적 지원 | 전혀 받지 못하고 있다 | 90 | 1.99 | 1.05 | 23.178 | .000 |
| | 부족하다 | 152 | 1.93 | 0.88 | | |
| | 보통이다 | 725 | 1.65 | 0.66 | | |
| | 받고 있는 편이다 | 583 | 1.59 | 0.67 | | |
| | 충분히 받고 있다 | 1304 | 1.51 | 0.64 | | |
| 정서적 지원 | 전혀 받지 못하고 있다 | 107 | 2.10 | 1.01 | 37.360 | .000 |
| | 부족하다 | 170 | 1.75 | 0.75 | | |
| | 보통이다 | 887 | 1.71 | 0.70 | | |
| | 받고 있는 편이다 | 591 | 1.59 | 0.67 | | |
| | 충분히 받고 있다 | 1095 | 1.44 | 0.60 | | |

③ 사이버사기

성별, 나이, 소속, 가정형태, 경제수준, 물질적/정서적 지원에 따라 청소년들의 사이버사기 수준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 < .05$). 남학생, 19세 이상, 학교밖 청소년, 혈연이외 구성원과 살거나 독거하는 경우, 경제수준이 매우 어려운 경우, 물질적/정서적 지원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는 경우 사이버사기 수준이 가장 높은 경향이 있었다.

<표 27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사이버사기>

| | | N | 평균 | 표준편차 | t/F | p |
|--------|---------------|------|------|------|--------|------|
| 성별 | 남자 | 1407 | 1.48 | 0.62 | 12.889 | .000 |
| | 여자 | 1428 | 1.22 | 0.44 | | |
| 나이 | 12세 | 315 | 1.22 | 0.42 | 14.637 | .000 |
| | 13세 | 410 | 1.23 | 0.41 | | |
| | 14세 | 330 | 1.26 | 0.42 | | |
| | 15세 | 276 | 1.35 | 0.54 | | |
| | 16세 | 361 | 1.40 | 0.59 | | |
| | 17세 | 548 | 1.39 | 0.57 | | |
| | 18세 | 426 | 1.49 | 0.63 | | |
| | 19세 이상 | 182 | 1.53 | 0.76 | | |
| 소속 | 초등학교 | 711 | 1.23 | 0.42 | 24.532 | .000 |
| | 중학교 | 922 | 1.33 | 0.52 | | |
| | 인문계 고등학교 | 832 | 1.40 | 0.59 | | |
| | 전문계(실업계) 고등학교 | 248 | 1.50 | 0.60 | | |
| | 학교에 다니고 있지 않음 | 129 | 1.63 | 0.81 | | |
| 지역 | 시단위 | 2221 | 1.35 | 0.55 | -.797 | .426 |
| | 군단위 | 630 | 1.37 | 0.55 | | |
| 가정형태 | 친부모 | 1705 | 1.30 | 0.50 | 8.367 | .000 |
| | 새부모 | 68 | 1.49 | 0.69 | | |
| | 조부모 | 310 | 1.31 | 0.49 | | |
| | 친척 | 47 | 1.36 | 0.58 | | |
| | 혈연이외 구성원 및 독거 | 72 | 1.62 | 0.82 | | |
| 경제수준 | 매우 어려운 편이다 | 24 | 1.96 | 0.96 | 12.996 | .000 |
| | 어려운 편이다 | 170 | 1.50 | 0.64 | | |
| | 보통이다 | 1946 | 1.35 | 0.53 | | |
| | 잘사는 편이다 | 598 | 1.28 | 0.50 | | |
| | 매우 잘사는 편이다 | 107 | 1.39 | 0.69 | | |
| 국가지원 | 없음 | 1441 | 1.36 | 0.56 | -1.235 | .217 |
| | 있음 | 309 | 1.40 | 0.60 | | |
| 물질적 지원 | 전혀 받지 못하고 있다 | 87 | 1.76 | 0.91 | 30.775 | .000 |
| | 부족하다 | 154 | 1.63 | 0.74 | | |
| | 보통이다 | 724 | 1.40 | 0.56 | | |
| | 받고 있는 편이다 | 582 | 1.32 | 0.50 | | |
| | 충분히 받고 있다 | 1298 | 1.28 | 0.48 | | |
| 정서적 지원 | 전혀 받지 못하고 있다 | 107 | 1.80 | 0.94 | 45.430 | .000 |
| | 부족하다 | 171 | 1.45 | 0.55 | | |
| | 보통이다 | 886 | 1.45 | 0.60 | | |
| | 받고 있는 편이다 | 585 | 1.36 | 0.53 | | |
| | 충분히 받고 있다 | 1092 | 1.22 | 0.41 | | |

④ 성적일탈

성별, 나이, 소속, 가정형태, 경제수준, 물질적/정서적 지원에 따라 청소년들의 성적일탈 수준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 < .05$). 남학생, 19세 이상, 학교밖 청소년, 혈연 이외 구성원과 살거나 독거하는 경우, 경제수준이 매우 어려운 경우, 물질적/정서적 지원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는 경우 채팅언어폭력 수준이 가장 높은 경향이 있었다.

<표 28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성적일탈>

| | | N | 평균 | 표준편차 | t/F | p |
|--------|---------------|------|------|------|--------|------|
| 성별 | 남자 | 1412 | 1.41 | 0.61 | 12.652 | .000 |
| | 여자 | 1436 | 1.17 | 0.39 | | |
| 나이 | 12세 | 315 | 1.11 | 0.31 | 24.259 | .000 |
| | 13세 | 413 | 1.12 | 0.34 | | |
| | 14세 | 329 | 1.21 | 0.42 | | |
| | 15세 | 281 | 1.29 | 0.52 | | |
| | 16세 | 361 | 1.32 | 0.54 | | |
| | 17세 | 551 | 1.35 | 0.57 | | |
| | 18세 | 425 | 1.45 | 0.59 | | |
| | 19세 이상 | 186 | 1.49 | 0.76 | | |
| 소속 | 초등학교 | 713 | 1.12 | 0.33 | 41.494 | .000 |
| | 중학교 | 927 | 1.27 | 0.50 | | |
| | 인문계 고등학교 | 837 | 1.36 | 0.58 | | |
| | 전문계(실업계) 고등학교 | 248 | 1.46 | 0.58 | | |
| | 학교에 다니고 있지 않음 | 130 | 1.58 | 0.80 | | |
| 지역 | 시단위 | 2230 | 1.29 | 0.53 | -.680 | .497 |
| | 군단위 | 634 | 1.30 | 0.53 | | |
| 가정형태 | 친부모 | 1713 | 1.25 | 0.47 | 17.583 | .000 |
| | 새부모 | 68 | 1.42 | 0.66 | | |
| | 조부모 | 311 | 1.26 | 0.48 | | |
| | 친척 | 47 | 1.21 | 0.40 | | |
| | 혈연이외 구성원 및 독거 | 73 | 1.72 | 0.89 | | |
| 경제수준 | 매우 어려운 편이다 | 24 | 1.92 | 1.08 | 14.724 | .000 |
| | 어려운 편이다 | 172 | 1.43 | 0.62 | | |
| | 보통이다 | 1956 | 1.28 | 0.50 | | |
| | 잘사는 편이다 | 597 | 1.23 | 0.48 | | |
| | 매우 잘사는 편이다 | 109 | 1.36 | 0.74 | | |
| 국가지원 | 없음 | 1453 | 1.31 | 0.55 | -.852 | .394 |
| | 있음 | 311 | 1.34 | 0.61 | | |
| 물질적 지원 | 전혀 받지 못하고 있다 | 90 | 1.63 | 0.93 | 25.000 | .000 |
| | 부족하다 | 156 | 1.51 | 0.67 | | |
| | 보통이다 | 726 | 1.35 | 0.54 | | |
| | 받고 있는 편이다 | 584 | 1.25 | 0.47 | | |
| | 충분히 받고 있다 | 1302 | 1.22 | 0.46 | | |
| 정서적 지원 | 전혀 받지 못하고 있다 | 108 | 1.73 | 0.93 | 33.360 | .000 |
| | 부족하다 | 171 | 1.35 | 0.52 | | |
| | 보통이다 | 888 | 1.34 | 0.54 | | |
| | 받고 있는 편이다 | 590 | 1.30 | 0.53 | | |
| | 충분히 받고 있다 | 1097 | 1.19 | 0.42 | | |

⑤ 불법정보유출

성별, 나이, 소속, 가정형태, 경제수준, 국가지원 여부, 물질적/정서적 지원에 따라 청소년들의 불법정보유출 수준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 < .05$). 남학생, 19세 이상, 학교밖 청소년, 혈연 이외 구성원과 살거나 독거하는 경우, 경제수준이 매우 어려운 경우, 국가지원이 있는 경우, 물질적/정서적 지원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는 경우 불법정보유출 수준이 가장 높은 경향이 있었다.

<표 29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불법정보유출>

| | | N | 평균 | 표준편차 | t/F | p |
|--------|---------------|------|------|------|--------|------|
| 성별 | 남자 | 1410 | 1.39 | 0.59 | 10.963 | .000 |
| | 여자 | 1430 | 1.19 | 0.38 | | |
| 나이 | 12세 | 313 | 1.15 | 0.31 | 17.661 | .000 |
| | 13세 | 413 | 1.17 | 0.33 | | |
| | 14세 | 330 | 1.20 | 0.38 | | |
| | 15세 | 279 | 1.32 | 0.51 | | |
| | 16세 | 361 | 1.32 | 0.54 | | |
| | 17세 | 547 | 1.33 | 0.53 | | |
| | 18세 | 425 | 1.43 | 0.61 | | |
| | 19세 이상 | 185 | 1.48 | 0.73 | | |
| 소속 | 초등학교 | 712 | 1.17 | 0.33 | 27.989 | .000 |
| | 중학교 | 925 | 1.27 | 0.48 | | |
| | 인문계 고등학교 | 834 | 1.35 | 0.55 | | |
| | 전문계(실업계) 고등학교 | 247 | 1.43 | 0.61 | | |
| | 학교에 다니고 있지 않음 | 129 | 1.56 | 0.80 | | |
| 지역 | 시단위 | 2227 | 1.29 | 0.51 | -.271 | .786 |
| | 군단위 | 629 | 1.30 | 0.51 | | |
| 가정형태 | 친부모 | 1707 | 1.25 | 0.45 | 11.456 | .000 |
| | 새부모 | 68 | 1.37 | 0.59 | | |
| | 조부모 | 309 | 1.26 | 0.46 | | |
| | 친척 | 47 | 1.26 | 0.49 | | |
| | 혈연이외 구성원 및 독거 | 73 | 1.63 | 0.89 | | |
| 경제수준 | 매우 어려운 편이다 | 24 | 1.78 | 1.05 | 8.648 | .000 |
| | 어려운 편이다 | 172 | 1.41 | 0.60 | | |
| | 보통이다 | 1950 | 1.29 | 0.49 | | |
| | 잘사는 편이다 | 597 | 1.26 | 0.47 | | |
| | 매우 잘사는 편이다 | 107 | 1.34 | 0.66 | | |
| 국가지원 | 없음 | 1445 | 1.30 | 0.52 | -2.141 | .032 |
| | 있음 | 311 | 1.37 | 0.60 | | |
| 물질적 지원 | 전혀 받지 못하고 있다 | 90 | 1.64 | 0.92 | 23.184 | .000 |
| | 부족하다 | 154 | 1.48 | 0.69 | | |
| | 보통이다 | 725 | 1.34 | 0.52 | | |
| | 받고 있는 편이다 | 580 | 1.26 | 0.45 | | |
| | 충분히 받고 있다 | 1301 | 1.24 | 0.44 | | |
| 정서적 지원 | 전혀 받지 못하고 있다 | 108 | 1.72 | 0.95 | 34.420 | .000 |
| | 부족하다 | 171 | 1.35 | 0.52 | | |
| | 보통이다 | 886 | 1.35 | 0.53 | | |
| | 받고 있는 편이다 | 588 | 1.30 | 0.49 | | |
| | 충분히 받고 있다 | 1093 | 1.19 | 0.39 | | |

⑥ 도박문제

성별, 나이, 소속, 가정형태, 경제수준, 물질적/정서적 지원에 따라 청소년들의 도박문제 수준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 < .05$). 남학생, 19세 이상, 학교밖 청소년, 혈연 이외 구성원과 살거나 독거하는 경우, 경제수준이 매우 어려운 경우, 물질적/정서적 지원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는 경우 도박문제 수준이 가장 높은 경향이 있었다.

<표 30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도박문제>

| | | N | 평균 | 표준편차 | t/F | p |
|--------|---------------|------|------|------|--------|------|
| 성별 | 남자 | 1416 | 1.35 | 0.66 | 9.224 | .000 |
| | 여자 | 1435 | 1.15 | 0.44 | | |
| 나이 | 12세 | 317 | 1.16 | 0.49 | 11.013 | .000 |
| | 13세 | 413 | 1.14 | 0.42 | | |
| | 14세 | 332 | 1.15 | 0.41 | | |
| | 15세 | 279 | 1.27 | 0.56 | | |
| | 16세 | 363 | 1.27 | 0.59 | | |
| | 17세 | 551 | 1.26 | 0.55 | | |
| | 18세 | 424 | 1.38 | 0.68 | | |
| | 19세 이상 | 185 | 1.45 | 0.84 | | |
| 소속 | 초등학교 | 716 | 1.15 | 0.46 | 25.201 | .000 |
| | 중학교 | 929 | 1.23 | 0.52 | | |
| | 인문계 고등학교 | 837 | 1.26 | 0.57 | | |
| | 전문계(실업계) 고등학교 | 248 | 1.43 | 0.68 | | |
| | 학교에 다니고 있지 않음 | 128 | 1.62 | 0.92 | | |
| 지역 | 시단위 | 2232 | 1.25 | 0.57 | -.588 | .557 |
| | 군단위 | 635 | 1.26 | 0.56 | | |
| 가정태 | 친부모 | 1714 | 1.21 | 0.52 | 7.855 | .000 |
| | 새부모 | 68 | 1.27 | 0.58 | | |
| | 조부모 | 312 | 1.23 | 0.57 | | |
| | 친척 | 48 | 1.21 | 0.45 | | |
| | 혈연이외 구성원 및 독거 | 73 | 1.57 | 0.92 | | |
| 경제수준 | 매우 어려운 편이다 | 24 | 1.85 | 1.11 | 8.569 | .000 |
| | 어려운 편이다 | 171 | 1.31 | 0.57 | | |
| | 보통이다 | 1957 | 1.24 | 0.55 | | |
| | 잘사는 편이다 | 600 | 1.23 | 0.56 | | |
| | 매우 잘사는 편이다 | 109 | 1.35 | 0.77 | | |
| 국가 지원 | 없음 | 1451 | 1.26 | 0.59 | -.151 | .880 |
| | 있음 | 311 | 1.27 | 0.63 | | |
| 물질적 지원 | 전혀 받지 못하고 있다 | 89 | 1.68 | 1.03 | 19.636 | .000 |
| | 부족하다 | 155 | 1.37 | 0.70 | | |
| | 보통이다 | 728 | 1.29 | 0.57 | | |
| | 받고 있는 편이다 | 583 | 1.24 | 0.55 | | |
| | 충분히 받고 있다 | 1306 | 1.19 | 0.50 | | |
| 정서적 지원 | 전혀 받지 못하고 있다 | 107 | 1.73 | 1.12 | 29.416 | .000 |
| | 부족하다 | 172 | 1.26 | 0.53 | | |
| | 보통이다 | 889 | 1.30 | 0.59 | | |
| | 받고 있는 편이다 | 591 | 1.27 | 0.57 | | |
| | 충분히 받고 있다 | 1099 | 1.16 | 0.43 | | |

4) 청소년이 지각하는 사회적 지지

(1) 청소년이 지각하는 사회적 지지의 전반적 특성

조사 대상자들의 지각된 사회적 지지의 하위요인들 중 친구지지, 가족지지와 교사지지는 모두 평균 3점 이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역사회지지 요인은 2.74점으로 다른 요인들과 비교할 때 다소 낮았다.

<표 31 청소년이 지각하는 사회적 지지의 전반적 특성>

| | N | 평균 | 표준편차 |
|--------|------|------|------|
| 친구지지 | 3027 | 3.72 | 0.77 |
| 가족지지 | 3026 | 3.89 | 0.85 |
| 교사지지 | 3025 | 3.45 | 0.75 |
| 지역사회지지 | 3022 | 2.74 | 0.86 |

(2)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청소년이 지각하는 사회적 지지

① 친구지지

성별, 소속, 가정형태, 경제수준, 물질적/정서적 지원에 따라 청소년들의 친구지지 수준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 < .05$). 여학생, 초등학교 학생, 친부모 가정, 경제수준이 잘사는 편, 물질적/정서적 지원을 충분히 받고 있는 경우 친구지지 수준이 가장 높은 경향이 있었다.

<표 32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친구지지>

| | | N | 평균 | 표준편차 | t/F | p |
|----|--------|------|------|------|--------|------|
| 성별 | 남자 | 1512 | 3.65 | 0.77 | -5.384 | .000 |
| | 여자 | 1493 | 3.80 | 0.76 | | |
| 나이 | 12세 | 336 | 3.72 | 0.91 | .956 | .462 |
| | 13세 | 434 | 3.79 | 0.78 | | |
| | 14세 | 347 | 3.75 | 0.76 | | |
| | 15세 | 293 | 3.69 | 0.79 | | |
| | 16세 | 370 | 3.69 | 0.77 | | |
| | 17세 | 577 | 3.72 | 0.71 | | |
| | 18세 | 453 | 3.67 | 0.71 | | |
| | 19세 이상 | 208 | 3.71 | 0.75 | | |

| | | N | 평균 | 표준편차 | t/F | p |
|-------|---------------|------|------|------|--------|------|
| 소속 | 초등학교 | 755 | 3.76 | 0.85 | 2.805 | .024 |
| | 중학교 | 962 | 3.72 | 0.77 | | |
| | 인문계 고등학교 | 898 | 3.74 | 0.69 | | |
| | 전문계(실업계) 고등학교 | 263 | 3.64 | 0.74 | | |
| | 학교에 다니고 있지 않음 | 133 | 3.56 | 0.82 | | |
| 지역 | 시단위 | 2348 | 3.73 | 0.77 | .604 | .546 |
| | 군단위 | 673 | 3.70 | 0.77 | | |
| 가정형태 | 친부모 | 1785 | 3.78 | 0.73 | 3.897 | .004 |
| | 새부모 | 73 | 3.52 | 0.87 | | |
| | 조부모 | 331 | 3.69 | 0.82 | | |
| | 친척 | 52 | 3.60 | 0.77 | | |
| | 혈연이외 구성원 및 독거 | 93 | 3.64 | 0.87 | | |
| 경제수준 | 매우 어려운 편이다 | 29 | 3.22 | 1.01 | 23.890 | .000 |
| | 어려운 편이다 | 185 | 3.50 | 0.80 | | |
| | 보통이다 | 2050 | 3.67 | 0.74 | | |
| | 잘사는 편이다 | 631 | 3.95 | 0.76 | | |
| | 매우 잘사는 편이다 | 119 | 3.83 | 0.93 | | |
| 국가지원 | 없음 | 1522 | 3.76 | 0.76 | 1.090 | .276 |
| | 있음 | 326 | 3.70 | 0.76 | | |
| 물질적원지 | 전혀 받지 못하고 있다 | 101 | 3.36 | 0.80 | 43.468 | .000 |
| | 부족하다 | 170 | 3.36 | 0.79 | | |
| | 보통이다 | 763 | 3.56 | 0.72 | | |
| | 받고 있는 편이다 | 614 | 3.69 | 0.74 | | |
| | 충분히 받고 있다 | 1367 | 3.89 | 0.76 | | |
| 정서적원지 | 전혀 받지 못하고 있다 | 118 | 3.23 | 0.88 | 96.757 | .000 |
| | 부족하다 | 183 | 3.31 | 0.71 | | |
| | 보통이다 | 948 | 3.50 | 0.72 | | |
| | 받고 있는 편이다 | 615 | 3.74 | 0.66 | | |
| | 충분히 받고 있다 | 1146 | 4.01 | 0.74 | | |

② 가족지지

나이, 소속, 가정형태, 경제수준, 물질적/정서적 지원에 따라 청소년들의 가족지지 수준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 < .05$). 13세, 초등학교 학생, 친부모 가정, 경제수준이 잘사는 편, 물질적/정서적 지원을 충분히 받고 있는 경우 가족지지 수준이 가장 높은 경향이 있었다.

<표 33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가족지지>

| | | N | 평균 | 표준편차 | t/F | p |
|--------|---------------|------|------|------|---------|------|
| 성별 | 남자 | 1512 | 3.87 | 0.85 | -1.574 | .116 |
| | 여자 | 1492 | 3.92 | 0.84 | | |
| 나이 | 12세 | 336 | 4.09 | 0.87 | 11.544 | .000 |
| | 13세 | 434 | 4.10 | 0.81 | | |
| | 14세 | 347 | 3.95 | 0.80 | | |
| | 15세 | 293 | 3.86 | 0.88 | | |
| | 16세 | 370 | 3.76 | 0.86 | | |
| | 17세 | 576 | 3.86 | 0.81 | | |
| | 18세 | 453 | 3.76 | 0.81 | | |
| | 19세 이상 | 208 | 3.71 | 0.91 | | |
| 소속 | 초등학교 | 755 | 4.09 | 0.83 | 21.547 | .000 |
| | 중학교 | 962 | 3.87 | 0.85 | | |
| | 인문계 고등학교 | 897 | 3.85 | 0.82 | | |
| | 전문계(실업계) 고등학교 | 263 | 3.79 | 0.81 | | |
| | 학교에 다니고 있지 않음 | 133 | 3.46 | 0.86 | | |
| 지역 | 시단위 | 2347 | 3.90 | 0.84 | .806 | .420 |
| | 군단위 | 673 | 3.87 | 0.85 | | |
| 가정형태 | 친부모 | 1784 | 3.97 | 0.82 | 9.181 | .000 |
| | 새부모 | 73 | 3.59 | 0.91 | | |
| | 조부모 | 331 | 3.86 | 0.83 | | |
| | 친척 | 52 | 3.84 | 1.02 | | |
| | 혈연이외 구성원 및 독거 | 93 | 3.57 | 0.92 | | |
| 경제수준 | 매우 어려운 편이다 | 29 | 3.31 | 1.17 | 33.283 | .000 |
| | 어려운 편이다 | 185 | 3.50 | 0.87 | | |
| | 보통이다 | 2049 | 3.85 | 0.82 | | |
| | 잘사는 편이다 | 631 | 4.16 | 0.79 | | |
| | 매우 잘사는 편이다 | 119 | 4.05 | 0.90 | | |
| 국가지원 | 없음 | 1521 | 3.89 | 0.85 | 1.650 | .099 |
| | 있음 | 326 | 3.81 | 0.85 | | |
| 물질적 지원 | 전혀 받지 못하고 있다 | 101 | 3.49 | 0.89 | 75.028 | .000 |
| | 부족하다 | 170 | 3.23 | 0.87 | | |
| | 보통이다 | 763 | 3.72 | 0.81 | | |
| | 받고 있는 편이다 | 613 | 3.82 | 0.80 | | |
| | 충분히 받고 있다 | 1367 | 4.13 | 0.79 | | |
| 정서적 지원 | 전혀 받지 못하고 있다 | 118 | 2.97 | 0.83 | 307.013 | .000 |
| | 부족하다 | 183 | 2.98 | 0.70 | | |
| | 보통이다 | 948 | 3.57 | 0.74 | | |
| | 받고 있는 편이다 | 615 | 3.92 | 0.71 | | |
| | 충분히 받고 있다 | 1145 | 4.38 | 0.68 | | |

③ 교사지지

나이, 소속, 지역, 가정형태, 경제수준, 물질적/정서적 지원에 따라 청소년들의 교사지지 수준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 < .05$). 13세, 초등학교 학생, 군단위, 친척 가정, 경제수준이 매우 잘사는 편, 물질적/정서적 지원을 충분히 받고 있는 경우 교사지지 수준이 가장 높은 경향이 있었다.

<표 34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교사지지>

| | | N | 평균 | 표준편차 | t/F | p |
|--------|---------------|------|------|------|--------|------|
| 성별 | 남자 | 1512 | 3.47 | 0.74 | .850 | .396 |
| | 여자 | 1491 | 3.44 | 0.77 | | |
| 나이 | 12세 | 336 | 3.59 | 0.81 | 11.373 | .000 |
| | 13세 | 434 | 3.63 | 0.79 | | |
| | 14세 | 347 | 3.58 | 0.71 | | |
| | 15세 | 293 | 3.42 | 0.79 | | |
| | 16세 | 370 | 3.43 | 0.70 | | |
| | 17세 | 576 | 3.35 | 0.70 | | |
| | 18세 | 453 | 3.33 | 0.70 | | |
| | 19세 이상 | 207 | 3.29 | 0.80 | | |
| 소속 | 초등학교 | 755 | 3.61 | 0.80 | 17.332 | .000 |
| | 중학교 | 962 | 3.49 | 0.74 | | |
| | 인문계 고등학교 | 897 | 3.32 | 0.72 | | |
| | 전문계(실업계) 고등학교 | 263 | 3.34 | 0.66 | | |
| | 학교에 다니고 있지 않음 | 132 | 3.44 | 0.73 | | |
| 지역 | 시단위 | 2346 | 3.42 | 0.76 | -4.100 | .000 |
| | 군단위 | 673 | 3.56 | 0.71 | | |
| 가정 형태 | 친부모 | 1784 | 3.47 | 0.75 | 2.384 | .049 |
| | 새부모 | 73 | 3.38 | 0.76 | | |
| | 조부모 | 331 | 3.54 | 0.75 | | |
| | 친척 | 52 | 3.54 | 0.76 | | |
| | 혈연이외 구성원 및 독거 | 93 | 3.29 | 0.76 | | |
| 경제 수준 | 매우 어려운 편이다 | 29 | 3.29 | 0.95 | 8.499 | .000 |
| | 어려운 편이다 | 185 | 3.34 | 0.68 | | |
| | 보통이다 | 2048 | 3.42 | 0.72 | | |
| | 잘사는 편이다 | 631 | 3.59 | 0.83 | | |
| | 매우 잘사는 편이다 | 119 | 3.59 | 0.84 | | |
| 국가 지원 | 없음 | 1520 | 3.42 | 0.75 | .354 | .723 |
| | 있음 | 326 | 3.41 | 0.80 | | |
| 물질적 지원 | 전혀 받지 못하고 있다 | 101 | 3.26 | 0.64 | 16.183 | .000 |
| | 부족하다 | 170 | 3.28 | 0.74 | | |
| | 보통이다 | 762 | 3.36 | 0.69 | | |
| | 받고 있는 편이다 | 613 | 3.39 | 0.75 | | |
| | 충분히 받고 있다 | 1367 | 3.57 | 0.78 | | |
| 정서적 지원 | 전혀 받지 못하고 있다 | 118 | 3.09 | 0.69 | 65.550 | .000 |
| | 부족하다 | 183 | 3.15 | 0.72 | | |
| | 보통이다 | 948 | 3.27 | 0.67 | | |
| | 받고 있는 편이다 | 615 | 3.45 | 0.67 | | |
| | 충분히 받고 있다 | 1144 | 3.70 | 0.79 | | |

④ 지역사회복지

성별, 소속, 지역, 경제수준, 정서적 지원에 따라 청소년들의 지역사회복지 수준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 < .05$). 남학생, 군단위, 경제수준이 매우 잘사는 편, 정서적 지원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는 경우 지역사회복지 수준이 가장 높은 경향이 있었다.

<표 35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지역사회복지>

| | | N | 평균 | 표준편차 | t/F | p |
|--------|---------------|------|------|------|--------|------|
| 성별 | 남자 | 1510 | 2.77 | 0.90 | 2.325 | .020 |
| | 여자 | 1490 | 2.70 | 0.82 | | |
| 나이 | 12세 | 336 | 2.71 | 1.00 | 1.958 | .057 |
| | 13세 | 432 | 2.68 | 0.85 | | |
| | 14세 | 346 | 2.71 | 0.82 | | |
| | 15세 | 293 | 2.65 | 0.79 | | |
| | 16세 | 370 | 2.82 | 0.87 | | |
| | 17세 | 575 | 2.75 | 0.84 | | |
| | 18세 | 453 | 2.83 | 0.83 | | |
| | 19세 이상 | 208 | 2.72 | 0.88 | | |
| 소속 | 초등학교 | 753 | 2.69 | 0.92 | 6.648 | .000 |
| | 중학교 | 961 | 2.72 | 0.83 | | |
| | 인문계 고등학교 | 896 | 2.70 | 0.82 | | |
| | 전문계(실업계) 고등학교 | 263 | 2.91 | 0.86 | | |
| | 학교에 다니고 있지 않음 | 133 | 3.00 | 0.95 | | |
| 지역 | 시단위 | 2344 | 2.72 | 0.85 | -2.434 | .015 |
| | 군단위 | 672 | 2.81 | 0.88 | | |
| 가정태 | 친부모 | 1782 | 2.71 | 0.85 | .389 | .817 |
| | 새부모 | 73 | 2.79 | 0.89 | | |
| | 조부모 | 330 | 2.76 | 0.85 | | |
| | 친척 | 52 | 2.75 | 0.91 | | |
| | 혈연이외 구성원 및 독거 | 93 | 2.69 | 1.02 | | |
| 경제수준 | 매우 어려운 편이다 | 29 | 2.86 | 0.97 | 3.479 | .008 |
| | 어려운 편이다 | 184 | 2.76 | 0.79 | | |
| | 보통이다 | 2049 | 2.71 | 0.82 | | |
| | 잘사는 편이다 | 628 | 2.77 | 0.92 | | |
| | 매우 잘사는 편이다 | 119 | 2.98 | 1.16 | | |
| 국가 지원 | 없음 | 1519 | 2.74 | 0.89 | -1.275 | .202 |
| | 있음 | 326 | 2.80 | 0.86 | | |
| 물질적 지원 | 전혀 받지 못하고 있다 | 101 | 2.82 | 0.94 | .565 | .688 |
| | 부족하다 | 169 | 2.68 | 0.82 | | |
| | 보통이다 | 763 | 2.73 | 0.78 | | |
| | 받고 있는 편이다 | 613 | 2.72 | 0.81 | | |
| | 충분히 받고 있다 | 1364 | 2.75 | 0.92 | | |
| 정서적 지원 | 전혀 받지 못하고 있다 | 118 | 2.82 | 0.97 | 4.238 | .002 |
| | 부족하다 | 183 | 2.59 | 0.76 | | |
| | 보통이다 | 948 | 2.69 | 0.78 | | |
| | 받고 있는 편이다 | 615 | 2.72 | 0.81 | | |
| | 충분히 받고 있다 | 1141 | 2.80 | 0.94 | | |

3. 스마트폰 중독과 청소년 심리, 행동 및 사회적 지지와의 관계

1) 스마트폰 중독 정도에 따른 청소년 정신병리

스마트폰 중독정도에 따라 청소년들의 불안, 우울, 충동성, 공격성 수준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 < .05$). 고위험군 학생들의 불안, 우울, 충동성, 공격성 수준이 더 높았다.

<표 36 스마트폰 중독 정도에 따른 청소년 중독병리>

| | 스마트폰 중독정도 | N | 평균 | 표준편차 | t/F | p |
|-----|-----------|------|------|------|---------|------|
| 불안 | 일반군 | 2045 | 2.28 | 0.93 | 104.681 | .000 |
| | 잠재적 위험군 | 641 | 2.79 | 0.95 | | |
| | 고위험군 | 91 | 3.19 | 1.03 | | |
| 우울 | 일반군 | 2045 | 1.74 | 0.76 | 86.205 | .000 |
| | 잠재적 위험군 | 641 | 2.10 | 0.87 | | |
| | 고위험군 | 91 | 2.55 | 0.95 | | |
| 충동성 | 일반군 | 2045 | 1.87 | 0.75 | 136.876 | .000 |
| | 잠재적 위험군 | 641 | 2.32 | 0.81 | | |
| | 고위험군 | 91 | 2.86 | 1.03 | | |
| 공격성 | 일반군 | 2045 | 1.86 | 0.80 | 112.528 | .000 |
| | 잠재적 위험군 | 641 | 2.30 | 0.91 | | |
| | 고위험군 | 91 | 2.79 | 1.06 | | |

2) 스마트폰 중독 정도에 따른 사이버일탈행동

스마트폰 중독정도에 따라 청소년들의 게임중독, 채팅언어폭력, 사이버사기, 성적일탈, 불법정보유출, 도박문제 수준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 < .05$). 고위험군 학생들의 게임중독, 채팅언어폭력, 사이버사기, 성적일탈, 불법정보유출, 도박문제 수준이 더 높았다.

<표 37 스마트폰 중독 정도에 따른 사이버일탈행동>

| | 스마트폰 중독정도 | N | 평균 | 표준편차 | t/F | p |
|--------|-----------|------|------|------|--------|------|
| 게임중독 | 일반군 | 2034 | 1.41 | 0.52 | 63.611 | .000 |
| | 잠재적 위험군 | 636 | 1.61 | 0.68 | | |
| | 고위험군 | 90 | 1.97 | 0.85 | | |
| 채팅언어폭력 | 일반군 | 2038 | 1.51 | 0.61 | 85.512 | .000 |
| | 잠재적 위험군 | 635 | 1.79 | 0.79 | | |
| | 고위험군 | 90 | 2.25 | 1.04 | | |

| | 스마트폰 중독정도 | N | 평균 | 표준편차 | t/F | p |
|--------|-----------|------|------|------|--------|------|
| 사이버사기 | 일반군 | 2030 | 1.31 | 0.50 | 27.706 | .000 |
| | 잠재적 위험군 | 637 | 1.45 | 0.64 | | |
| | 고위험군 | 89 | 1.63 | 0.75 | | |
| 성적일탈 | 일반군 | 2037 | 1.26 | 0.48 | 20.513 | .000 |
| | 잠재적 위험군 | 639 | 1.36 | 0.61 | | |
| | 고위험군 | 90 | 1.54 | 0.71 | | |
| 불법정보유출 | 일반군 | 2036 | 1.27 | 0.47 | 16.342 | .000 |
| | 잠재적 위험군 | 637 | 1.36 | 0.59 | | |
| | 고위험군 | 90 | 1.50 | 0.67 | | |
| 도박문제 | 일반군 | 2041 | 1.22 | 0.50 | 15.670 | .000 |
| | 잠재적 위험군 | 639 | 1.31 | 0.69 | | |
| | 고위험군 | 90 | 1.52 | 0.86 | | |

3) 스마트폰 중독 정도에 따른 사회적지지

스마트폰 중독 정도에 따라 청소년들의 친구지지, 가족지지, 교사지지 수준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 < .05$). 고위험군 학생들의 친구지지, 가족지지, 교사지지 수준이 더 낮았다.

<표 38 스마트폰 중독 정도에 따른 사회적지지>

| | 스마트폰 중독정도 | N | 평균 | 표준편차 | t/F | p |
|--------|-----------|------|------|------|--------|------|
| 친구지지 | 일반군 | 2042 | 3.76 | 0.76 | 12.362 | .000 |
| | 잠재적 위험군 | 639 | 3.62 | 0.73 | | |
| | 고위험군 | 91 | 3.52 | 0.92 | | |
| 가족지지 | 일반군 | 2041 | 3.95 | 0.84 | 19.740 | .000 |
| | 잠재적 위험군 | 639 | 3.78 | 0.81 | | |
| | 고위험군 | 91 | 3.54 | 0.98 | | |
| 교사지지 | 일반군 | 2040 | 3.52 | 0.75 | 30.446 | .000 |
| | 잠재적 위험군 | 639 | 3.30 | 0.70 | | |
| | 고위험군 | 91 | 3.13 | 0.83 | | |
| 지역사회지지 | 일반군 | 2040 | 2.73 | 0.85 | .726 | .484 |
| | 잠재적 위험군 | 638 | 2.69 | 0.81 | | |
| | 고위험군 | 91 | 2.70 | 0.94 | | |

4. 사회적 지지가 청소년 심리·행동 및 청소년 스마트폰 중독정도에 미치는 영향

1) 사회적 지지와 청소년 정신병리와의 관계

(1) 사회적 지지가 불안에 미치는 영향

사회적 지지의 각 하위 요인이 청소년 불안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친구지지, 가족지지, 교사지지는 청소년의 불안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p < .001$).

<표 39 사회적 지지가 불안에 미치는 영향>

| 요인 (상수) | 비표준화 계수 | | 표준화 계수 | t | 유의 확률 | F | R ² |
|------------|---------|------|--------|--------|----------|------------|----------------|
| | B | 표준오차 | 베타 | | | | |
| 친구지지 | -.206 | .028 | -.162 | -7.239 | .000 | 92.851 *** | .110 |
| 가족지지 | -.181 | .026 | -.157 | -7.036 | .000 | | |
| 교사지지 | -.107 | .027 | -.083 | -4.001 | .000 | | |
| 지역사회지지 | .035 | .020 | .031 | 1.724 | .085 | | |
| (상수) | 4.163 | .102 | | 40.855 | .000 | | |

*** $p < .001$

(2) 사회적 지지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

사회적 지지의 각 하위 요인이 청소년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사회적 지지의 모든 하위요인은 청소년의 우울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p < .001$).

<표 40 사회적 지지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

| 요인 (상수) | 비표준화 계수 | | 표준화 계수 | t | 유의 확률 | F | R ² |
|------------|---------|------|--------|---------|----------|------------|----------------|
| | B | 표준오차 | 베타 | | | | |
| 친구지지 | -.213 | .022 | -.198 | -9.682 | .000 | 26.571 *** | .258 |
| 가족지지 | -.317 | .020 | -.325 | -15.998 | .000 | | |
| 교사지지 | -.087 | .021 | -.079 | -4.185 | .000 | | |
| 지역사회지지 | .114 | .016 | .119 | 7.319 | .000 | | |
| (상수) | 3.869 | .079 | | 49.140 | .000 | | |

*** $p < .001$

(3) 사회적 지지가 충동성에 미치는 영향

사회적 지지의 각 하위 요인이 청소년 충동성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사회적 지지의 모든 하위요인은 청소년의 충동성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p < .001$).

<표 41 사회적 지지가 충동성에 미치는 영향>

| 요인 (상수) | 비표준화 계수 | | 표준화 계수 | t | 유의 확률 | F | R ² |
|------------|---------|------|--------|--------|----------|------------------------|----------------|
| | B | 표준오차 | 베타 | | | | |
| (상수) | 3.590 | .084 | | 42.899 | .000 | | |
| 친구지지 | -.128 | .023 | -.120 | -5.469 | .000 | 125.768 ^{***} | .143 |
| 가족지지 | -.206 | .021 | -.213 | -9.752 | .000 | | |
| 교사지지 | -.143 | .022 | -.132 | -6.521 | .000 | | |
| 지역사회지지 | .069 | .017 | .073 | 4.168 | .000 | | |

*** $p < .001$

(4) 사회적 지지가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사회적 지지의 각 하위 요인이 청소년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사회적 지지의 모든 하위요인은 청소년의 공격성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p < .001$).

<표 42 사회적 지지가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 요인 (상수) | 비표준화 계수 | | 표준화 계수 | t | 유의 확률 | F | R ² |
|------------|---------|------|--------|---------|----------|------------------------|----------------|
| | B | 표준오차 | 베타 | | | | |
| (상수) | 3.793 | .088 | | 43.051 | .000 | | |
| 친구지지 | -.143 | .025 | -.126 | -5.822 | .000 | 152.411 ^{***} | .169 |
| 가족지지 | -.275 | .022 | -.267 | -12.404 | .000 | | |
| 교사지지 | -.117 | .023 | -.101 | -5.051 | .000 | | |
| 지역사회지지 | .075 | .017 | .074 | 4.284 | .000 | | |

*** $p < .001$

2) 사회적 지지와 사이버일탈행동과의 관계

(1) 사회적 지지가 게임중독에 미치는 영향

사회적 지지의 각 하위 요인이 청소년 게임중독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사회적 지지의 모든 하위요인은 청소년의 게임중독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p < .01$).

<표 43 사사회적 지지가 게임중독에 미치는 영향>

| 요인 (상수) | 비표준화 계수 | | 표준화 계수 | t | 유의 확률 | F | R ² |
|------------|---------|------|--------|--------|----------|-----------------------|----------------|
| | B | 표준오차 | 베타 | | | | |
| 친구지지 | -.119 | .018 | -.155 | -6.806 | .000 | 92.041 ^{***} | .115 |
| 가족지지 | -.127 | .016 | -.183 | -8.049 | .000 | | |
| 교사지지 | -.051 | .017 | -.065 | -3.044 | .002 | | |
| 지역사회지지 | .076 | .013 | .110 | 6.033 | .000 | | |
| (상수) | 2.382 | .064 | | 37.367 | .000 | | |

*** $p < .001$

(2) 사회적 지지가 채팅언어폭력에 미치는 영향

사회적 지지의 각 하위 요인이 청소년 채팅언어폭력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사회적 지지의 모든 하위요인은 청소년의 채팅언어폭력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p < .001$).

<표 44 사사회적 지지가 채팅언어폭력에 미치는 영향>

| 요인 (상수) | 비표준화 계수 | | 표준화 계수 | t | 유의 확률 | F | R ² |
|------------|---------|------|--------|--------|----------|-----------------------|----------------|
| | B | 표준오차 | 베타 | | | | |
| 친구지지 | -.073 | .021 | -.082 | -3.505 | .000 | 64.356 ^{***} | .083 |
| 가족지지 | -.143 | .019 | -.176 | -7.577 | .000 | | |
| 교사지지 | -.085 | .020 | -.092 | -4.266 | .000 | | |
| 지역사회지지 | .062 | .015 | .076 | 4.118 | .000 | | |
| (상수) | 2.553 | .076 | | 33.493 | .000 | | |

*** $p < .001$

(3) 사회적 지지가 사이버사기에 미치는 영향

사회적 지지의 각 하위 요인이 청소년 사이버사기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사회적 지지의 모든 하위요인은 청소년의 사이버사기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p < .001$).

<표 45 사사회적 지지가 사이버사기에 미치는 영향>

| 요인 | 비표준화 계수 | | 표준화 계수 | t | 유의 확률 | F | R ² |
|--------|---------|------|--------|--------|----------|-----------|----------------|
| | B | 표준오차 | 베타 | | | | |
| (상수) | 2.133 | .060 | | 35.498 | .000 | | |
| 친구지지 | -.091 | .017 | -.126 | -5.502 | .000 | 92.370*** | .115 |
| 가족지지 | -.125 | .015 | -.191 | -8.369 | .000 | | |
| 교사지지 | -.061 | .016 | -.082 | -3.869 | .000 | | |
| 지역사회지지 | .093 | .012 | .144 | 7.892 | .000 | | |

*** $p < .001$

(4) 사회적 지지가 성적일탈에 미치는 영향

사회적 지지의 각 하위 요인이 청소년 성적일탈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사회적 지지의 모든 하위요인은 청소년의 성적일탈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p < .01$).

<표 46 사사회적 지지가 성적일탈에 미치는 영향>

| 요인 | 비표준화 계수 | | 표준화 계수 | t | 유의 확률 | F | R ² |
|--------|---------|------|--------|--------|----------|-----------|----------------|
| | B | 표준오차 | 베타 | | | | |
| (상수) | 1.899 | .058 | | 32.787 | .000 | | |
| 친구지지 | -.058 | .016 | -.084 | -3.642 | .000 | 75.125*** | .095 |
| 가족지지 | -.125 | .014 | -.200 | -8.708 | .000 | | |
| 교사지지 | -.046 | .015 | -.065 | -3.021 | .003 | | |
| 지역사회지지 | .093 | .011 | .148 | 8.084 | .000 | | |

*** $p < .001$

(5) 사회적 지지가 불법정보유출에 미치는 영향

사회적 지지의 각 하위 요인이 청소년 불법정보유출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중다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사회적 지지의 모든 하위요인은 청소년의 불법정보유출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p < .01$).

<표 47 사사회적 지지가 불법정보유출에 미치는 영향>

| 요인 | 비표준화 계수 | | 표준화 계수 | t | 유의 확률 | F | R ² |
|--------|---------|------|--------|--------|-------|------------|----------------|
| | B | 표준오차 | 베타 | | | | |
| (상수) | 1.880 | .056 | | 33.487 | .000 | | |
| 친구지지 | -.065 | .015 | -.098 | -4.231 | .000 | 69.433 *** | .089 |
| 가족지지 | -.108 | .014 | -.180 | -7.784 | .000 | | |
| 교사지지 | -.044 | .015 | -.065 | -3.021 | .003 | | |
| 지역사회지지 | .086 | .011 | .142 | 7.712 | .000 | | |

*** $p < .001$

(6) 사회적 지지가 도박문제에 미치는 영향

사회적 지지의 각 하위 요인이 청소년 도박문제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중다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사회적 지지의 모든 하위요인은 청소년의 도박문제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p < .01$).

<표 48 사사회적 지지가 도박문제에 미치는 영향>

| 요인 | 비표준화 계수 | | 표준화 계수 | t | 유의 확률 | F | R ² |
|--------|---------|------|--------|--------|-------|------------|----------------|
| | B | 표준오차 | 베타 | | | | |
| (상수) | 1.775 | .063 | | 28.094 | .000 | | |
| 친구지지 | -.059 | .017 | -.079 | -3.399 | .001 | 58.811 *** | .076 |
| 가족지지 | -.103 | .016 | -.152 | -6.555 | .000 | | |
| 교사지지 | -.057 | .017 | -.075 | -3.469 | .001 | | |
| 지역사회지지 | .108 | .012 | .161 | 8.662 | .000 | | |

*** $p < .001$

3) 사회적 지지와 스마트폰 중독정도의 관계

사회적 지지의 각 하위 요인이 청소년 스마트폰중독 정도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사회적 지지의 모든 하위요인은 청소년의 스마트폰 중독 정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p<.05$).

< 표 49 사회적 지지가 스마트폰 중독정도에 미치는 영향 >

| 요인 | 비표준화 계수 | | 표준화 계수 | | t | 유의 확률 | F | R ² |
|--------|---------|------|--------|--|--------|----------|------------|----------------|
| | B | 표준오차 | 베타 | | | | | |
| (상수) | 43.945 | .810 | | | 54.277 | .000 | | |
| 친구지지 | -.531 | .221 | -.056 | | -2.400 | .016 | | |
| 가족지지 | -1.610 | .199 | -.187 | | -8.083 | .000 | 84.181 *** | .109 |
| 교사지지 | -1.574 | .210 | -.162 | | -7.487 | .000 | | |
| 지역사회지지 | .551 | .160 | .064 | | 3.439 | .001 | | |

*** $p<.001$

5. 청소년 정신병리가 스마트폰 중독정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

1) 청소년 정신병리가 스마트폰 중독정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친구지지의 조절효과

(1) 불안이 스마트폰 중독정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친구지지의 조절효과

불안이 스마트폰 중독정도에 미치는 영향을 친구지지가 조절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불안과 친구지지의 상호작용항을 포함하는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불안과 친구지지는 스마트폰 중독정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p < .001$), 이 두 변인의 상호작용항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친구지지는 불안이 스마트폰 중독정도에 미치는 영향을 조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p < .001$).

<표 50 친구지지의 조절효과(불안)>

| 요인 | 비표준화 계수 | | 표준화 계수 | | 유의 확률 | F | R ² |
|---------|---------|------|--------|---------|-------|------------|----------------|
| | B | 표준오차 | 베타 | t | | | |
| (상수) | 31.874 | .130 | | 246.060 | .000 | 191.797*** | .174 |
| 불안 | 2.651 | .135 | .355 | 19.639 | .000 | | |
| 친구지지 | -1.259 | .172 | -.132 | -7.331 | .000 | | |
| 불안*친구지지 | .697 | .153 | .079 | 4.570 | .000 | | |

*** $p < .001$

(2) 우울이 스마트폰 중독정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친구지지의 조절효과

우울이 스마트폰 중독정도에 미치는 영향을 친구지지가 조절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우울과 친구지지의 상호작용항을 포함하는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우울과 친구지지는 스마트폰 중독정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p < .001$), 이 두 변인의 상호작용항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친구지지는 우울이 스마트폰 중독정도에 미치는 영향을 조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p < .001$).

<표 51 친구지지의 조절효과(우울)>

| 요인 | 비표준화 계수 | | 표준화 계수 | | 유의 확률 | F | R ² |
|---------|---------|------|--------|---------|-------|------------|----------------|
| | B | 표준오차 | 베타 | t | | | |
| (상수) | 32.000 | .134 | | 238.582 | .000 | 187.571*** | .170 |
| 우울 | 3.379 | .172 | .380 | 19.648 | .000 | | |
| 친구지지 | -.825 | .180 | -.087 | -4.579 | .000 | | |
| 우울*친구지지 | .938 | .186 | .090 | 5.053 | .000 | | |

*** $p < .001$

(3) 충동성이 스마트폰 중독정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친구지지의 조절효과

충동성이 스마트폰 중독정도에 미치는 영향을 친구지지가 조절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충동성과 친구지지의 상호작용항을 포함하는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충동성과 친구지지는 스마트폰 중독정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p < .001$), 이 두 변인의 상호작용항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친구지지는 충동성이 스마트폰 중독정도에 미치는 영향을 조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p < .001$).

<표 52 친구지지의 조절효과(충동성)>

| 요인 | 비표준화 계수 | | 표준화 계수 | t | 유의 확률 | F | R ² |
|----------|---------|------|--------|---------|-------|---------|----------------|
| | B | 표준오차 | 베타 | | | | |
| (상수) | 31.922 | .128 | | 249.320 | .000 | | |
| 충동성 | 3.609 | .160 | .403 | 22.563 | .000 | 232.820 | .203 |
| 친구지지 | -1.074 | .170 | -.113 | -6.334 | .000 | | |
| 충동성*친구지지 | .895 | .192 | .080 | 4.657 | .000 | | |

*** $p < .001$

(4) 공격성이 스마트폰 중독정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친구지지의 조절효과

공격성이 스마트폰 중독정도에 미치는 영향을 친구지지가 조절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공격성과 친구지지의 상호작용항을 포함하는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공격성과 친구지지는 스마트폰 중독정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p < .001$), 이 두 변인의 상호작용항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친구지지는 공격성이 스마트폰 중독정도에 미치는 영향을 조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p < .001$).

<표 53 친구지지의 조절효과(공격성)>

| 요인 | 비표준화 계수 | | 표준화 계수 | t | 유의 확률 | F | R ² |
|----------|---------|------|--------|---------|-------|------------|----------------|
| | B | 표준오차 | 베타 | | | | |
| (상수) | 31.902 | .129 | | 247.066 | .000 | | |
| 공격성 | 3.307 | .152 | .395 | 21.733 | .000 | 218.249*** | .193 |
| 친구지지 | -1.041 | .172 | -.109 | -6.065 | .000 | | |
| 공격성*친구지지 | .693 | .171 | .070 | 4.053 | .000 | | |

*** $p < .001$

2) 청소년 정신병리가 스마트폰 중독정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가족지지의 조절효과

(1) 불안이 스마트폰 중독정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가족지지의 조절효과

불안이 스마트폰 중독정도에 미치는 영향을 가족지지가 조절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불안과 가족지지의 상호작용항을 포함하는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불안과 가족지지는 스마트폰 중독정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p < .001$), 이 두 변인의 상호작용항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가족지지는 불안이 스마트폰 중독정도에 미치는 영향을 조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p < .001$).

<표 54 가족지지의 조절효과(불안)>

| 요인 (상수) | 비표준화 계수 | | 표준화 계수 | t | 유의 확률 | F | R ² |
|------------|---------|------|--------|---------|----------|------------------------|----------------|
| | B | 표준오차 | 베타 | | | | |
| 불안 | 2.487 | .134 | .333 | 18.585 | .000 | 214.872 ^{***} | .191 |
| 가족지지 | -1.707 | .154 | -.198 | -11.074 | .000 | | |
| 불안*가족지지 | .553 | .141 | .067 | 3.920 | .000 | | |

*** $p < .001$

(2) 우울이 스마트폰 중독정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가족지지의 조절효과

우울이 스마트폰 중독정도에 미치는 영향을 가족지지가 조절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우울과 가족지지의 상호작용항을 포함하는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우울과 가족지지는 스마트폰 중독정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p < .001$), 이 두 변인의 상호작용항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가족지지는 우울이 스마트폰 중독정도에 미치는 영향을 조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p < .001$).

<표 55 가족지지의 조절효과(우울)>

| 요인 (상수) | 비표준화 계수 | | 표준화 계수 | t | 유의 확률 | F | R ² |
|------------|---------|------|--------|--------|----------|------------------------|----------------|
| | B | 표준오차 | 베타 | | | | |
| 우울 | 3.233 | .179 | .363 | 18.083 | .000 | 204.036 ^{***} | .183 |
| 가족지지 | -1.166 | .168 | -.136 | -6.956 | .000 | | |
| 우울*가족지지 | 1.138 | .179 | .114 | 6.353 | .000 | | |

*** $p < .001$

(3) 충동성이 스마트폰 중독정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가족지지의 조절효과

충동성이 스마트폰 중독정도에 미치는 영향을 가족지지가 조절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충동성과 가족지지의 상호작용항을 포함하는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충동성과 가족지지는 스마트폰 중독정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p < .001$), 이 두 변인의 상호작용항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가족지지는 충동성이 스마트폰 중독정도에 미치는 영향을 조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p < .001$).

<표 56 가족지지의 조절효과(충동성)>

| 요인 | 비표준화 계수 | | 표준화 계수 | t | 유의 확률 | F | R ² |
|----------|---------|------|--------|---------|-------|------------|----------------|
| | B | 표준오차 | 베타 | | | | |
| (상수) | 31.986 | .129 | | 247.400 | .000 | | |
| 충동성 | 3.415 | .161 | .381 | 21.164 | .000 | 251.212*** | .216 |
| 가족지지 | -1.414 | .154 | -.164 | -9.153 | .000 | | |
| 충동성*가족지지 | .939 | .179 | .089 | 5.235 | .000 | | |

*** $p < .001$

(4) 공격성이 스마트폰 중독정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가족지지의 조절효과

공격성이 스마트폰 중독정도에 미치는 영향을 가족지지가 조절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공격성과 가족지지의 상호작용항을 포함하는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공격성과 가족지지는 스마트폰 중독정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p < .001$), 이 두 변인의 상호작용항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가족지지는 공격성이 스마트폰 중독정도에 미치는 영향을 조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p < .001$).

<표 57 가족지지의 조절효과(공격성)>

| 요인 | 비표준화 계수 | | 표준화 계수 | t | 유의 확률 | F | R ² |
|----------|---------|------|--------|---------|-------|------------|----------------|
| | B | 표준오차 | 베타 | | | | |
| (상수) | 32.000 | .132 | | 242.948 | .000 | | |
| 공격성 | 3.140 | .156 | .375 | 20.179 | .000 | 234.255*** | .204 |
| 가족지지 | -1.307 | .158 | -.152 | -8.249 | .000 | | |
| 공격성*가족지지 | .845 | .165 | .088 | 5.123 | .000 | | |

*** $p < .001$

3) 청소년 정신병리가 스마트폰 중독정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교사지지의 조절효과

(1) 불안이 스마트폰 중독정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교사지지의 조절효과

불안이 스마트폰 중독정도에 미치는 영향을 교사지지가 조절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불안과 교사지지의 상호작용항을 포함하는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불안과 교사지지는 스마트폰 중독정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p < .001$), 이 두 변인의 상호작용항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교사지지는 불안이 스마트폰 중독정도에 미치는 영향을 조절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8 교사지지의 조절효과(불안)>

| 요인 | 비표준화 계수 | | 표준화 계수 | <i>t</i> | 유의 확률 | <i>F</i> | <i>R</i> ² |
|---------|---------|------|--------|----------|----------|------------|-----------------------|
| | B | 표준오차 | 베타 | | | | |
| (상수) | 31.754 | .128 | | 248.514 | .000 | 205.121*** | .184 |
| 불안 | 2.584 | .132 | .346 | 19.507 | .000 | | |
| 교사지지 | -1.805 | .173 | -.185 | -10.446 | .000 | | |
| 불안*교사지지 | .108 | .159 | .012 | .680 | .496 | | |

*** $p < .001$

(2) 우울이 스마트폰 중독정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교사지지의 조절효과

우울이 스마트폰 중독정도에 미치는 영향을 교사지지가 조절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우울과 교사지지의 상호작용항을 포함하는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우울과 교사지지는 스마트폰 중독정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p < .001$), 이 두 변인의 상호작용항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교사지지는 우울이 스마트폰 중독정도에 미치는 영향을 조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p < .05$).

<표 59 교사지지의 조절효과(우울)>

| 요인 | 비표준화 계수 | | 표준화 계수 | <i>t</i> | 유의 확률 | <i>F</i> | <i>R</i> ² |
|---------|---------|------|--------|----------|----------|------------|-----------------------|
| | B | 표준오차 | 베타 | | | | |
| (상수) | 31.852 | .131 | | 243.025 | .000 | 201.258*** | .181 |
| 우울 | 3.159 | .164 | .355 | 19.214 | .000 | | |
| 교사지지 | -1.487 | .180 | -.153 | -8.280 | .000 | | |
| 우울*교사지지 | .442 | .210 | .037 | 2.104 | .035 | | |

*** $p < .001$

(3) 충동성이 스마트폰 중독정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교사지지의 조절효과

충동성이 스마트폰 중독정도에 미치는 영향을 교사지지가 조절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충동성과 교사지지의 상호작용항을 포함하는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충동성과 교사지지는 스마트폰 중독정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p < .001$), 이 두 변인의 상호작용항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교사지지는 충동성이 스마트폰 중독정도에 미치는 영향을 조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p < .001$).

<표 60 교사지지의 조절효과(충동성)>

| 요인 | 비표준화 계수 | | 표준화 계수 | | 유의 확률 | F | R ² |
|----------|---------|------|--------|---------|-------|------------|----------------|
| | B | 표준오차 | 베타 | t | | | |
| (상수) | 31.901 | .128 | | 250.062 | .000 | | |
| 충동성 | 3.536 | .160 | .395 | 22.163 | .000 | 244.449*** | .211 |
| 교사지지 | -1.416 | .174 | -.145 | -8.117 | .000 | | |
| 충동성*교사지지 | .808 | .203 | .069 | 3.972 | .000 | | |

*** $p < .001$

(4) 공격성이 스마트폰 중독정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교사지지의 조절효과

공격성이 스마트폰 중독정도에 미치는 영향을 교사지지가 조절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공격성과 교사지지의 상호작용항을 포함하는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공격성과 교사지지는 스마트폰 중독정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p < .001$), 이 두 변인의 상호작용항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교사지지는 공격성이 스마트폰 중독정도에 미치는 영향을 조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p < .05$).

<표 61 교사지지의 조절효과(공격성)>

| 요인 | 비표준화 계수 | | 표준화 계수 | | 유의 확률 | F | R ² |
|----------|---------|------|--------|---------|-------|------------|----------------|
| | B | 표준오차 | 베타 | t | | | |
| (상수) | 31.845 | .128 | | 249.104 | .000 | | |
| 공격성 | 3.193 | .149 | .381 | 21.389 | .000 | 232.033*** | .203 |
| 교사지지 | -1.520 | .174 | -.156 | -8.745 | .000 | | |
| 공격성*교사지지 | .468 | .185 | .044 | 2.535 | .011 | | |

*** $p < .001$

4) 청소년 정신병리가 스마트폰 중독정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지역사회지지의 조절효과

(1) 불안이 스마트폰 중독정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지역사회지지의 조절효과

불안이 스마트폰 중독정도에 미치는 영향을 지역사회지지가 조절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불안과 지역사회지지의 상호작용항을 포함하는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불안은 스마트폰 중독정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p < .001$), 지역사회지지와 두 변인의 상호작용항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지역사회지지는 불안이 스마트폰 중독정도에 미치는 영향을 조절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62 지역사회지지의 조절효과(불안)>

| 요인 | 비표준화 계수 | | 표준화 계수 | t | 유의 확률 | F | R ² |
|-----------|---------|------|--------|---------|-------|------------|----------------|
| | B | 표준오차 | 베타 | | | | |
| (상수) | 31.730 | .128 | | 248.488 | .000 | | |
| 불안 | 2.897 | .132 | .388 | 22.003 | .000 | 162.289*** | .151 |
| 지역사회지지 | .043 | .154 | .005 | .283 | .778 | | |
| 불안*지역사회지지 | .251 | .142 | .032 | 1.771 | .077 | | |

*** p<.001

(2) 우울이 스마트폰 중독정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지역사회지지의 조절효과

우울이 스마트폰 중독정도에 미치는 영향을 지역사회지지가 조절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우울과 지역사회지지의 상호작용항을 포함하는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우울은 스마트폰 중독정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p < .001$), 지역사회지지와 두 변인의 상호작용항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지역사회지지는 우울이 스마트폰 중독정도에 미치는 영향을 조절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63 지역사회지지의 조절효과(우울)>

| 요인 | 비표준화 계수 | | 표준화 계수 | t | 유의 확률 | F | R ² |
|-----------|---------|------|--------|---------|-------|------------|----------------|
| | B | 표준오차 | 베타 | | | | |
| (상수) | 31.756 | .127 | | 249.446 | .000 | | |
| 우울 | 3.504 | .157 | .394 | 22.379 | .000 | 170.221*** | .157 |
| 지역사회지지 | -.140 | .154 | -.016 | -.912 | .362 | | |
| 우울*지역사회지지 | .348 | .179 | .035 | 1.943 | .052 | | |

*** p<.001

(3) 충동성이 스마트폰 중독정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지역사회지지의 조절효과

충동성이 스마트폰 중독정도에 미치는 영향을 지역사회지지가 조절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충동성과 지역사회지지의 상호작용항을 포함하는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충동성은 스마트폰 중독정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p < .001$), 지역사회지지와 두 변인의 상호작용항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지역사회지지는 충동성이 스마트폰 중독정도에 미치는 영향을 조절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64 지역사회지지의 조절효과(충동성)>

| 요인 | 비표준화 계수 | | 표준화 계수 | t | 유의 확률 | F | R ² |
|------------|---------|------|--------|---------|-------|------------|----------------|
| | B | 표준오차 | 베타 | | | | |
| (상수) | 31.761 | .125 | | 253.685 | .000 | | |
| 충동성 | 3.829 | .155 | .427 | 24.685 | .000 | 205.304*** | .184 |
| 지역사회지지 | -.044 | .151 | -.005 | -.288 | .773 | | |
| 충동성*지역사회지지 | .153 | .169 | .016 | .903 | .367 | | |

*** $p < .001$

(4) 공격성이 스마트폰 중독정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지역사회지지의 조절효과

공격성이 스마트폰 중독정도에 미치는 영향을 지역사회지지가 조절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공격성과 지역사회지지의 상호작용항을 포함하는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공격성은 스마트폰 중독정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p < .001$), 지역사회지지와 두 변인의 상호작용항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지역사회지지는 공격성이 스마트폰 중독정도에 미치는 영향을 조절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65 지역사회지지의 조절효과(공격성)>

| 요인 | 비표준화 계수 | | 표준화 계수 | t | 유의 확률 | F | R ² |
|------------|---------|------|--------|---------|-------|------------|----------------|
| | B | 표준오차 | 베타 | | | | |
| (상수) | 31.757 | .126 | | 252.571 | .000 | | |
| 공격성 | 3.518 | .145 | .420 | 24.194 | .000 | 195.799*** | .177 |
| 지역사회지지 | -.017 | .152 | -.002 | -.110 | .912 | | |
| 공격성*지역사회지지 | .136 | .162 | .015 | .837 | .403 | | |

*** $p < .001$

5) 청소년 정신병리가 스마트폰 중독정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

(1) 불안이 스마트폰 중독정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

불안이 스마트폰 중독정도에 미치는 영향을 사회적 지지가 조절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불안과 사회적 지지의 상호작용항을 포함하는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불안과 사회적 지지는 스마트폰 중독정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p < .001$). 이 두 변인의 상호작용항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사회적 지지는 불안이 스마트폰 중독정도에 미치는 영향을 조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p < .01$).

<표 66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불안)>

| 요인 | 비표준화 계수 | | 표준화 계수 | t | 유의 확률 | F | R ² |
|-----------|---------|------|--------|---------|----------|-----------|----------------|
| | B | 표준오차 | 베타 | | | | |
| (상수) | 31.816 | .129 | | 246.312 | .000 | | |
| 불안 | 2.535 | .134 | .339 | 18.850 | .000 | 203.776** | .183 |
| 사회적 지지 | -2.244 | .233 | -.175 | -9.635 | .000 | | |
| 불안*사회적 지지 | .564 | .208 | .047 | 2.709 | .007 | | |

*** $p < .001$

(2) 우울이 스마트폰 중독정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

우울이 스마트폰 중독정도에 미치는 영향을 사회적 지지가 조절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우울과 사회적 지지의 상호작용항을 포함하는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우울과 사회적 지지는 스마트폰 중독정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p < .001$). 이 두 변인의 상호작용항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사회적 지지는 우울이 스마트폰 중독정도에 미치는 영향을 조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p < .001$).

<표 67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우울)>

| 요인 | 비표준화 계수 | | 표준화 계수 | t | 유의 확률 | F | R ² |
|-----------|---------|------|--------|---------|----------|------------|----------------|
| | B | 표준오차 | 베타 | | | | |
| (상수) | 32.017 | .135 | | 237.896 | .000 | | |
| 우울 | 3.242 | .173 | .364 | 18.772 | .000 | 201.340*** | .181 |
| 사회적 지지 | -1.636 | .244 | -.127 | -6.705 | .000 | | |
| 우울*사회적 지지 | 1.398 | .271 | .092 | 5.154 | .000 | | |

*** $p < .001$

(3) 충동성이 스마트폰 중독정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

충동성이 스마트폰 중독정도에 미치는 영향을 사회적 지지가 조절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충동성과 사회적 지지의 상호작용항을 포함하는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충동성과 사회적 지지는 스마트폰 중독정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p < .001$). 이 두 변인의 상호작용항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사회적 지지는 충동성이 스마트폰 중독정도에 미치는 영향을 조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p < .001$).

<표 68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충동성)>

| 요인 | 비표준화 계수 | | 표준화 계수 | t | 유의 확률 | F | R ² |
|------------|---------|------|--------|---------|-------|------------|----------------|
| | B | 표준오차 | 베타 | | | | |
| (상수) | 31.921 | .129 | | 248.333 | .000 | | |
| 충동성 | 3.479 | .161 | .388 | 21.618 | .000 | 244.052*** | .211 |
| 사회적 지지 | -1.845 | .233 | -.144 | -7.929 | .000 | | |
| 충동성*사회적 지지 | 1.125 | .262 | .074 | 4.289 | .000 | | |

*** p<.001

(4) 공격성이 스마트폰 중독정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

공격성이 스마트폰 중독정도에 미치는 영향을 사회적 지지가 조절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공격성과 사회적 지지의 상호작용항을 포함하는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공격성과 사회적 지지는 스마트폰 중독정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p < .001$). 이 두 변인의 상호작용항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사회적 지지는 공격성이 스마트폰 중독정도에 미치는 영향을 조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p < .001$).

<표 69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공격성)>

| 요인 | 비표준화 계수 | | 표준화 계수 | t | 유의 확률 | F | R ² |
|------------|---------|------|--------|---------|-------|------------|----------------|
| | B | 표준오차 | 베타 | | | | |
| (상수) | 31.903 | .130 | | 244.992 | .000 | | |
| 공격성 | 3.181 | .154 | .380 | 20.690 | .000 | 228.693*** | .201 |
| 사회적 지지 | -1.801 | .236 | -.140 | -7.644 | .000 | | |
| 공격성*사회적 지지 | .895 | .244 | .064 | 3.669 | .000 | | |

*** p<.001

6. 청소년 사이버일탈행동이 스마트폰 중독정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

1) 청소년 사이버일탈행동이 스마트폰 중독정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친구지지의 조절효과

(1) 게임중독이 스마트폰 중독정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친구지지의 조절효과

게임중독이 스마트폰 중독정도에 미치는 영향을 친구지지가 조절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게임중독과 친구지지의 상호작용항을 포함하는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게임중독과 친구지지는 스마트폰 중독정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p<.001$), 이 두 변인의 상호작용항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친구지지는 게임중독이 스마트폰 중독정도에 미치는 영향을 조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p<.001$).

<표 70 친구지지의 조절효과(게임중독)>

| 요인 | 비표준화 계수 | | 표준화 계수 | t | 유의 확률 | F | R ² |
|-----------|---------|------|--------|---------|-------|------------|----------------|
| | B | 표준오차 | 베타 | | | | |
| (상수) | 31.881 | .133 | | 238.927 | .000 | | |
| 게임중독 | 4.162 | .240 | .335 | 17.356 | .000 | | |
| 친구지지 | -1.325 | .176 | -.139 | -7.540 | .000 | 157.562*** | .148 |
| 게임중독*친구지지 | 1.090 | .301 | .067 | 3.618 | .000 | | |

*** p<.001

(2) 채팅언어폭력이 스마트폰 중독정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친구지지의 조절효과

채팅언어폭력이 스마트폰 중독정도에 미치는 영향을 친구지지가 조절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채팅언어폭력과 친구지지의 상호작용항을 포함하는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채팅언어폭력과 친구지지는 스마트폰 중독정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p<.001$), 이 두 변인의 상호작용항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친구지지는 채팅언어폭력이 스마트폰 중독정도에 미치는 영향을 조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p<.001$).

<표 71 친구지지의 조절효과(채팅언어폭력)>

| 요인 | 비표준화 계수 | | 표준화 계수 | t | 유의 확률 | F | R ² |
|-------------|---------|------|--------|---------|-------|-----------|----------------|
| | B | 표준오차 | 베타 | | | | |
| (상수) | 31.853 | .131 | | 243.207 | .000 | | |
| 채팅언어폭력 | 3.449 | .195 | .328 | 17.667 | .000 | | |
| 친구지지 | -1.518 | .172 | -.160 | -8.819 | .000 | 160.592** | .150 |
| 채팅언어폭력*친구지지 | 1.003 | .248 | .073 | 4.048 | .000 | | |

*** p<.001

(3) 사이버사기가 스마트폰 중독정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친구지지의 조절효과

사이버사기가 스마트폰 중독정도에 미치는 영향을 친구지지가 조절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사이버사기와 친구지지의 상호작용항을 포함하는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사이버사기와 친구지지는 스마트폰 중독정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p<.001$), 이 두 변인의 상호작용항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친구지지는 사이버사기가 스마트폰 중독정도에 미치는 영향을 조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p<.01$).

<표 72 친구지지의 조절효과(사이버사기)>

| 요인 | 비표준화 계수 | | 표준화 계수 | | 유의 확률 | F | R ² |
|------------|---------|------|--------|---------|-------|-----------|----------------|
| | B | 표준오차 | 베타 | t | | | |
| (상수) | 31.868 | .136 | | 234.488 | .000 | | |
| 사이버사기 | 3.520 | .270 | .265 | 13.038 | .000 | 111.910** | .110 |
| 친구지지 | -1.564 | .180 | -.164 | -8.692 | .000 | | |
| 사이버사기*친구지지 | 1.140 | .356 | .063 | 3.204 | .001 | | |

*** p<.001

(4) 성적일탈이 스마트폰 중독정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친구지지의 조절효과

성적일탈이 스마트폰 중독정도에 미치는 영향을 친구지지가 조절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성적일탈과 친구지지의 상호작용항을 포함하는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성적일탈과 친구지지는 스마트폰 중독정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p<.001$), 이 두 변인의 상호작용항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친구지지는 성적일탈이 스마트폰 중독정도에 미치는 영향을 조절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73 친구지지의 조절효과(성적일탈)>

| 요인 | 비표준화 계수 | | 표준화 계수 | | 유의 확률 | F | R ² |
|-----------|---------|------|--------|---------|-------|-----------|----------------|
| | B | 표준오차 | 베타 | t | | | |
| (상수) | 31.762 | .135 | | 234.602 | .000 | | |
| 성적일탈 | 2.811 | .277 | .203 | 10.148 | .000 | 90.478*** | .091 |
| 친구지지 | -1.791 | .178 | -.188 | -10.070 | .000 | | |
| 성적일탈*친구지지 | .209 | .356 | .012 | .587 | .557 | | |

*** p<.001

(5) 불법정보유출이 스마트폰 중독정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친구지지의 조절효과

불법정보유출이 스마트폰 중독정도에 미치는 영향을 친구지지가 조절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불법정보유출과 친구지지의 상호작용항을 포함하는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불법정보유출과 친구지지는 스마트폰 중독정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p < .001$), 이 두 변인의 상호작용항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친구지지는 불법정보유출이 스마트폰 중독정도에 미치는 영향을 조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p < .01$).

<표 74 친구지지의 조절효과(불법정보유출)>

| 요인 | 비표준화 계수 | | 표준화 계수 | | 유의 확률 | F | R ² |
|-------------|---------|------|--------|---------|-------|------------|----------------|
| | B | 표준오차 | 베타 | t | | | |
| (상수) | 31.848 | .135 | | 235.901 | .000 | | |
| 불법정보유출 | 3.478 | .294 | .243 | 11.842 | .000 | 100.480*** | .100 |
| 친구지지 | -1.671 | .178 | -.176 | -9.373 | .000 | | |
| 불법정보유출*친구지지 | 1.279 | .389 | .066 | 3.289 | .001 | | |

*** $p < .001$

(6) 도박문제가 스마트폰 중독정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친구지지의 조절효과

도박문제가 스마트폰 중독정도에 미치는 영향을 친구지지가 조절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도박문제와 친구지지의 상호작용항을 포함하는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도박문제와 친구지지는 스마트폰 중독정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p < .001$), 이 두 변인의 상호작용항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친구지지는 도박문제가 스마트폰 중독정도에 미치는 영향을 조절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75 친구지지의 조절효과(도박문제)>

| 요인 | 비표준화 계수 | | 표준화 계수 | | 유의 확률 | F | R ² |
|-----------|---------|------|--------|---------|-------|-----------|----------------|
| | B | 표준오차 | 베타 | t | | | |
| (상수) | 31.785 | .135 | | 235.158 | .000 | | |
| 도박문제 | 2.491 | .260 | .194 | 9.589 | .000 | 85.273*** | .086 |
| 친구지지 | -1.857 | .178 | -.195 | -10.433 | .000 | | |
| 도박문제*친구지지 | .552 | .363 | .030 | 1.521 | .128 | | |

*** $p < .001$

2) 청소년 사이버일탈행동이 스마트폰 중독정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가족지지의 조절효과

(1) 게임중독이 스마트폰 중독정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가족지지의 조절효과

게임중독이 스마트폰 중독정도에 미치는 영향을 가족지지가 조절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게임중독과 가족지지의 상호작용항을 포함하는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게임중독과 가족지지는 스마트폰 중독정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p < .001$), 이 두 변인의 상호작용항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가족지지는 게임중독이 스마트폰 중독정도에 미치는 영향을 조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p < .001$).

<표 76 가족지지의 조절효과(게임중독)>

| 요인 (상수) | 비표준화 계수 | | 표준화 계수 | t | 유의 확률 | F | R ² |
|------------|---------|------|--------|---------|-------|------------|----------------|
| | B | 표준오차 | 베타 | | | | |
| 게임중독 | 4.133 | .245 | .333 | 16.877 | .000 | 186.569*** | .171 |
| 가족지지 | -1.674 | .158 | -.194 | -10.599 | .000 | | |
| 게임중독*가족지지 | 1.422 | .270 | .099 | 5.259 | .000 | | |

*** p<.001

(2) 채팅언어폭력이 스마트폰 중독정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가족지지의 조절효과

채팅언어폭력이 스마트폰 중독정도에 미치는 영향을 가족지지가 조절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채팅언어폭력과 가족지지의 상호작용항을 포함하는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채팅언어폭력과 가족지지는 스마트폰 중독정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p < .001$), 이 두 변인의 상호작용항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가족지지는 채팅언어폭력이 스마트폰 중독정도에 미치는 영향을 조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p < .001$).

<표 77 가족지지의 조절효과(채팅언어폭력)>

| 요인 (상수) | 비표준화 계수 | | 표준화 계수 | t | 유의 확률 | F | R ² |
|-------------|---------|------|--------|---------|-------|------------|----------------|
| | B | 표준오차 | 베타 | | | | |
| 채팅언어폭력 | 3.322 | .196 | .315 | 16.939 | .000 | 188.016*** | .172 |
| 가족지지 | -1.828 | .155 | -.212 | -11.767 | .000 | | |
| 채팅언어폭력*가족지지 | 1.166 | .215 | .098 | 5.429 | .000 | | |

*** p<.001

(3) 사이버사기가 스마트폰 중독정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가족지지의 조절효과

사이버사기가 스마트폰 중독정도에 미치는 영향을 가족지지가 조절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사이버사기와 가족지지의 상호작용항을 포함하는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사이버사기와 가족지지는 스마트폰 중독정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p<.001$), 이 두 변인의 상호작용항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가족지지는 사이버사기가 스마트폰 중독정도에 미치는 영향을 조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p<.001$).

<표 78 가족지지의 조절효과(사이버사기)>

| 요인 | 비표준화 계수 | | 표준화 계수 | t | 유의 확률 | F | R ² |
|------------|---------|------|--------|---------|-------|-------------|----------------|
| | B | 표준오차 | 베타 | | | | |
| (상수) | 31.971 | .136 | | 235.327 | .000 | | |
| 사이버사기 | 3.540 | .280 | .267 | 12.663 | .000 | 140.981 *** | .135 |
| 가족지지 | -1.849 | .162 | -.215 | -11.425 | .000 | | |
| 사이버사기*가족지지 | 1.631 | .316 | .104 | 5.169 | .000 | | |

*** p<.001

(4) 성적일탈이 스마트폰 중독정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가족지지의 조절효과

성적일탈이 스마트폰 중독정도에 미치는 영향을 가족지지가 조절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성적일탈과 가족지지의 상호작용항을 포함하는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성적일탈과 가족지지는 스마트폰 중독정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p<.001$), 이 두 변인의 상호작용항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가족지지는 성적일탈이 스마트폰 중독정도에 미치는 영향을 조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p<.05$).

<표 79 가족지지의 조절효과(성적일탈)>

| 요인 | 비표준화 계수 | | 표준화 계수 | t | 유의 확률 | F | R ² |
|-----------|---------|------|--------|---------|-------|-------------|----------------|
| | B | 표준오차 | 베타 | | | | |
| (상수) | 31.847 | .136 | | 234.137 | .000 | | |
| 성적일탈 | 2.704 | .288 | .195 | 9.391 | .000 | 115.902 *** | .113 |
| 가족지지 | -2.058 | .161 | -.239 | -12.760 | .000 | | |
| 성적일탈*가족지지 | .781 | .326 | .048 | 2.394 | .017 | | |

*** p<.001

(5) 불법정보유출이 스마트폰 중독정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가족지지의 조절효과

불법정보유출이 스마트폰 중독정도에 미치는 영향을 가족지지가 조절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불법정보유출과 가족지지의 상호작용항을 포함하는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불법정보유출과 가족지지는 스마트폰 중독정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p<.001$), 이 두 변인의 상호작용항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가족지지는 불법정보유출이 스마트폰 중독정도에 미치는 영향을 조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p<.001$).

<표 80 가족지지의 조절효과(불법정보유출)>

| 요인 | 비표준화 계수 | | 표준화 계수 | t | 유의 확률 | F | R ² |
|-------------|---------|------|--------|---------|-------|------------------------|----------------|
| | B | 표준오차 | 베타 | | | | |
| (상수) | 31.918 | .135 | | 235.918 | .000 | | |
| 불법정보유출 | 3.409 | .307 | .238 | 11.122 | .000 | 127.411 ^{***} | .123 |
| 가족지지 | -1.955 | .161 | -.227 | -12.137 | .000 | | |
| 불법정보유출*가족지지 | 1.532 | .360 | .088 | 4.255 | .000 | | |

^{***} p<.001

(6) 도박문제가 스마트폰 중독정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가족지지의 조절효과

도박문제가 스마트폰 중독정도에 미치는 영향을 가족지지가 조절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도박문제와 가족지지의 상호작용항을 포함하는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도박문제와 가족지지는 스마트폰 중독정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p<.001$), 이 두 변인의 상호작용항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가족지지는 도박문제가 스마트폰 중독정도에 미치는 영향을 조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p<.05$).

<표 81 가족지지의 조절효과(도박문제)>

| 요인 | 비표준화 계수 | | 표준화 계수 | t | 유의 확률 | F | R ² |
|-----------|---------|------|--------|---------|-------|------------------------|----------------|
| | B | 표준오차 | 베타 | | | | |
| (상수) | 31.834 | .134 | | 236.812 | .000 | | |
| 도박문제 | 2.389 | .266 | .186 | 8.974 | .000 | 113.204 ^{***} | .111 |
| 가족지지 | -2.143 | .160 | -.249 | -13.399 | .000 | | |
| 도박문제*가족지지 | .787 | .312 | .051 | 2.523 | .012 | | |

^{***} p<.001

3) 청소년 사이버일탈행동이 스마트폰 중독정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교사의 조절효과

(1) 게임중독이 스마트폰 중독정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교사지지의 조절효과

게임중독이 스마트폰 중독정도에 미치는 영향을 교사지지가 조절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게임중독과 교사지지의 상호작용항을 포함하는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게임중독과 교사지지는 스마트폰 중독정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p<.001$), 이 두 변인의 상호작용항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교사지지는 게임중독이 스마트폰 중독정도에 미치는 영향을 조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p<.001$).

<표 82 교사지지의 조절효과(게임중독)>

| 요인 | 비표준화 계수 | | 표준화 계수 | | 유의 확률 | F | R ² |
|-----------|---------|------|--------|---------|-------|------------|----------------|
| | B | 표준오차 | 베타 | t | | | |
| (상수) | 31.900 | .130 | | 245.875 | .000 | | |
| 게임중독 | 4.237 | .231 | .341 | 18.347 | .000 | 187.528*** | .171 |
| 교사지지 | -1.760 | .177 | -.180 | -9.917 | .000 | | |
| 게임중독*교사지지 | 1.710 | .322 | .098 | 5.305 | .000 | | |

*** p<.001

(2) 채팅언어폭력이 스마트폰 중독정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교사지지의 조절효과

채팅언어폭력이 스마트폰 중독정도에 미치는 영향을 교사지지가 조절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채팅언어폭력과 교사지지의 상호작용항을 포함하는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채팅언어폭력과 교사지지는 스마트폰 중독정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p<.001$), 이 두 변인의 상호작용항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교사지지는 채팅언어폭력이 스마트폰 중독정도에 미치는 영향을 조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p<.001$).

<표 83 교사지지의 조절효과(채팅언어폭력)>

| 요인 | 비표준화 계수 | | 표준화 계수 | | 유의 확률 | F | R ² |
|-------------|---------|------|--------|---------|-------|------------|----------------|
| | B | 표준오차 | 베타 | t | | | |
| (상수) | 31.832 | .130 | | 245.568 | .000 | | |
| 채팅언어폭력 | 3.360 | .192 | .319 | 17.465 | .000 | 176.120*** | .163 |
| 교사지지 | -1.907 | .175 | -.196 | -10.905 | .000 | | |
| 채팅언어폭력*교사지지 | .878 | .248 | .063 | 3.536 | .000 | | |

*** p<.001

(3) 사이버사기가 스마트폰 중독정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교사지지의 조절효과

사이버사기가 스마트폰 중독정도에 미치는 영향을 교사지지가 조절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사이버사기와 교사지지의 상호작용항을 포함하는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사이버사기와 교사지지는 스마트폰 중독정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p < .001$), 이 두 변인의 상호작용항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교사지지는 사이버사기가 스마트폰 중독정도에 미치는 영향을 조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p < .01$).

<표 84 교사지지의 조절효과(사이버사기)>

| 요인 | 비표준화 계수 | | 표준화 계수 | t | 유의 확률 | F | R ² |
|------------|---------|------|--------|---------|-------|------------|----------------|
| | B | 표준오차 | 베타 | | | | |
| (상수) | 31.861 | .134 | | 238.304 | .000 | | |
| 사이버사기 | 3.506 | .262 | .264 | 13.377 | .000 | 131.986*** | .127 |
| 교사지지 | -1.948 | .184 | -.200 | -10.604 | .000 | | |
| 사이버사기*교사지지 | 1.364 | .397 | .067 | 3.438 | .001 | | |

*** p<.001

(4) 성적일탈이 스마트폰 중독정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교사지지의 조절효과

성적일탈이 스마트폰 중독정도에 미치는 영향을 교사지지가 조절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성적일탈과 교사지지의 상호작용항을 포함하는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성적일탈과 교사지지는 스마트폰 중독정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p < .001$), 이 두 변인의 상호작용항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교사지지는 성적일탈이 스마트폰 중독정도에 미치는 영향을 조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p < .05$).

<표 85 교사지지의 조절효과(성적일탈)>

| 요인 | 비표준화 계수 | | 표준화 계수 | t | 유의 확률 | F | R ² |
|-----------|---------|------|--------|---------|-------|------------|----------------|
| | B | 표준오차 | 베타 | | | | |
| (상수) | 31.806 | .134 | | 238.040 | .000 | | |
| 성적일탈 | 2.942 | .268 | .213 | 10.993 | .000 | 110.844*** | .109 |
| 교사지지 | -2.163 | .181 | -.222 | -11.931 | .000 | | |
| 성적일탈*교사지지 | .871 | .408 | .041 | 2.137 | .033 | | |

*** p<.001

(5) 불법정보유출이 스마트폰 중독정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교사지지의 조절효과

불법정보유출이 스마트폰 중독정도에 미치는 영향을 교사지지가 조절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불법정보유출과 교사지지의 상호작용항을 포함하는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불법정보유출과 교사지지는 스마트폰 중독정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p < .001$), 이 두 변인의 상호작용항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교사지지는 불법정보유출이 스마트폰 중독정도에 미치는 영향을 조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p < .01$).

<표 86 교사지지의 조절효과(불법정보유출)>

| 요인 | 비표준화 계수 | | 표준화 계수 | <i>t</i> | 유의 확률 | <i>F</i> | <i>R</i> ² |
|-------------|---------|------|--------|----------|-------|-------------|-----------------------|
| | B | 표준오차 | 베타 | | | | |
| (상수) | 31.847 | .133 | | 239.236 | .000 | | |
| 불법정보유출 | 3.421 | .280 | .239 | 12.231 | .000 | 120.719 *** | .117 |
| 교사지지 | -2.067 | .182 | -.213 | -11.367 | .000 | | |
| 불법정보유출*교사지지 | 1.539 | .444 | .068 | 3.469 | .001 | | |

*** $p < .001$

(6) 도박문제가 스마트폰 중독정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교사지지의 조절효과

도박문제가 스마트폰 중독정도에 미치는 영향을 교사지지가 조절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도박문제와 교사지지의 상호작용항을 포함하는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도박문제와 교사지지는 스마트폰 중독정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p < .001$), 이 두 변인의 상호작용항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교사지지는 도박문제가 스마트폰 중독정도에 미치는 영향을 조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p < .01$).

<표 87 교사지지의 조절효과(도박문제)>

| 요인 | 비표준화 계수 | | 표준화 계수 | <i>t</i> | 유의 확률 | <i>F</i> | <i>R</i> ² |
|-----------|---------|------|--------|----------|-------|-------------|-----------------------|
| | B | 표준오차 | 베타 | | | | |
| (상수) | 31.832 | .134 | | 238.043 | .000 | | |
| 도박문제 | 2.692 | .259 | .210 | 10.376 | .000 | 106.544 *** | .105 |
| 교사지지 | -2.158 | .183 | -.222 | -11.764 | .000 | | |
| 도박문제*교사지지 | 1.400 | .419 | .068 | 3.340 | .001 | | |

*** $p < .001$

4) 청소년 사이버일탈행동이 스마트폰 중독정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지역사회지지의 조절효과

(1) 게임중독이 스마트폰 중독정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지역사회지지의 조절효과

게임중독이 스마트폰 중독정도에 미치는 영향을 지역사회지지가 조절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게임중독과 지역사회지지의 상호작용항을 포함하는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게임중독은 스마트폰 중독정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p < .001$), 지역사회지지와 두 변인의 상호작용항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지역사회지지는 게임중독이 스마트폰 중독정도에 미치는 영향을 조절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88 지역사회지지의 조절효과(게임중독)>

| 요인 | 비표준화 계수 | | 표준화 계수 | | 유의 확률 | F | R ² |
|-------------|---------|------|--------|---------|-------|------------|----------------|
| | B | 표준오차 | 베타 | t | | | |
| (상수) | 31.743 | .130 | | 243.415 | .000 | | |
| 게임중독 | 4.410 | .225 | .355 | 19.591 | .000 | 129.405*** | .125 |
| 지역사회지지 | -.234 | .156 | -.027 | -1.496 | .135 | | |
| 게임중독*지역사회지지 | -.117 | .259 | -.008 | -.452 | .652 | | |

*** p<.001

(2) 채팅언어폭력이 스마트폰 중독정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지역사회지지의 조절효과

채팅언어폭력이 스마트폰 중독정도에 미치는 영향을 지역사회지지가 조절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채팅언어폭력과 지역사회지지의 상호작용항을 포함하는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채팅언어폭력은 스마트폰 중독정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p < .001$), 지역사회지지와 두 변인의 상호작용항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지역사회지지는 채팅언어폭력이 스마트폰 중독정도에 미치는 영향을 조절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89 지역사회지지의 조절효과(채팅언어폭력)>

| 요인 | 비표준화 계수 | | 표준화 계수 | | 유의 확률 | F | R ² |
|---------------|---------|------|--------|---------|-------|------------|----------------|
| | B | 표준오차 | 베타 | t | | | |
| (상수) | 31.733 | .130 | | 243.175 | .000 | | |
| 채팅언어폭력 | 3.647 | .190 | .346 | 19.228 | .000 | 123.316*** | .120 |
| 지역사회지지 | -.151 | .157 | -.017 | -.962 | .336 | | |
| 채팅언어폭력*지역사회지지 | -.132 | .218 | -.011 | -.605 | .545 | | |

*** p<.001

(3) 사이버사기가 스마트폰 중독정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지역사회지지의 조절효과

사이버사기가 스마트폰 중독정도에 미치는 영향을 지역사회지지가 조절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사이버사기와 지역사회지지의 상호작용항을 포함하는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사이버사기는 스마트폰 중독정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p < .001$), 지역사회지지와 두 변인의 상호작용항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지역사회지지는 사이버사기가 스마트폰 중독정도에 미치는 영향을 조절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90 지역사회지지의 조절효과(사이버사기)>

| 요인 | 비표준화 계수 | | 표준화 계수 | t | 유의 확률 | F | R ² |
|--------------|---------|------|--------|---------|-------|-----------------------|----------------|
| | B | 표준오차 | 베타 | | | | |
| (상수) | 31.744 | .134 | | 236.817 | .000 | | |
| 사이버사기 | 3.815 | .254 | .288 | 15.043 | .000 | 78.672 ^{***} | .080 |
| 지역사회지지 | -.285 | .161 | -.033 | -1.768 | .077 | | |
| 사이버사기*지역사회지지 | -.250 | .299 | -.016 | -.836 | .403 | | |

^{***} p<.001

(4) 성적일탈이 스마트폰 중독정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지역사회지지의 조절효과

성적일탈이 스마트폰 중독정도에 미치는 영향을 지역사회지지가 조절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성적일탈과 지역사회지지의 상호작용항을 포함하는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성적일탈은 스마트폰 중독정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p < .001$), 지역사회지지와 두 변인의 상호작용항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지역사회지지는 성적일탈이 스마트폰 중독정도에 미치는 영향을 조절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91 지역사회지지의 조절효과(성적일탈)>

| 요인 | 비표준화 계수 | | 표준화 계수 | t | 유의 확률 | F | R ² |
|-------------|---------|------|--------|---------|-------|-----------------------|----------------|
| | B | 표준오차 | 베타 | | | | |
| (상수) | 31.740 | .136 | | 233.995 | .000 | | |
| 성적일탈 | 3.354 | .269 | .242 | 12.461 | .000 | 54.922 ^{***} | .057 |
| 지역사회지지 | -.262 | .163 | -.030 | -1.611 | .107 | | |
| 성적일탈*지역사회지지 | -.143 | .314 | -.009 | -.455 | .649 | | |

^{***} p<.001

(5) 불법정보유출이 스마트폰 중독정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지역사회지지의 조절효과

불법정보유출이 스마트폰 중독정도에 미치는 영향을 지역사회지지가 조절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불법정보유출과 지역사회지지의 상호작용항을 포함하는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불법정보유출은 스마트폰 중독정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p < .001$), 지역사회지지와 두 변인의 상호작용항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지역사회지지는 불법정보유출이 스마트폰 중독정도에 미치는 영향을 조절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92 지역사회지지의 조절효과(불법정보유출)>

| 요인 (상수) | 비표준화 계수 | | 표준화 계수 | t | 유의 확률 | F | R ² |
|-------------------|---------|------|-----------|--------|----------|-----------------------|----------------|
| | B | 표준오차 | 베타 | | | | |
| 불법정보유출 | 3.707 | .277 | .259 | 13.386 | .000 | 62.382 ^{***} | .064 |
| 지역사회지지 | -.270 | .162 | -.031 | -1.667 | .096 | | |
| 불법정보유출 *지역사회지지 | -.306 | .321 | -.018 | -.953 | .341 | | |

*** $p < .001$

(6) 도박문제가 스마트폰 중독정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지역사회지지의 조절효과

도박문제가 스마트폰 중독정도에 미치는 영향을 지역사회지지가 조절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도박문제와 지역사회지지의 상호작용항을 포함하는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도박문제는 스마트폰 중독정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p < .001$), 지역사회지지와 두 변인의 상호작용항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지역사회지지는 도박문제가 스마트폰 중독정도에 미치는 영향을 조절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93 지역사회지지의 조절효과(도박문제)>

| 요인 (상수) | 비표준화 계수 | | 표준화 계수 | t | 유의 확률 | F | R ² |
|-------------|---------|------|-----------|--------|----------|-----------------------|----------------|
| | B | 표준오차 | 베타 | | | | |
| 도박문제 | 2.810 | .255 | .219 | 10.999 | .000 | 45.087 ^{***} | .047 |
| 지역사회지지 | -.271 | .163 | -.031 | -1.659 | .097 | | |
| 도박문제*지역사회지지 | -.018 | .270 | -.001 | -.066 | .947 | | |

*** $p < .001$

(7) 사이버일탈행동이 스마트폰 중독정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지역사회지지의 조절효과

사이버일탈행동이 스마트폰 중독정도에 미치는 영향을 지역사회지지가 조절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사이버일탈행동과 지역사회지지의 상호작용항을 포함하는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사이버일탈행동과 지역사회지지는 스마트폰 중독정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p < .05$), 이 두 변인의 상호작용항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지역사회지지는 사이버일탈행동이 스마트폰 중독정도에 미치는 영향을 조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p < .01$).

<표 94 지역사회지지의 조절효과(사이버일탈행동)>

| 요인 | 비표준화 계수 | | 표준화 계수 | t | 유의 확률 | F | R ² |
|--------------------|---------|------|--------|---------|-------|------------------------|----------------|
| | B | 표준오차 | 베타 | | | | |
| (상수) | 31.764 | .133 | | 237.966 | .000 | | |
| 사이버일탈행동 | 5.065 | .282 | .346 | 17.989 | .000 | | |
| 지역사회지지 | -.370 | .161 | -.042 | -2.298 | .022 | 110.279 ^{***} | .110 |
| 사이버일탈행동 *지역사회지지 | -.905 | .325 | -.054 | -2.787 | .005 | | |

^{***} $p < .001$

5) 청소년 사이버일탈행동이 스마트폰 중독정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

(1) 게임중독이 스마트폰 중독정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

게임중독이 스마트폰 중독정도에 미치는 영향을 사회적 지지가 조절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게임중독과 사회적 지지의 상호작용항을 포함하는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게임중독과 사회적 지지는 스마트폰 중독정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p < .001$), 이 두 변인의 상호작용항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사회적 지지는 게임중독이 스마트폰 중독정도에 미치는 영향을 조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p < .001$).

<표 95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게임중독)>

| 요인 | 비표준화 계수 | | 표준화 계수 | t | 유의 확률 | F | R ² |
|-------------|---------|------|--------|---------|-------|------------------------|----------------|
| | B | 표준오차 | 베타 | | | | |
| (상수) | 31.891 | .131 | | 243.776 | .000 | | |
| 게임중독 | 4.075 | .234 | .328 | 17.443 | .000 | | |
| 사회적 지지 | -2.457 | .234 | -.191 | -10.513 | .000 | 183.281 ^{***} | .168 |
| 게임중독*사회적 지지 | 1.801 | .388 | .085 | 4.638 | .000 | | |

^{***} $p < .001$

(2) 채팅언어폭력이 스마트폰 중독정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

채팅언어폭력이 스마트폰 중독정도에 미치는 영향을 사회적 지지가 조절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채팅언어폭력과 사회적 지지의 상호작용항을 포함하는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채팅언어폭력과 사회적 지지는 스마트폰 중독정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p < .001$), 이 두 변인의 상호작용항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사회적 지지는 채팅언어폭력이 스마트폰 중독정도에 미치는 영향을 조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p < .001$).

<표 96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채팅언어폭력)>

| 요인 (상수) | 비표준화 계수 | | 표준화 계수 | t | 유의 확률 | F | R ² |
|---------------|---------|------|-----------|---------|----------|------------|----------------|
| | B | 표준오차 | 베타 | | | | |
| 채팅언어폭력 | 3.325 | .130 | .316 | 17.137 | .000 | 179.717*** | .165 |
| 사회적 지지 | -2.594 | .232 | -.202 | -11.197 | .000 | | |
| 채팅언어폭력*사회적 지지 | 1.283 | .325 | .071 | 3.948 | .000 | | |

*** p<.001

(3) 사이버사기가 스마트폰 중독정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

사이버사기가 스마트폰 중독정도에 미치는 영향을 사회적 지지가 조절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사이버사기와 사회적 지지의 상호작용항을 포함하는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사이버사기와 사회적 지지는 스마트폰 중독정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p < .001$), 이 두 변인의 상호작용항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사회적 지지는 사이버사기가 스마트폰 중독정도에 미치는 영향을 조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p < .001$).

<표 97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사이버사기)>

| 요인 (상수) | 비표준화 계수 | | 표준화 계수 | t | 유의 확률 | F | R ² |
|--------------|---------|------|-----------|---------|----------|------------|----------------|
| | B | 표준오차 | 베타 | | | | |
| 사이버사기 | 3.401 | .133 | .257 | 13.219 | .000 | 136.018*** | .131 |
| 사회적 지지 | -2.751 | .238 | -.214 | -11.549 | .000 | | |
| 사이버사기*사회적 지지 | 1.748 | .454 | .073 | 3.851 | .000 | | |

*** p<.001

(4) 성적일탈이 스마트폰 중독정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

성적일탈이 스마트폰 중독정도에 미치는 영향을 사회적 지지가 조절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성적일탈과 사회적 지지의 상호작용항을 포함하는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성적일탈과 사회적 지지는 스마트폰 중독정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p < .001$), 이 두 변인의 상호작용항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사회적 지지는 성적일탈이 스마트폰 중독정도에 미치는 영향을 조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p < .05$).

<표 98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성적일탈)>

| 요인 | 비표준화 계수 | | 표준화 계수 | t | 유의 확률 | F | R ² |
|-------------|---------|------|--------|---------|-------|------------|----------------|
| | B | 표준오차 | 베타 | | | | |
| (상수) | 31.790 | .133 | | 238.881 | .000 | | |
| 성적일탈 | 2.829 | .264 | .204 | 10.732 | .000 | 114.820*** | .112 |
| 사회적 지지 | -3.030 | .236 | -.236 | -12.833 | .000 | | |
| 성적일탈*사회적 지지 | .916 | .451 | .038 | 2.029 | .043 | | |

*** $p < .001$

(5) 불법정보유출이 스마트폰 중독정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

불법정보유출이 스마트폰 중독정도에 미치는 영향을 사회적 지지가 조절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불법정보유출과 사회적 지지의 상호작용항을 포함하는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불법정보유출과 사회적 지지는 스마트폰 중독정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p < .001$), 이 두 변인의 상호작용항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사회적 지지는 불법정보유출이 스마트폰 중독정도에 미치는 영향을 조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p < .001$).

<표 99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불법정보유출)>

| 요인 | 비표준화 계수 | | 표준화 계수 | t | 유의 확률 | F | R ² |
|---------------|---------|------|--------|---------|-------|------------|----------------|
| | B | 표준오차 | 베타 | | | | |
| (상수) | 31.835 | .132 | | 240.352 | .000 | | |
| 불법정보유출 | 3.327 | .275 | .233 | 12.077 | .000 | 124.933*** | .121 |
| 사회적 지지 | -2.925 | .236 | -.228 | -12.418 | .000 | | |
| 불법정보유출*사회적 지지 | 1.812 | .487 | .071 | 3.717 | .000 | | |

*** $p < .001$

(6) 도박문제가 스마트폰 중독정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

도박문제가 스마트폰 중독정도에 미치는 영향을 사회적 지지가 조절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도박문제와 사회적 지지의 상호작용항을 포함하는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도박문제와 사회적 지지는 스마트폰 중독정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p<.001$), 이 두 변인의 상호작용항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사회적 지지는 도박문제가 스마트폰 중독정도에 미치는 영향을 조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p<.01$).

<표 100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도박문제)>

| 요인 (상수) | 비표준화 계수 | | 표준화 계수 | <i>t</i> | 유의 확률 | <i>F</i> | <i>R</i> ² |
|-------------|---------|------|--------|----------|----------|------------------------|-----------------------|
| | B | 표준오차 | 베타 | | | | |
| 도박문제 | 2.520 | .243 | .197 | 10.350 | .000 | 111.893 ^{***} | .110 |
| 사회적 지지 | -3.125 | .235 | -.243 | -13.281 | .000 | | |
| 도박문제*사회적 지지 | 1.265 | .446 | .053 | 2.834 | .005 | | |

*** $p<.001$

2017년 충청남도 청소년 스마트폰 사용 실태조사

IV . 결론 및 제언

IV. 결론 및 제언

1. 연구결과 요약

본 연구에서는 충청남도 청소년 스마트폰 사용 실태와 스마트폰 과다사용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청소년 정신병리, 사이버일탈행동, 사회적 지지의 전반적 특징을 파악하고, 이 특성이 스마트폰 과다사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사회적지지의 조절효과를 알아보았다. 이를 위해 충청남도 초·중·고등학교,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청소년 등 3,200명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중 3,043명의 자료가 회수되어 이 자료에 대해 분석하였다.

연구대상자들의 일반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조사대상자 중 남자는 50.4%, 여자는 49.2%로 성비가 유사하였다. 조사대상자의 연령은 17세가 19.0%, 18세가 14.9%, 13세가 14.3%, 16세가 12.2%, 14세가 11.5% 등의 순이었다. 조사대상자의 소속기관은 중학교가 31.8%로 가장 많았고, 인문계 고등학교가 29.6%, 초등학교가 25.0% 등의 순이었다.

둘째, 조사대상자의 지역은 천안시가 29.0%로 가장 많았으며, 아산시가 13.3%, 서산시가 8.3%, 당진시가 8.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셋째, 헬프콜 청소년전화 1388을 알고 있는 조사대상자는 65.0%이었으나, 이용한 경험이 있는 조사대상자는 5.7%에 불과하였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대해 알고 있는 조사대상자는 63.9%이었고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상담을 받아본 경험이 있는 조사대상자는 10.1%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연구대상자 인구학적 특성별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스마트폰 사용시기 저연령화 추세

충청남도 스마트폰사용 특성으로 조사 대상자 중 93.7%는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초등학교 4-5학년이 사용하기 시작했다는 응답이 38.0%로 가장 많았고, 초등학교 1-3학년이 28.7%, 중학교 1-3학년이 21.5% 등 초등학교부터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비율은 71.6%로 높게 나타났다. 이는 스마트폰을 접하는 시기가 점점 저연령화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스마트폰 사용시간은 1시간-3시간미만 36.2%, 3시간-5시간미만이 24.9%로 대부분이었다. 여학생들이 다소 길었고, 나이가 많을수록, 학년이 높을수록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경제수준이 높을수록, 물질적·정서적 지지를 받고 있지 못할수록 사용시간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스마트폰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기능 여학생 SNS, 남학생 게임

스마트폰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기능은 SNS가 26.0%로 가장 많았고, 음악 및 동영상 감상이 25.2%, 게임이 17.6%, 전화 및 문자가 16.4% 등의 순으로 많았다. 남학생은 게임, 여학생은 SNS를 가장 많이 사용한다고 응답하였고, 나이가 어릴수록 게임의 비율이 높았고, 15세 이상이 되면 SNS의 비율이 높았다.

스마트폰 사용시간대는 저녁시간(7시~10시)이 31.5%로 가장 많았고, 방과 후 오후 26.6%, 밤(10시~12시) 20.3%, 밤 12시 이후 6.7% 순 이었다. 연령이 많을수록, 학년이 높을수록 사용 시간대가 늦었으며, 시단위에서는 밤 12시 이후 이용 비율이 다소 높은 경향이 있었다. 경제수준이 낮고, 물질적·정서적 지원을 받고 있지 못한 학생들도 밤 12시 이후 이용비율도 다소 높은 경향이 나타났다.

자신이 생각하는 스마트폰 의존정도는 보통이라고 응답한 조사 대상자가 49.0%이었으며, 높다고 응답한 대상자는 25.5%로 다소 많았다. 여학생 비율이 남학생 보다 높았고, 나이가 많을수록, 학년이 높아질수록 의존도가 높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다소 높은 경향이 있었다. 경제수준이 낮고, 물질적·정서적 지원을 받고 있지 못할수록 의존도가 매우 높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높았다. 스마트폰 사용에 대한 만족도는 여학생, 인문계 고등학생들이 만족도가 가장 높았고, 경제수준이 높고, 물질적·정서적 지원을 충분히 받고 있을수록 만족도가 높았다

스마트폰 중독 고위험군 및 잠재적 위험군 24.1%

스마트폰 중독정도는 일반군이 67.4%로 대부분이었고, 잠재군이 21.1%, 고위험군은 3.0%로 나타났다. 만족도는 3.57점으로 보통 이상이었다.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고위험군이 많았고, 중학생과 인문계고등학교, 시단위의 고위험군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경제수준이 보통과 잘사는 편인 경우가 고위험군 비율이 다소 높았으며, 물질적·정서적 지원을 보통 이상으로 받고 있는 청소년들 중 고위험군이 다소 높았다.

정신병리 (불안, 우울, 충동성, 공격성) 고위험군 및 여학생의 수준 높음

청소년정신병리 전반적 특성 분석 결과 조사대상자들의 정신병리 하위 요인들의 평균 점수는 모두 2.5점 미만으로 보통 수준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위험군 학생들의 불안, 우울, 충동성, 공격성 수준이 더 높았다. 학교 밖 청소년, 경제수준이 매우 어려운편인 학생, 물질적·정서적 지원이 부족한 학생들이 불안, 우울, 충동성 및 공격성 모두 높게 나타났으며, 불안은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높았고, 충동성과 공격성은 19세 이상, 학교밖 청소년들이 가장 높은 경향으로 나타났다.

청소년 사이버일탈행동 (게임중독, 채팅언어폭력, 사이버사기, 성적일탈, 불법정보유출, 도박문제) 고위험군 및 남학생이 취약

청소년 사이버일탈행동의 전반적 특성 분석결과, 조사 대상자들의 사이버 일탈행동의 하위요인인 평균 점수는 모두 2점 미만으로 낮은 수준이었다. 하위요인 중 채팅언어폭력의 비율이 가장 높았다. 고위험군 학생들의 사이버일탈행동(게임중독, 채팅언어폭력, 사이버사기, 성적일탈, 불법정보유출, 도박문제)수준이 모두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 여자청소년에 비해 남자 청소년들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학교밖 청소년들 또한 모든 하위유형에서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밖에 혈연 이외 구성원과 살거나 독거하는 경우, 경제수준이 매우 어려운 경우, 물질적/정서적 지원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는 경우 사이버일탈행동의 모든 하위유형에서 가장 높은 경향으로 나타났다.

청소년이 지각하는 지역사회지지는 군단위 지역, 정서적 지지를 전혀 받지 못하는 청소년들이 가장 높은 경향

청소년이 지각하는 사회적지지의 전반적인 특징 분석결과, 조사 대상자들의 지각된 사회적 지지의 하위요인들 중 친구지지, 가족지지와 교사지지는 모두 평균 3점 이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역사회지지 요인은 2.74점으로 다른 요인들과 비교할 때 다소 낮았다. 친구지지는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다소 민감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경제수준이 잘사는 편, 물질적·정서적 지원을 충분히 받고 있는 경우 친구지지 수준이 가장 높은 경향으로 나타났다. 가족지지도 친구지지와 마찬가지로 여학생, 초등학생, 경제수준이 잘사는 편, 물질적·정서적 지원을 충분히 받고 있는 경우 가장 높은 경향으로 나타났다. 교사지지는 초등학생, 경제수준이 매우 잘사는 편, 물질적·정서적 지원을 충분히 받고 있는 경우 가장 높은 경향으로 나타났으며, 시단위보다 군단위에서 교사지지의 경향을 많이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지역사회지지는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다소 민감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시단위보다는 군단위에서, 정서적 지원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는 경우 지역사회지지 수준이 가장 높은 경향으로 나타났다. 또한 경제수준이 잘사는 편인 청소년들도 지역사회지지 수준이 높게 나타났다.

고위험군 청소년정신병리 및 사이버 일탈행동 수준 높은 반면, 청소년 스스로 지각하는 사회적지지 수준 낮음

스마트폰 중독정도에 따라 청소년들의 불안, 우울, 충동성, 공격성 수준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 < .05$). 고위험군 학생들의 불안, 우울, 충동성, 공격성 수준이 더 높았다.

스마트폰 중독정도에 따라 청소년들의 게임중독, 채팅언어폭력, 사이버사기, 성적일탈, 불법정보유출, 도박문제 수준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 < .05$). 고위험군 학생들의 게임중독, 채팅언어폭력, 사이버사기, 성적일탈, 불법정보유출, 도박문제 수준이 더 높았다.

스마트폰 중독정도에 따라 청소년들의 친구지지, 가족지지, 교사지지 수준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 < .05$). 고위험군 학생들의 친구지지, 가족지지, 교사지지 수준이 더 낮았다.

사회적지지 높을수록 청소년정신병리 및 사이버 일탈행동 감소

사회적지지의 각 하위요인이 청소년 정신병리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불안은 친구, 가족, 교사지지가 높을수록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울, 공격성, 충동성은 사회적지지(친구, 가족, 교사, 지역사회지지) 높을수록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지지의 각 하위요인이 청소년 사이버일탈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친구지지, 가족지지, 부모지지, 지역사회지지가 높을수록 청소년 사이버일탈행동의 모든 하위유형(게임중독, 채팅언어폭력, 사이버사기, 성적일탈, 불법정보유출, 도박문제)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지지는 청소년 정신병리가 스마트폰 중독에 미치는 영향을 조절

청소년 정신병리가 스마트폰 중독정도에 미치는 영향을 사회적지지가 조절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하위유형별 상호작용항을 포함하는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사회적지지(친구지지, 가족지지, 교사지지)가 높다고 지각할수록 청소년 정신병리(불안, 우울, 충동성, 공격성)가 스마트폰 중독에 미치는 영향을 조절하여 스마트폰 중독정도를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지지가 사이버일탈행동이 스마트폰 중독에 미치는 영향을 조절

사이버일탈행동(게임중독, 채팅언어폭력, 사이버사기, 성적일탈, 불법정보유출, 도박문제)이 스마트폰 중독정도에 미치는 영향을 사회적지지가 조절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사이버일탈행동과 사회적지지의 상호작용항을 포함하는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사회적지지(친구지지, 가족지지, 교사지지)가 높다고 지각할수록 사이버 일탈행동(게임중독, 채팅언어폭력, 사이버사기, 성적일탈, 불법정보유출, 도박문제)이 스마트폰 중독에 미치는 영향을 조절하여 스마트폰 중독정도를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사회적지지의 하위유형 중 친구지지가 높다고 지각하여도, 성적일탈, 도박문제가 스마트폰 중독에 미치는 영향을 조절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회적지지 하위유형 중 지역사회지지가 높다고 지각하여도, 사이버일탈행동이 스마트폰 중독에 미치는 영향을 조절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논의 및 제언

충청남도 청소년 스마트폰 사용실태와 청소년 정신병리, 사이버일탈행동, 사회적지지의 전반적 특성, 청소년정신병리가 스마트폰 중독 정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사회적지지의 조절효과 및 사이버일탈행동이 스마트폰 중독 정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 결과를 바탕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첫째 초·중·고등학생 대상 스마트폰 중독 예방교육 실시

연구결과 조사대상자 93.7%가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으며, 초등학교 5학년이전 71.3%가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난 것은 스마트폰을 접하는 시기가 점점 저연령화 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고위험군이 많으며, 경제수준이 보통이상인 경우, 물질적·정서적 지원을 보통이상으로 받고 있는 청소년들이 고위험군 비율이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기존의 컴퓨터를 사용하는 인터넷 중독의 위험군이 사회문화적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분포되었다면 스마트폰 중독은 좀 더 일반적인 대상으로 확산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충남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스마트폰 과다사용 예방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해서는 충남도교육청, 시·군지원청과 및 일선학교와의 긴밀한 연계가 필요하다.

둘째, 자율적 스마트폰 사용 자녀를 기르는 부모교육 프로그램 강화

부모 및 주변에서 스마트폰 사용, 취침시간 및 생활습관 관리가 적절하지 못할 경우 스마트폰 사용이 늘어나고 의존도는 높아지게 된다. 또한 가정에서 물질적·정서적으로 충분한 지원을 받고 있지 않은 경우 스마트폰 고위험군이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사이버일탈행동과 스마트폰 중독정도에 가족지지가 높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아, 스마트폰 사용에 대한 자녀교육도 함께 진행되어야 한다. 부모의 강요에 의해 억지로 스마트폰을 사용할 못하는 것이 아닌 청소년이 자율적으로 스마트폰을 조절하여 사용할 수 있는 방법과 자녀 양육방법에 대한 교육으로 일상생활에서 스마트폰 사용조절훈련을 부모와 함께 한다면 스마트폰 과다사용 예방 효과를 높일 수 있다. 청소년들이 부모님과의 대화에 만족할수록 스마트폰 이용시간이나 중독은 낮아지는 반면, 부모님과의 대화에 불만족할수록 스마트폰 이용시간이나 중독은 높아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유홍식, 2013) 이는 부모와 자녀 대화방식이 중요함을 시사한다. 이와 관련 친밀하게 자녀와 관계 맺고 의사소통하기, 한계를 정하고 명확한 규칙을 통해 반복하여 습득하기, 자율성을 주고 책임을 지게하기 등의 내용으로 구성된 스마트폰을 자율적으로 조절하며 사용할 수 있는 자녀로 양육하는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셋째 성별에 따른 맞춤형 스마트폰 예방교육 프로그램 개발

여자 청소년의 경우 남자청소년에 비해 스마트폰 사용시간이 더 길었고, 잠재적위험군 및 고위험군의 비율이 높으며, 스마트폰에서 여학생은 SNS를 가장 많이 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정신병리 하위유형인 불안, 우울, 충동성에 여학생이 더 취약하며, 연령이 높아 질수록 수준이 높아졌다. 고위험군 학생들의 청소년 정신병리 수준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남자 청소년은 여자 청소년에 비해 사이버일탈행동 비율이 더 높으며, 스마트폰으로 게임을 가장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위험군 학생들의 사이버일탈행동 수준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여자 청소년은 정신병리와 현실에서의 건강한 대인관계형성을 중심으로 프로그램을 구성할 필요 있으며, 남자 청소년은 사이버일탈행동에 대한 예방교육 포함된 프로그램 구성으로 성별에 따른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이 이루어져야 한다.

넷째, 충남 건전미디어 환경조성을 위한 지역사회 지지체계 기관 협력 필요

친구지지, 가족지지, 교사지지가 높다고 지각하는 청소년일수록 불안, 우울, 공격성, 충동성이 감소하였으며, 불안, 청소년 정신병리(불안, 우울, 공격성, 충동성)가 스마트폰 중독정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사회적지지가 조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회적지지가 높다고 지각하는 청소년일수록 사이버일탈행동이 감소하였으며, 사이버일탈행동(게임중독, 채팅언어폭력, 사이버사기, 성적일탈, 불법정보유출, 도박문제)이 스마트폰 중독정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사회적 지지가 조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청소년이 지각하는 사회적 지지는 매우 중요하다 할 수 있다.

친구의 관심과 정서적 지지는 스마트폰 고위험군 청소년의 불안, 우울, 충동성을 감소시킬 수 있다. 청소년들이 주로 생활하는 학교에서 친구지지를 얻을 수 있는 학교 내 문화개선 등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교사의 따뜻한 관심과 배려 또한 사이버일탈행동(게임중독, 채팅언어폭력, 사이버사기, 성적일탈, 불법정보유출, 도박문제)을 감소시킬 수 있다. 이는 학교에서 교사의 역할에 새로운 시사점을 준다. 스마트폰 사용에 대한 통제보다는 평상시 교사와 학생 간에 관계가 중요함을 보여주며, 교사의 인식을 바꿀 수 있는 교육이 병행되어야 한다. 또한 가족지지가 높을수록 사이버 일탈행동 감소하였으며, 청소년 정신병리(불안, 우울, 공격성, 충동성)를 조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가족의 정서적 지지와 관심이 청소년의 스마트폰 중독과 긴밀한 관계가 있음을 볼 수 있다.

또한 학교 밖 청소년, 시단위 보다는 군단위 청소년, 정서적 지지를 전혀 받지 못하는 청소년들이 지역사회지지를 특히 많이 받고 있다고 지각하고 있었다. 이는 지역사회 기관들의 서비스에 대한 만족감과 필요성을 동시에 표현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위에서 제언한 모든 내용들은 한 기관에서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니며, 지역사회 전체가 협력하여 충남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협력해야 한다. 보다 나은 충남 건전 미디어 환경조성을 위하여 충청남도 지자체, 충남 16개 도, 시·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충남도교육청 및 지역지원청, 청소년 지지체계 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

참고문헌

- 강명심 (2009). 부모 - “자녀 간 의사소통유형과 진로결정 자기 효능감의 관계“.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강민주 (1993). “아동의 사회적 지지와 자기능력지각에 관한 연구“. 동아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고진선 (2016). “스마트폰 중독예방 집단상담 프로그램이 초등생의 자기통제력에 미치는 효과“.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권아현 (2013). “사회적 지지가 청소년의 개인비전과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경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구세희 (2014). “스마트폰의 애착형성 요인과 중독 경향성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금창민 (2013). “중·고등학생의 스마트폰 '중독 경향성(proneness)'과 정신건강 문제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대석 (2010). “부모양육 태도와 자녀의 우울증과의 상관관계 연구“. 상명대학교 복지상담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김미정 (2013). “사회적 지지, 학업적 자기효능감, 자기결정동기가 자기 조절학습에 미치는 영향“. 목포대학교 교육대학원.
- 김선혜 (2012). “사회적지지와 자아존중감이 청소년의 현실 비행과 사이버비행에 미치는 영향“. 명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성숙 (2012). “부모양육태도 변화가 자녀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선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성실 (2015).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 학업소진, 자아탄력성과의 관계“. 아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은지 (2014). “안산 일부지역 초등생의 스마트폰 중독과 식행동과의 상관성“. 경기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은지 (2016). “학교 밖 청소년의 사회적 배제, 스트레스가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 정서적 지지의 조절효과“. 건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
- 김은영 (2009). “부모 - 자녀간의 의사소통유형과 아동의 교우관계 및 학교생활 적응의 관계“.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지원 (2015). “청소년의 사회적 지지 및 내외 통제성향이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정희 (2017). “스마트폰, 인터넷, 게임 중독 청소년의 심리 행동특성 ,인간관계에 대한 연구“. 인하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종화 (2004). “부모-자녀간 의사소통과 중학생의 스트레스 및 스트레스 대처양식“. 국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종덕 (2001). “부모의 학습관여형태가 자녀의 학업동기에 미치는 영향“.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진영 (2013). “초등학생의 스마트폰 중독이 학교적응 유연성에 미치는 영향“. 신라대학교 사회복지 대학원.

- 김진한 (2015). “청소년의 내현적 자기애가 스마트폰 중독에 미치는 영향-우울의매개효과”. 단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지선 (2015). “청소년의 스마트폰 중독수준이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목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혁주 (2016). “사회적 지지가 청소년의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개인특성의 매개효과와 성별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조선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현정 (2013). “청소년의 스마트폰 중독과 사이버폭력과의 관계”. 광운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혜순 (2015). “청소년의 스마트폰 중독이 우울, 불안 및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혜주 (2012). “청소년의 스마트폰 중독이 사회성 발달 및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호남대학교 산업경영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희민 (2015). “남녀 중학생의 스마트폰 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비교”. 경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문한국 (2013). “스마트폰 중독과 사회불안의 관계 자기몰입의 매개효과”. 상지대학교 상담심리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문의용 (2013). “스마트폰 중독자와 인터넷 중독자의 스트레스대처 방식과 대인관계 성향의 차이”. 조선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광남 (2004). “사회적 지지가 중학생의 집단 괴롭힘 가해 및 피해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세명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두환 (2014). “청소년 스마트폰 이용자 유형에 따른 스마트폰 중독과 학교적응”. 목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용민 (2011). “성인들의 스마트폰 중독과 정신건강에 관한 연구”. 상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인경 (2010). “부모 - 자녀 의사소통에 따른 청소년의 공격성 및 정서조절능력”. 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정아 (2013). “중학생의 자기통제력이 스마트폰 중독성향에 미치는 영향”. 제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정태 (2014). “고등생이 지각한 사회적 지지 및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진로준비행동의 관계”. 목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지만 (2016). “외상경험과 학교적응간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의 역할 - 서울시 사회복지기관 이용 청소년 중심으로”. 카톨릭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백승미 (2003). “부모 - 자녀간의 의사소통과 아동의 다중지능과의 관계”. 서울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신동현 (2002). “사회적 지지가 시설보호 청소년들의 학교 중도탈락에 미치는 영향”. 카톨릭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신용민 (2014). “스마트폰 중독유형에 따른 온-오프라인 대인관계성향 및 감정표현 불능증”. 충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성두현 (2014). “청소년 또래 괴롭힘, 우울감이 자살 생각에 미치는 영향 연구 -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백석대학교 기독교 전문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송선주 (2016). “성격강점, 사회적 지지 및 공감의 행복에 미치는 영향”.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송여옥 (2002). “부모의 의사소통유형과 자녀의 대인관계성향에 관한 연구”.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심예나 (2016). “청소년의 내현적 자기애와 스마트폰 중독경향성의 관계에서 또래관계의 매개효과”.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양영하 (2013). “청소년의 가정 및 학교적응이 스마트폰 중독에 미치는 영향”. 한양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유승숙 (2014). “대학생의 스마트폰 중독 정도와 우울, 불안 공격성의 관계 - 자기통제의 조절효과”. 계명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경남 (2004). “중학생이 지각한 사회적 지지 및 스트레스와 학교생활적응간의 관계”. 충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상민 (2014). “스마트폰 중독과 자기효능감 및 문제해결능력의 상관성 연구”. 건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성태 (2006). “사회적 지지가 시설 청소년의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명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숙희 (2014). “부모-자녀_의사소통과_인터넷_및_스마트폰_중독과의_관계”. 순천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유진 (2013). “스마트폰 의존 유형이 스마트폰 중독 정도와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 전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현주 (2015). “중학생의 정서강도가 스마트폰 중독에 미치는 영향, 정서조절곤란의 매개효과”.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양혜경 (2014). “사회적 지지가 위기청소년의 자립의지에 미치는 영향”. 경기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유소영 (2013). “사회적 지지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다문화 중학생의 진로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유다미 (2015). “청소년의 적응유연성과 가정의 심리적 환경, 사회적 지지 및 학교적응 간의 관계”.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은임선 (2015) “특성화고 고등학생이 지각한 사회적 지지와 자아탄력성이 잠재적 학업중단 의도에 미치는 영향”.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임정빈 (2010). “부모-자녀간 애착과 의사소통유형이 초등학생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한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혜림 (2013). “청소년의 기질 및 성격특성이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에서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 서울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희진 (2014). “우울과 불안이 청소년 스마트폰 중독에 미치는 영향”. 명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경아 (2016). “청소년의 우울, 불안, 충동성과 스마트폰 중독의 관계에서 자아탄력성과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정인아 (1993). “사회적 지지와 대인관력 스트레스에 따른 대인관계 행동”. 이화여자대학교

-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전은정 (2009). “아동의 공감능력 및 사회적 지지와 사회적 유능성과의 관계”.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장효진 (2010). “청소년의 사회적 지지와 희망의 관계”.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전수아 (2016). “부모 - 자녀 갈등이 청소년의 성의식에 미치는 영향”. 성균관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조원미 (2015). “초등학교 고학년 아동이 지각한 사회적 지지와 자기조절능력”. 경인교육대학교 교육전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천은주 (2013).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와 인터넷 및 스마트폰 중독 간의 관계”. 대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추이현 (2002). “사회적 지지 및 자아존중감이 중학생의 적응행동에 미치는 영향”. 전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2013) 충남 청소년의 스마트폰 사용 실태조사
- 최미선 (2005). “사회적 지지가 중학생의 학교 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경성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성환 (2013). “청소년 정서조절의 이해 - 측정도구의 개발 및 타당화”. 한국상당대학원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최영임 (2012). “부모의 의사소통이 자녀의 또래관계기술에 미치는 영향”.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윤정 (2009). “학교적응에 미치는 아동의 수줍음, 사회적 지지 및 자기효능감의 효과”. 서강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한남식 (2011). “중학생의 대인관계 성향과 또래 괴롭힘 및 사회적 지지와 사회적 불안과의 관계”. 연세대학교 생활환경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한유진 (2007). 부모 - “자녀 간 성격 및 영향력 차이와 가족기능의 관계”.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한지연 (2007). “사회적 지지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다문화 중학생의 진로에 미치는 영향”. 명지대학교.
- 허지혜 (2013). “청소년의 친구관계와 자아존중감이 스마트폰 중독에 미치는 영향”. 대구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 홍애순 (2013). “초등생이 지각한 사회적 지지, 학업적 자기효능감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 동아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한혜숙 (2009). 부모 - “자녀 간의 의사소통이 청소년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경북외국어대학교 목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한국인터넷진흥원(2015). 2014년 인터넷이용실태조사
- 한국인터넷진흥원(2012). 청소년 스마트폰중독 자가진단척도

부록- 설문지

2017년 청소년 스마트폰 사용 실태조사

안녕하세요, 청소년 여러분!

(재)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민법 제32조, 청소년복지지원법 제14조에 의거 충청남도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과 지원을 위해 청소년에 대한 연구, 상담, 보호, 긴급구조 및 활동 등 통합적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국가에서 설립한 청소년 전문기관입니다

이 설문지는 충청남도 청소년의 생각과 경험을 묻는 질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각 문항을 읽고 해당하는 곳에 솔직하게 응답해 주시면 됩니다.

이 조사는 익명으로 진행됨으로 여러분의 이름은 적을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응답한 내용은 철저히 비밀이 보장되며, 전체 응답은 한꺼번에 통계처리 될 것입니다. 조사결과는 학교나 보호자에게 알려지지 않으며, 오직 연구 목적으로만 사용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여러분이 응답해주시는 내용은 향후 청소년을 위한 제도나 지원을 마련하는데 소중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입니다. 힘들더라도 한 문장도 빠뜨리지 말고 성실하게 응답해주시기 바랍니다.

소중한 시간을 내어 설문조사에 참여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7년 8월
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드림

본 연구는 충남 도내 15개 시·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함께 합니다.

천안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공주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보령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아산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서산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논산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계룡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당진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금산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부여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서천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양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홍성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예산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태안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 통계법 제 32조에 의거하여 응답자는 조사사항에 대해 성실하게 응답하여야 하며, 본 조사의 내용은 통계법 제33조에 의거하여 비밀이 보장되며 통계목적 외에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 다음 문항을 읽고 해당되는 번호의 () 속에 √ 표시를 해 주세요

1. 성별 : ① 남자 () ② 여자 ()
2. 현재 본인의 나이를 √ 표시 해주세요.
 ① 12세 () ② 13세 () ③ 14세 () ④ 15세 ()
 ⑤ 16세 () ⑥ 17세 () ⑦ 18세 () ⑧ 19세 이상 ()
3. 소속된 학교 및 기관은 어디입니까? (한 가지만 √ 표시 해주세요)
 ① 초등학교 () ② 중학교 ()
 ③ 인문계 고등학교 () ④ 전문계(실업계) 고등학교 ()
 ⑤ 학교에 다니고 있지 않음 ()
4. 현재 살고 있는 지역은 어디입니까? (한 가지만 √ 표시 해주세요)
 ① 천안시 () ② 공주시 () ③ 보령시 ()
 ④ 아산시 () ⑤ 서산시 () ⑥ 논산시 ()
 ⑦ 계룡시 () ⑧ 당진시 () ⑨ 금산군 ()
 ⑩ 부여군 () ⑪ 서천군 () ⑫ 청양군 ()
 ⑬ 홍성군 () ⑭ 예산군 () ⑮ 태안군 ()
5. 현재 누구와 같이 살고 있습니까? (해당되는 것에 모두 √ 표시 해주세요)
 ① 친아버지 () ② 친어머니 () ③ 새아버지 ()
 ④ 새어머니 () ⑤ (외)할머니나 (외)할아버지 () ⑥ 친척 ()
 ⑦ 형제자매 () ⑧ 친구 또는 선후배 ()
 ⑨ 청소년보호자(쉼터, 그룹홈, 일시보호시설 등) ()
 ⑩ 혼자 살고 있다 () ⑪ 기타 (구체적으로 누구와?) ()
6. 가정의 경제수준은 어느 정도에 해당합니까? (한 가지만 √ 표시 해주세요)
 ① 매우 어려운 편이다 () ② 어려운 편이다 ()
 ③ 보통이다 () ④ 잘사는 편이다 ()
 ⑤ 매우 잘사는 편이다 ()
7. 국가나 단체에서 경제적으로 지원을 받고 있다면 어떤 지원을 받고 있습니까?
 (해당되는 것에 모두 √ 표시 해주세요)
 ① 없다 () ② 기초생계비지원 ()
 ③ 의료비지원 () ④ 급식비지원 ()
 ⑤ 긴급복지지원(가장의 사망, 질병 등의 위급한 상황에서 지원받는 경우) ()
 ⑥ 기타 () ⑦ 모르겠다 ()
8. 현재 부모(혹은 조부모, 친척 등)로부터 물질적 지원(예-학비, 학원비, 용돈 등)을 어느 정도 받고 있습니까? (한 가지만 √ 표시 해주세요)
 ① 전혀 받지 못하고 있다 () ② 부족하다 ()
 ③ 보통이다 () ④ 받고 있는 편이다 ()
 ⑤ 충분히 받고 있다 ()
9. 현재 부모(혹은 조부모, 친척 등)로부터 정서적 지원(예-고민상담, 대화, 관심, 칭찬 등)을 어느 정도 받고 있습니까? (한 가지만 √ 표시 해주세요)
 ① 전혀 받지 못하고 있다 () ② 부족하다 ()
 ③ 보통이다 () ④ 받고 있는 편이다 ()
 ⑤ 충분히 받고 있다 ()
10. 어렵고 힘들 때 도움을 청할 사람이 있습니까? (한 가지만 √ 표시 해주세요)

- ① 저녁 10시 이전 () ② 밤 10시~12시 () ③ 밤 12시~2시 ()
 ④ 밤 2시~4시 () ⑤ 밤 4시 이후 ()

21. 자신이 생각할 때 나의 스마트폰 의존 정도는 어느 정도인 것 같습니까?

- ① 매우 낮다 () ② 낮다 () ③ 보통이다 ()
 ④ 높다 () ⑤ 매우 높다 ()

22. 우리집에서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사람을 모두 √ 표시를 해 주세요

- ① (외)할아버지 () ② (외) 할머니 () ③ 아버지 ()
 ④ 어머니 () ⑤ 형제, 자매 () ⑥ 기타 가족 ()

※ 스마트폰 사용하면서 아래의 각 문항 내용에 얼마나 만족하시나요? 자신의 생각과 일치하는 곳에 √ 표시를 해 주세요

| 문항 내용 | 전혀 그렇지 않다 | 그렇지 않다 | 보통이다 | 그렇다 | 매우 그렇다 |
|---|-----------|--------|------|-----|--------|
| 23 생활이 전반적으로 편리해졌다 | | | | | |
| 24 더 많은 정보나 지식을 얻게 되었다 | | | | | |
| 25 SNS(카카오톡, 페이스북, 카카오톡스토리 등)를 통해 많은 사람을 알게 되었다 | | | | | |
| 26 게임이나 다양한 어플리케이션 활동으로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이 되었다 | | | | | |
| 27 학습에 도움이 되었다 | | | | | |
| 28 사회문제에 관심을 갖거나 참여할 기회가 많아졌다 | | | | | |
| 29 부모나 친구관계의 갈등 해결에 도움이 되었다 | | | | | |
| 30 무료통화/문자/할인쿠폰 등으로 돈을 절약할 수 있었다 | | | | | |
| 31 특별히 할 일이 없을 때 시간 보내는데 도움이 되었다 | | | | | |

※ 스마트폰에 대한 이용습관을 알아보기 위한 것입니다. 자신의 모습과 일치한다고 생각되는 곳에 √ 표시를 해 주세요

| 문항 내용 | 전혀 그렇지 않다 | 그렇지 않다 | 그렇다 | 매우 그렇다 |
|---|-----------|--------|-----|--------|
| 32 스마트폰의 지나친 사용으로 학교성적이 떨어졌다 | | | | |
| 33 가족이나 친구들과 함께 하는 것보다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 더 즐겁다 | | | | |
| 34 스마트폰을 사용할 수 없게 된다면 견디기 힘들 것이다 | | | | |
| 35 스마트폰 사용시간을 줄이려고 해보았지만 실패한다. | | | | |
| 36 스마트폰 사용으로 계획한 일(공부, 숙제 또는 학원수강 등)을 하기 어렵다 | | | | |
| 37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못하면 온 세상을 잃은 것 같은 생각이 든다 | | | | |
| 38 스마트폰이 없으면 안전부절 못하고 초조해진다 | | | | |
| 39 스마트폰 사용시간을 스스로 조절할 수 있다 | | | | |
| 40 수시로 스마트폰을 사용하다가 지적을 받은 적이 있다 | | | | |
| 41 스마트폰이 없어도 불안하지 않다 | | | | |
| 42 스마트폰을 사용할 때 '그만해야지' 라고 생각은 하면서도 계속한다 | | | | |
| 43 스마트폰을 너무 자주 또는 오래한다고 가족이나 친구들과로부터 불평을 들은 적이 있다 | | | | |
| 44 스마트폰 사용이 지금 하고 있는 공부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 | | | |
| 45 스마트폰을 사용 할 수 없을 때 패닉상태에 빠진다 | | | | |
| 46 스마트폰 사용에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이 습관화 되었다 | | | | |

※ 사이버 상에서의 행동에 관한 문항입니다. 평소 자신의 모습과 가까운 곳에 √ 표시를 해 주세요

요

| 문항 내용 | 전혀 그렇지 않다 | 그렇지 않다 | 보통이다 | 그렇다 | 매우 그렇다 |
|--|-----------|--------|------|-----|--------|
| 47 항상 게임 생각이 머리에서 떠나지 않는다 | | | | | |
| 48 채팅을 할 때에는 거친 말을 사용한다 | | | | | |
| 49 남의 아이디를 이용해 불법으로 활동한다 | | | | | |
| 50 인터넷 음란물 사이트에 계속 접속한다 | | | | | |
| 51 다른 사람의 개인 정보를 빼낸다 | | | | | |
| 52 게임을 하느라 학교를 결석한다. | | | | | |
| 53 채팅할 때 상대방 인격을 모독하는 말을 한다. | | | | | |
| 54 가족들의 주민등록번호를 내 것처럼 사용한다 | | | | | |
| 55 번개팅을 해서 성적인 접촉을 한 적이 있다. | | | | | |
| 56 불법으로 파일을 복사한다 | | | | | |
| 57 잠을 자지 않고 밤새도록 게임을 한다 | | | | | |
| 58 채팅에서 심한 욕을 막 한다 | | | | | |
| 59 채팅할 때 나의 나이를 속인다 | | | | | |
| 60 채팅하면서 음란 사진을 보여준 적이 있다. | | | | | |
| 61 불법 음란물을 인터넷에 게시한다 | | | | | |
| 62 게임 외에는 아무것도 관심 없다 | | | | | |
| 63 상대가 누구이든시간에 채팅에서는 거칠게 말한다 | | | | | |
| 64 채팅할 때 나를 다른 사람인 것처럼 소개한다 | | | | | |
| 65 사이버 상에서 스토킹을 한다 | | | | | |
| 66 컴퓨터 해킹을 한다 | | | | | |
| 67 머릿속은 온통 게임 생각으로 가득 차 있다 | | | | | |
| 68 보통 때 입에 못 담을 말도 채팅에서 쉽게 한다. | | | | | |
| 69 사이버 공간에서 거짓말을 한다 | | | | | |
| 70 인터넷에서 음란물을 보느라 잠을 잘 못 잔다 | | | | | |
| 71 인터넷에서 유언비어를 유포한다 | | | | | |
| 72 방에서 나오지 않고 게임만 한다 | | | | | |
| 73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는 말을 채팅에서 한다 | | | | | |
| 74 사이버 공간에서 상대방에게 사기를 친다 | | | | | |
| 75 채팅을 하면서 음란한 말을 주고받는다 | | | | | |
| 76 거짓 정보로 다른 사람을 곤경에 빠트린다 | | | | | |
| 77 돈내기 게임 하는 것을 부모나 가족 또는 선생님에게 숨긴 적이 있다 | | | | | |
| 78 전에 잃은 돈을 되찾기 위해 다시 돈내기 게임을 한 적이 있다 | | | | | |
| 79 돈내기 게임으로 인해 내게 문제가 생겼다고 느낀 적이 있다 | | | | | |
| 80 용돈(밥이나 옷, 영화표 구입 등)을 돈내기 게임에 쓴 적이 있다 | | | | | |

※ 당신의 평소 모습과 얼마나 일치합니까? 아래의 내용을 잘 읽고 가장 잘 나타낸 칸에

✓ 표시를 해 주세요

| 문항 내용 | 전혀 그렇지 않다 | 그렇지 않다 | 보통이다 | 그렇다 | 매우 그렇다 |
|---|-----------|--------|------|-----|--------|
| 81 나는 여러 가지 걱정을 많이 한다 | | | | | |
| 82 평소 예민하고 불안을 많이 느낀다 | | | | | |
| 83 작은 일에도 걱정이 된다 | | | | | |
| 84 가끔 손에 땀이 나고 긴장이 된다 | | | | | |
| 85 아무 이유도 없이 두려워진다 | | | | | |
| 86 특별한 문제가 없는 데도 무슨 잘못된 일이 생기지 않을까 걱정이 된다 | | | | | |
| 87 지나치게 많이 걱정한다 | | | | | |
| 88 무서운 생각이 들 때가 많다 | | | | | |
| 89 정말 나는 불행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 | | | | |
| 90 사소한 일에도 쉽게 마음이 슬퍼진다 | | | | | |
| 91 나에게서는 더 이상 희망이 없다 | | | | | |
| 92 나의 잘못 때문에 마음이 괴롭다 | | | | | |
| 93 아무 이유도 없이 눈물이 날 때가 많다 | | | | | |
| 94 자살할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워본 적이 있다 | | | | | |
| 95 내 인생은 점점 더 나빠지고 있다 | | | | | |
| 96 아무도 나를 이해하지 못한다 | | | | | |
| 97 답답해서 한자리에 오래 앉아 있지 못한다 | | | | | |
| 98 하고 싶은 것은 당장하지 않으면 미칠 것 같다 | | | | | |
| 99 가끔 음식을 너무 많이 먹어서 탈이 날때가 있다. | | | | | |
| 100 침착하지 못하다고 꾸중을 들을 때가 자주 있다 | | | | | |
| 101 내 자신을 조절하지 못해 아무렇게나 행동할 때가 많다 | | | | | |
| 102 생각 없이 함부로 말을 해서 후회할 때가 있다 | | | | | |
| 103 책을 오래 동안 읽지 못한다. | | | | | |
| 104 쉽게 주의가 산만해지고 마음을 집중할 수가 없다 | | | | | |
| 105 나는 조그만 일에도 화를 잘 낸다 | | | | | |
| 106 가족이나 친구 때문에 화가 날 때가 많다 | | | | | |
| 107 가족들에게 거칠고 심술궂게 대할 때가 있다 | | | | | |
| 108 무엇이든지 부수고 싶은 충동이 생긴다 | | | | | |
| 109 다른 사람을 괴롭혀 주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 | | | | | |
| 110 화가 나서 참지 못할 때가 종종 있다 | | | | | |
| 111 가끔 거친 말이나 욕을 큰소리로 하고 싶을 때가 있다 | | | | | |
| 112 누군가에게 시비를 걸어서 싸우고 싶을 때가 있다 | | | | | |

※ 당신의 친구, 가족, 선생님 및 지역사회에 대해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 알아보는 것입니다.

아래의 내용을 잘 읽고 당신의 생각이나 느낌과 가장 같다고 생각되는 칸에 ✓ 표시를 해 주세요

| 문항 내용 | 전혀 그렇지 않다 | 그렇지 않다 | 보통이다 | 그렇다 | 매우 그렇다 |
|---|-----------|--------|------|-----|--------|
| 113 내 친구들이 나를 좋아하는 것 같다 | | | | | |
| 114 내 친구들은 나를 따돌리는 것 같다 | | | | | |
| 115 내 친구들은 내 생각이나 말을 잘 들어주는 것 같다 | | | | | |
| 116 내가 어려운 일이 생기면 내 친구들은 날 위로해 주고 격려해 주는 것 같다. | | | | | |
| 117 나와 친구들은 서로 잘 도와주는 것 같다 | | | | | |
| 118 내 친구들은 나에게 관심이 많은 것 같다 | | | | | |
| 119 내 친구들은 나와 함께 지내는 것을 좋아하는 것 같다 | | | | | |
| 120 내 친구들은 나를 잘 이해해 주는 것 같다 | | | | | |
| 121 우리 가족은 나를 별로 사랑하지 않는 것 같다 | | | | | |
| 122 우리 가족은 서로 많이 도와주는 것 같다 | | | | | |
| 123 우리 가족은 나를 잘 이해해 주는 것 같다 | | | | | |
| 124 우리 가족은 갖고 있는 것들을 서로 나누어 가지는 것 같다 | | | | | |
| 125 내가 힘들어 할 때 우리 가족은 내게 힘과 동기를 주는 것 같다 | | | | | |
| 126 우리 가족은 내 생각이나 말을 잘 들어 주는 것 같다. | | | | | |
| 127 우리 가족은 나를 중요한 사람으로 생각하는 것 같다 | | | | | |
| 128 우리 가족은 나에게 관심이 많은 것 같다 | | | | | |
| 129 나는 선생님과 친한 것 같다 | | | | | |
| 130 선생님은 날 잘 도와주시는 것 같다 | | | | | |
| 131 나는 선생님과 이야기하기가 어려운 것 같다 | | | | | |
| 132 선생님은 내 기분을 별로 중요하게 여기는 것 같지 않다 | | | | | |
| 133 선생님은 날 좋아하시는 것 같다 | | | | | |
| 134 선생님은 나에게 관심이 많으신 것 같다 | | | | | |
| 135 내가 아프거나 네게 무슨 일이 생기면 선생님은 날 걱정해 주시는 것 같다 | | | | | |
| 136 선생님은 나를 중요한 사람으로 인정해 주시는 것 같다 | | | | | |
| 137 스마트폰을 사용하면서 어려움이나 도움이 필요할 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기관이 우리지역에 있다 | | | | | |
| 138 스마트폰 사용과 관련된 어려움으로 우리지역 내 기관에서 도움을 받아 본 적이 있다 | | | | | |
| 139 스마트폰 사용으로 문제 상황에 처할 때 도와 줄 기관에 연락하여 적절한 서비스를 받고 싶다 | | | | | |

수고 많으셨습니다.

★ 빠진 문항이 없는지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세요. ★